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

2022년 8월 19일(금) 오후2시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 주최 : 양양문화원
- 주관 : 양양문화원 · 아시아강원민속학회
- 후원 : 양양군, 양양군의회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

2022년 8월 19일(금) 오후2시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 주최 : 양양문화원
- 주관 : 양양문화원 · 아시아강원민속학회
- 후원 : 양양군, 양양군의회

환 영 사

오늘 우리 양양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학술대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양양의 문화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양의 뿌리는 50만년전 구석기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란 말처럼 지정학적으로 역사의 변곡점에 항상 위치해 있던 우리 양양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타에 의해 우리의 뿌리를 유지해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사료인 동해신묘는 고려시대부터 국가 제사처로 나라에서 국왕이 향과 축을 내려보내 동해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빌던 제사장소인데 그 이름이 고려시대에는 동해신사로 조선시대에 오면서 동해신사당, 동해신단, 동해묘, 동해신묘로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국가가 새로 개국을 하거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에도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우선시 해 왔습니다.
우리 양양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지역이 되어 새로운 웅비의 시대를 열어갈 시점에와 있습니다.
특히 민선 3선의 성공으로 글로벌 플렛폼을 열어가는 김진하 군수님이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통찰하시고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이 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양양이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하고 이것을 또 우리의 자산과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 또한 양양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의 의지와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 김진하 군수님께서 이러한 의지를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원도 향토사 연구소를 지역학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어 본격적으로 양양학 연구사업에 매진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기관단체장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학술대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문화 가족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양문화원장 박 상 민

학술대회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진 행
개회식	14:00~14:05	국민의례	김진하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14:05~14:10	환영사	박상민 (양양문화원장)
	14:10~14:15	대회사	이창식 (아시아강원민속학회장, 세명대인문예술대학장)
	14:15~14:30	축사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의장)
주제발표	14:30~15:00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전승 양상	김도현 (강원도문화재위원)
	15:00~15:30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東海神廟)의 명칭 고찰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
	15:30~16:00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	김상태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
	16:00~16:30	동해신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16:30~17:30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좌장 : 이창식(아시아강원민속학회장) 임승범 (문화재청 연구관) 이규대 (강릉원주대 명예교수) 최명환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이사) 이영식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이사) 전유길 (양양군청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고문)
폐회	17:30~		

목 차

주제발표

■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전승 양상 ---------- 5
김도현 (강원도문화재 위원)

■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東海神廟)의 명칭 고찰 ---------- 43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

■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 ---------- 77
김상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동해신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 ---------- 131
– 인간과 귀신의 교감으로 양양을 용오름 도시로 만들기 –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토 론 문

■ 임승범 (문화재청 연구관) ---------- 164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전승 양상

■ 이규대 (강릉원주대 명예교수) ---------- 166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東海神廟)의 명칭고찰

■ 최명환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이사) ---------- 168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

■ 이영식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이사) ---------- 170
동해신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

■ 전유길 (양양군청 문화체육과장)

■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고문)

주제발표 1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전승 양상

김 도 현
(강원도문화재 위원)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전승 양상

김 도 현
(강원도문화재위원)

Ⅰ. 머리말
Ⅱ. 東海에서의 신앙 전통
1. 기록에 나타난 東海에서의 신앙 전통
2. 모시는 신령
Ⅲ. 동해신묘 관련 기록 검토
1. 각종 기록을 통해 본 동해신묘
2. 고지도를 통해 본 동해신묘
Ⅳ. 동해신묘제의 전승 양상
1. 동해신묘
2. 동해신묘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조선시대에 東海神에게 제사지냄으로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국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국가 지원으로 제사를 지낸 곳이 東海神廟[1]이다. 이곳에서 지낸 제의를 동해신묘제[2]라고 한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1월 22일에 옛터를 '강원도 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다.

동해신묘를 세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관련 기록[3]을 보면, 고려시대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관련 기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 국가제사 가운데 중사(中祀) 장소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소부부고』, 『여지도서』, 『관동읍지』, 『현산지』, 『동국문헌비고』, 『향토지』 등에 관련 기록이 전한다.

1) 현재 제당 입구 중앙에 '東海廟'라 쓴 편액을 걸었으나, 문화재 지정 명칭은 '襄陽東海神廟址' 즉 '東海神廟'라 함을 알 수 있다, 각종 기록과 고지도에는 東海神祠, 東海神祠堂, 東海神廟, 東海廟, 東海神檀, 東海神坮 등 다양하게 적혀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 지정 명칭인 '東海神廟'로 통일하여 적고, 필요시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2) 『東營狀啓謄錄』 을 보면, 동해신묘에서 양양부사를 헌관으로 임명하여 지낸 제의 명칭을 '東海廟祭'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동해신묘에서 매년 1월 1일 지내는 제사를 공식적으로 '東海廣德龍王神 祭禮'라 하며, 이를 약칭하여 분방기에 '東海神廟祭'라고 적었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제의 명칭을 '東海神廟祭'로 통일하여 적었다.

3) 『高麗史』 雜祀條 顯宗16년 5월 <…以海陽道定安縣再進珊瑚樹陞南海神祀典…>
『高麗史節要』 <…敎曰海陽道定安縣再進珊瑚樹其南海龍神宜陞祀典以奬玄功…>

18세기 기록을 보면 동해신묘는 정전(正殿) 여섯 칸, 신문(神門) 세 칸, 전사청(奠祀廳) 두 칸, 동재(東齋) 두 칸, 서재(西齋) 두 칸, 백천문(百川門) 한 칸 규모였다. 제향은 세수(歲首)에 별제(別祭)를 올리고, 춘추로 상제(常祭)가 있었다. 1722년(경종2)에 양양부사 채팽윤과 1752년(영조 28)에 양양부사 이성억이 중수하였다. 1800년(정조 24)에는 어사 권준의 상소에 따라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주관으로 중수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와 백천문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전에 백천문은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1908년(융희 2) 12월 26일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동해신묘는 철폐되었다. 당시 양양군수 최종락이 정부의 영에 따라 신위를 신묘 뒤편에 매장하고 신묘를 철폐하였다는 기록이 양양군 『향토지』에 전해진다.

현재 동해신묘는 1993년부터 시작한 동해신묘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원된 것이다. 1605년(선조 38)에 허균이 지은 <중수동해용왕묘비(重修東海龍王廟碑)>와 1800년(정조 24)에 관찰사 남공철이 지은 글인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도 복원되었다. 오석으로 되어 있는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는 높이는 35㎝, 둘레는 60㎝ 안팎으로 사면에 글씨가 석각되어 있으며 훼손이 심한 상태다.

동해신묘 관련한 기존의 조사 ·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영호 교수가 1997년 「동해묘에 관한 소고」 제목으로 발표한 글에서 동해 신앙의 유래, 동해묘의 역사적 성격, 동해묘 복원 방안에 대하여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4] 1999년에는 강릉대 박물관에서 양양군의 의뢰를 받아 동해신묘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유적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의 뒷부분에는 동해신묘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를 이규대 교수가 정리하여 실었기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다.[5] 장정룡 교수는 「동해신묘의 문화사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동해신묘의 건립과 이전 문제를 각종 자료와 함께 전승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여 고려말에 정동진에 건립된 동해신묘를 조선시대에 양양으로 이전하였음과 동해신묘의 건물 배치, 모신 신령 등에 대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6] 양언석 교수는 「동해신사(東海神祠) 고찰 -명칭을 중심으로-」에서 각종 기록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해신사를 이르는 명칭과 이전설, 훼철과 복원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7]

이와 같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해신묘 관련 유적과 관련 기록을 폭넓게 소개하였기에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동해신묘 명칭과 모신 신령, 지닌 의미와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가능케 하였다.

필자는 기존 연구성과에 더하여 동해신묘에서 설행한 제의 전통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해 『국조오례의』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동해안에서의 신앙 전통과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이에 더하여 동해신묘의 전승 양상을 소개함으로서 동해신

4) 정영호, 「동해묘에 관한 소고」, 『청람사학』 창간호,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사학회, 1997.
5) 강릉대 박물관, 『양양 동해신묘』, 1999.
6) 장정룡, 「동해신묘의 문화사적 고찰」,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7) 양언석, 「동해신사(東海神祠) 고찰 -명칭을 중심으로-」, 『아시아강원민속학』 제33집, 2020.

묘 복원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의 연구와 재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Ⅱ. 東海에서의 신앙 전통

1. 기록에 나타난 東海에서의 신앙 전통

가. 신라

신라는 東海와 南海, 그리고 北海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하는 祭場을 마련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고, 신라 수도인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군사·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설치하였다. 경주 가까이에 동해와 남해를 관장하는 해신을 위한 제장을 만들고, 北海의 祭場은 동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활동의 거점인 삼척 비례산에 설치하였다.

삼척 오십천 하구는 자연 항구로써, 이곳을 중심으로 울릉도와 동해안 남북으로 향하는 해상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는 결절점이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해상 교통 중심지인 삼척을 지키지 못한다면 신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이에 삼척 비례산에 北海 祭場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례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다른 해안지역의 제장과는 달리 山이라는 점과 삼척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덧붙여 제사를 지낸 산이라면 신령이 좌정할 만한 공간적 특징을 지니면서, 海神을 위하는 제의를 설행할 수 있는 여건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비례산이 어디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기에, 삼척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을 확보하였던 신라가 왜 삼척에 북해제장을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필자는 바다에 제사 지낸 목적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海神을 잘 위해주어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海神祭[龍王祭]를 지낸 전통은 고대국가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동해에서 海神[龍]을 위하는 전통과 고대 국가 단계에서 행하였을 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삼국유사』2 기이 제2 만파식적

제 31대 신문왕의 이름은 政明이요. … 동해 바다에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로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日官 김춘질에게 점을 쳐 보게 하였더니. 일관이 아뢰었다. “대왕의 아버님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지키고 계시고 …

[자료 2] 동해를 향한 '望海' 기사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2, 미추이사금 3년

미추이사금 3년(264)에 왕은 동쪽으로 순행하여 '望海'하였고 …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9, 혜공왕 12년

감은사에 행차하여 望海하였다.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11, 경문왕 4년

감은사에 행차하여 望海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望海'는 동해를 관장하는 신령에 대한 경건한 의식이다.[8] 그리고 동해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종원은 단군신화 관련 연구에서 감은사를 동해신(=용)[9]을 모시기 위한 절이라고 하였다.[10] 즉, 동해신은 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료 3] 『삼국유사』 기이 2 수로부인

성덕왕대에 순정공이 강릉태수(今 溟州)로 부임차 가다가 바닷가[海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돌봉우리가 병풍처럼 바다를 두르고[臨海] 있고 높이가 천 장[丈]이나 되고 그 위에 철쭉꽃이 만발해 있었다. 공의 부인 수로가 보고 좌우에 이르기를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그 누구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종자는 "사람의 발길이 이를 수 없는 곳입니다"하고 모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때 옆에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있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는 꽃을 꺾어 노래[歌詞]까지 지어 바쳤다.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다. 그 뒤 이틀 길을 더 가다가 또 바닷가의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공은 땅바닥에 넘어질 듯 발을 굴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또 다시 한 노인이 있어 말해주기를 "옛 사람의 말에 뭇 사람들의 말은 쇠도 녹인다 하니 바다 속의 용인들 어찌 뭇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 않겠습니까. 마땅히 관내(管內)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바다 언덕을 지팡이로 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부인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다. 공이 그 말을 따랐더니 용이 부인을 받들어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니 "칠보궁전에 음식은 감미롭고 기름지며 향기롭고 깨끗한 것이 인간의 연화(煙火)가 아니었습니다" 했다. 이때 부인의 옷에 배인 향기는 기이하여 세상에서 들어본 바 없는 것이었다. 수로부인은 자태와 용모가 절세로 빼어나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번 신물(神物)에게 붙잡혀갔다. 이때 뭇 사람들이 부르던 해가(海歌)는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앗아간 죄 그 얼마나 크랴, 네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먹으리」라고 했고 노인의 헌화가는 「자줏빛 바위 위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

8) 김영하, 「신라시대 순수의 성격」, 『민족문화연구』 14, 1979, 218~219쪽.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164쪽.

9) 동해신은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술을 부리므로 鎭撫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수로부인, 처용랑, 망해사 이야기를 보면 때로는 동해신(용)이 위함을 받아야 하는 신격임을 알 수 있다.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164쪽.

10)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의 실체」, 『한국사연구』 118, 2002, 22~24쪽.

으신다면, 저 꽃 꺾어 바치오리다.」라고 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당시 東海를 관장하였던 신령이 용(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료 1]은 문무왕이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자료 2]는 '望海'라는 용어를 통해 동해를 관장하는 신령, 즉 용에 대한 경건한 의식을 행하였음을 보여주며, [자료 3]은 바다를 관장하는 용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당시 신라인들은 동해를 관장하는 신령으로 '용'을 믿었고, 이에 따라 용을 모시는 절을 짓고, 종교의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11)]

나. 고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고려시대에 바다에서 제사지냈던 전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4] 『高麗史』 雜祀條 顯宗16년 5월

以海陽道定安縣再進珊瑚樹陞南海神祀典

[자료 5] 『高麗史節要』

敎曰海陽道定安縣再進珊瑚樹其南海龍神宜陞祀典以奬玄功

위의 [자료 4, 5]의 기록은 고려시대의 海神은 自然神이 아니라 龍이라는 상서로운 동물로 형상화된 神靈이며, 특정 신령이 국가제사를 받는 祀典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玄功에 의해 그 神의 神靈함이 증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12)]

그리고 嶽·海·瀆및 山川에 대한 제사는 다른 시대의 국가제사와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中·小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雜祀로 구분되어 있다. 嶽·鎭은 山嶽神인데, 嶽은 五嶽혹은 四嶽을 말하며, 鎭은 鎭護하는 山神을 말한다. 瀆은 흔히 四瀆이라 하며, 發源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을 말한다. 고려의 嶽·瀆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海神은 각 방위별로 제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南海神은 海陽道定安縣에서 珊瑚樹를 바친 것을 계기가 되어 현종 16년에 祀典에 올랐다.[13)]

또한 이규보가 食蒸蟹라는 詩에서 게는 '8월에 稻芒을 東海神에게 보내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부들은 게의 풍작을 위해 8월에 東海神에게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태조대의 팔관회에는 龍神이 나타나 있는데, 흔히 龍은 국가와 불법의 수호자, 혹은 水神·海神으로 나타난다. 八關은 天靈과 五嶽·名山大川·龍神등을 섬기는 것이라는 표현

11) 김도현, 「신라의 국가 제사와 삼척」, 『이사부와 동해』12호, 한국이사부학회, 2016. 8.
12) 김철웅, 「고려시대 잡사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3) 김철웅, 「고려시대 잡사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은 주요 神格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龍神은 水神 혹은 海神으로 판단된다.[14)]

위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고려시대의 海神은 自然神이 아니라 龍이라는 상서로운 동물로 형상화된 神靈이었음을 알 수 있고,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위해 이들을 모셔서 제사할 때 각 방위별로 제사지냈음을 알 수 있다.

다. 조선

조선시대에도 국가 차원에서 東海에 제사지내기 위해 양양에 東海神廟를 설치하였고, 수토 관련 기록을 보면 海神을 위하는 제사를 지내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東海神廟 설치

조선시대에 국가제사인 中祀를 지낸 곳 중에는 현재 양양에 설치하여 동해에 제사지낸 東海神廟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조 38년(1605)에 허균이 작성한 아래의 「重修東海龍王碑文」을 통해 국가 제장인 東海神廟에서 모셨던 神靈은 龍王神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료 6] 許筠의 『惺所覆瓿藁』에 실려 있는 「重修東海龍王碑文」 중 관련 내용

… "우리나라는 사해 용왕을 위해 사당을 세우되 지리의 중앙되는 곳을 가려 설치하였는데 강릉은 동해의 한 가운데이고, 정동이며, 더욱이 고을 한 가운데가 상개(爽塏 ; 앞이 탁 트여 밝은 땅)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동이라 이름하고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용왕께 제사지냈다. 그런데 공희왕(恭僖王 중종) 때에 강릉부 사람으로 장원 급제한 심언경(沈彦慶) · 심언광(沈彦光) 형제가 용왕의 사당에 비용이 든다 하여 방백에게 말하여 상께 글을 올리고, 까닭없이 옮겨버렸다. 요즘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동해 용왕의 사당은 양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당 자리는 낮고 더러워 귀신의 영을 평안히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하니, 귀신의 노여움도 당연하다 하겠다. 언광 형제의 몰락도 이것 때문일 것이며, 을사년 바람과 비의 변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신이 사람에게 밝게 고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이다. 부사의 사당 개수(改修)는 예에 들어맞는 처사니, 어찌 그를 덮어 둘 것인가."

하고, 갖추어 기록하고 이에 송(頌)을 드린다.

바다는 천지 간에 / 가장 큰 것이온데
그 누가 왕이 되어 / 바람 불고 비 오게 하는가

14) 김철웅, 「고려시대 잡사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강하고 강한 용왕신이라 / 하늘의 용은 이것 같음이 없네
복 내리고 화 내리매 / 신령스러운 응보 매우 진실코야 …15)

2) 울릉도 수토 관련 기록에 나타난 海神 모신 전통

조선전기부터 울릉도를 관리·수호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였으나 중기에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숙종 19년(1693) 울릉도에서 안용복 등 조선 어부들과 일본 어부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과 그 이후의 갈등으로 인해 숙종 20년(1694)에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하였다. 이후 수토를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확정하여 숙종 23년(1697)과 숙종 24년(1698)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3년마다 수토를 하였다.16)

울릉도를 수토할 때 수토관들은 출항부터 귀항할 때까지 山祭와 海祭·船祭 등 각종 제사를 지냈음은 다음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7]『日省錄』正祖 10年(1786) 6月 4日

… 수토관(搜討官)의 차례가 된 월송 만호(越松萬戶) 김창윤(金昌胤)의 첩정(牒呈) 안에, '4월 19일에 평해(平海) 구미진(丘尾津)에서 바람을 살폈습니다. … 29일에 배가 출항하여 저전동(苧田洞)에 이르자 배 4척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목욕하고 산제(山祭)를 지낸 뒤에 간심(看審)하니, … 수색한 뒤 같은 날 신시에 일행이 일제히 단 위에 올라 바다 신[海神]에게 삼가 제사를 지내고, 돛을 걸고 곧 돌아왔습니다. …17)

[자료 8]『朝鮮王朝實錄』正祖 18年(1794) 6月 3日

… 수토관 월송 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관문을 띄워 분부하였습니다. 월송 만호의 첩정(牒呈)에 '4월 21일 다행히도 순풍을 얻어서 식량과 반찬거리를 4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왜학(倭學) 이복상(李福祥) 및 상하 원역(員役)과 격군(格軍) 80명을 거느리고 같은 날 미시(未時)쯤에 출선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는데, 유시(酉時)에 갑자기 북풍이 일며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게 끼고, 우뢰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일시에 출발한 4척의 배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만호가 정신을 차려 군복을 입고 바다에 기원한 다음 많은 식량을 물에 뿌려 해신(海神)을 먹인 뒤에 격군들을 시켜 횃불을 들어 호응케 했더니, 두 척의 배는 횃불을 들어서 대답하고 한 척의 배는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이어 죽암(竹巖)·후포암(帿布巖)·공암(孔巖)·추산(錐山) 등의 여러 곳을 둘려보고 나서

15) 許筠,『惺所覆瓿藁』,「重修東海龍王碑文」 〈… 我國設四海龍祠。相度地理之中以置宇。江陵爲東海之最中。而正東尤其邑之中。位置爽塏。故名爲正東。自新羅祭龍于是。恭僖王朝。府人沈彦慶, 彦光兄弟秉魁枋。以龍祠有費於府。諷方伯啓聞。無故移之。方纂輿地。書曰。東海在襄陽。至今未復舊。今祠地庳汚。不合妥靈。宜其神之怒也。彦光兄弟之敗。其亦坐是。而乙巳風水之變。實可懼也。神之明告人。人不能信。吁其惑也夫。府伯之改修廟。甚合於禮。其可泯之乎。遂備紀而係以之頌曰。海於天地。爲物甚鉅。孰王其中。以風以雨。矯矯龍神。天用莫如。降福降祲。靈應孔孚 …〉

16) 배재홍,「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대구사학』103집, 대구사학회, 2011.

17)『日省錄』正祖 10年(1786) 6月 4日 〈… 今年搜討官當次。越松萬戶金昌胤牒呈內。四月十九日。候風于平海丘尾津。… 二十九日。解纜到苧田洞。四船之人。沐浴山祭後看審。… 搜探後同日申時。一行齊登壇上。謹祭海神。掛帆旋歸。…〉

통구미(桶丘尾)로 가서 산과 바다에 고사를 지낸 다음,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18]

[자료 9]『承政院日記』1767책, 정조 20年 9月 15日 기록

… 항해 중에 악풍이 불거나 고래 등을 만나면 龍食을 바다에 흩뿌리며 기도하였다. 곡물이 많이 소요되었다. …[19]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울릉도에서 山神을 위하면서 海神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용왕에게 獻食한 목적은 안전한 항해와 원활한 임무 수행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들 신령을 모셔서 제사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海神[龍王]을 위하는 의식을 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山神을 위한 제의도 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안전 항해를 위해 海神을 모신 사례

조선시대에 선박을 이용하여 세금이나 구휼미를 운반한 사례들이 많다. 제주도에 다녀오거나, 동해안을 오갈 때 무사히 항해(航海)할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해 출발 전에 海神을 위한 제사를 지냈음은 많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국가에서 매년 초에 향축(香祝)을 풍랑이 심한 道에 각각 보내서 감사로 하여금 해신(海神)에게 치제(致祭)하도록 하였으며, 평소에도 배가 출항하기 전, 그리고 관동·관북을 지날 때에는 그 도의 지경에 이르러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되 향축(香祝)은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등 안전 항해를 위해 해신을 위한 제의에 많은 정성을 드렸다.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0] 『朝鮮王朝實錄』英祖 18年 1月 20日

… 동·남·북 3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해신(海神)에게 치제(致祭)하였다. 임금이 북도의 곡물 수송이 복선(覆船)되기 쉬움을 염려하여, 예조에 명하여 특별히 3도에 향축(香祝)을 보내서 감사로 하여금 정성을 다해 몸소 기도하여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빌게 한 것이다. …[20]

[자료 11]『朝鮮王朝實錄』正祖 12年 12月 10日

… 함경도 관찰사 이숭호(李崇祜)와 위유 어사(慰諭御史) 정대용(鄭大容)이 장계하여 재해(災害)의 형편과 백성들의 실정을 진술하고 영남의 곡식을 옮겨주기를 청하니, … 배에 곡식을 싣고 갔다가 되돌아와서 정박할 때까지는 영남 백성들을 위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18)『朝鮮王朝實錄』正祖 18年(1794) 6月 3日 〈… 故搜討官越松萬戶韓昌國處, 發關分付矣。 該萬戶牒呈: "四月二十一日, 幸得順風, 糧饌雜物分, 載四隻船, 與倭學李福祥及上下員役、格軍八十名, 同日未時量, 到于大洋中, 則酉時, 北風猝起, 雲霧四塞, 驟雨霹靂, 一時齊發, 四船各自分散, 莫知所向。 萬戶收拾精神, 戎服禱海, 多散糧米, 以餽海神後, 使格軍輩, 擧火應之, 則二隻船擧火而應, 一隻船漠然無火矣 … 仍遍看竹巖、帿布巖、孔巖、錐山等諸處, 行到桶丘尾, 禱山祭海, 待風留住 …〉

19)『承政院日記』1767책, 正祖 20年 9月 15日. 〈… 山祭海祭船祭及遇惡風及鯨鰐也, 龍食之散, 祈禱之節, 穀物甚多入, …〉

20)『朝鮮王朝實錄』英祖 18年 1月 20日 〈… 命東南北三道道臣, 致祭海神。上慮北路運穀, 易致臭載, 命禮曹別送香祝於三道, 使道臣虔誠躬禱, 以祈利涉 …〉

기간이니, 영백(嶺伯)에게 거듭 신칙하여 기필코 무사히 항해(航海)할 수 있도록 하라. 배가 출발할 때와 관동·관북을 지날 때에는 그 도의 지경으로 접어드는 곳에서 각각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되, 향축(香祝)은 연전의 예에 따라 서울에서 내려 보내도록 하라." …21)

[자료 12] 『朝鮮王朝實錄』 純祖 13年 10月 14日

관북 도신 김이양이 환곡과 진제해 줄 것을 장청하다. … 비변사에서, 포항의 창곡은 원수(元數)가 넉넉잖으므로 포항과 제민(濟民) 두 창고의 곡식을 합하여 2만 3천 석을 나누어 보내지고 하면서, 이어 무신년의 예에 따라 운반을 독촉하고 배가 떠날 때 향축(香祝)을 보내어 해신(海神)에게 제사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22)

위의 기록들을 통해 조선시대에 동해에서 제사지낼 때 모신 신령은 海神이었으며, 허균이 작성한 「重修東海龍王碑文」이라 쓰여진 비문 제목과 내용, 울릉도 수토관들이 항해 중에 龍食을 바다에 흩뿌리며 기도하였다는 기록 등을 통해 海神을 용왕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정부 차원에서 구휼미나 세금을 운송할 때 향축을 내려 해신을 위한 제의를 지내게 한 사례 등으로 보아 동해에서 龍王으로도 인식된 海神을 모셔서 안전을 기원한 전통은 신라 이래 고려와 조선시대에 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23)

2. 모시는 神靈

신라 이래 고려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해신[용왕]을 위한 전통을 이어 받아서 동해안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의를 설행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해안지역에 소재한 마을에서 마을 전체 주민을 위하면서 바다에서의 안전 또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주로 모시는 신령은 山神이나 城隍이다. 마을 내에 하당인 해신당이 있거나, 바닷가나 기타 장소에서 마을제의 중 바다 관련 별도의 하위 제차를 진행하는 전통이 있어 종교적 감응을 좀 더 직접적으로 부여받기 위해 모시는 신령은 海靈 · 海神 · 龍王 · 해서낭 등이다.

해안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신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고성을 비롯하여 속초 · 양양, 경상북도 영덕 · 포항, 그리고 울산 등에 속한 해안지역 마을에서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21) 『朝鮮王朝實錄』 正祖 12年 12月 10日 〈… 咸鏡道觀察使李崇祜、慰諭御史鄭大容狀啓, 陳災形、民情, 請移轉嶺南穀, … 船運裝發, 至回泊間, 爲嶺民無非用慮之日, 申飭嶺伯, 期得利涉。 發船時, 關東北過涉時, 各於道內初境, 設祭海神。 香祝, 依年前例, 令自京下送" …〉

22) 『朝鮮王朝實錄』 純祖 13年 10月 14日 〈… 關北道臣金履陽, 狀請 … 備局以浦項倉穀元數不敷, 以浦項濟民兩倉穀合二萬三千石劃送, 仍請依戊申例督運, 發船時送香祝, 祭海神, 從之 …〉

23) 김도현, 「동해안지역의 민간신앙 전통과 이사부」, 『이사부와 동해』11호, 한국이사부학회, 2015. 12.

위한 마을제의에서 주로 모셔지는 신령은 성황 또는 할아버지서낭, 할머니서낭 등으로 불리우는 신령들이다. 이들 마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은 소지 형태로 표출되거나, 수 년에 한 번씩 열리는 별신굿[서낭굿 또는 풍어제]을 통해 그들의 종교적 염원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고, 이에 반응한 신앙의례가 행해진다.

위의 사례와 함께 어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신당이나 해령당이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 내 제당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의를 베풀더라도 상당신으로 산신이나 성황을 모신 사례들을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를 비롯하여 속초시 외옹치, 양양군 남애리, 울진군 오산리 등 많은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울릉도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는 해신당에 해신이나 용왕과 함께 상당신으로 山神이나 洞神을 모신다. 조선시대에 울릉도 수토에 나선 수토사들 또한 바다에서의 안전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산신에게 정성을 드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다와 닿아 있는 동해안지역 마을의 제장에서 주로 모시는 신령은 산신, 성황, 할아버지서낭, 할머니서낭으로 불리워지는 신령인 것으로 보아 내륙에 있는 마을에서 모시는 신령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 등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신령으로 모셔지는 海靈은 山靈에 대비되는 용어로써 바다가 지닌 신령함 그 자체에 의탁하여 종교적 염원을 이루려고 모신 신령이다. 강릉 안인진에서 어민들이 운영하는 바닷가 제당을 '해령사[해령당]', 울릉도 사동2리 해안에 위치한 옥천마을에 어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제당을 '해령사'라고 이르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海神은 바다를 관장하는 지위를 지닌 신령을 이르는 표현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많은 기록에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모신 신령을 海神이라 하였으며, 울릉도 내수전 해신당, 태하마을 해신당에서 모신 해신, 울진군 진복 1리, 죽변 3리, 덕천리, 기성리 등 동해안에 소재한 해안마을의 제당에서 해신을 모신 사례들은 매우 많다. 즉, 바다를 관장하는 지위를 부여 받은 신령인 해신에게 기대어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주로 모신다.

울릉도 지역 마을신앙을 조사 · 분석한 글을 보면 대부분 '海神'을 '龍王'과 동일하게 인식하면서 '海神'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의 동제는 토지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산신당 유형과 해양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해신당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신당'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의 영향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1900년 이후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에 많이 진출하였고, 이에 따라 울릉도에서의 어업 활동이 활발하여 자연스럽게 바다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모신 海神에 대한 의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일본의 영향으로만 한정 짓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다음 2가지 사례를 통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海神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13] 海神 관련 자료

① 北郊祈雨諸海神祭文[24)]
② 海行摠載[25)]
③ 祭海神文 南玉撰[26)]
④ 耽羅船粟時祭南海神文[27)] (『홍재전서』 23 제문 5)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신제사 유적과 부안 죽막동 유적 비교 검토[28)]

일본의 해신제사 유적은 바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해안이나 섬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 중에서도 돌출된 岬이나 砂丘, 丘陵, 山斜面에 위치하며, 섬의 경우에는 산정상이나 山斜面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적의 입지가 다양한 면을 띠고 있지만 모두 바다의 조망이 유리한 지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제사 유적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바다의 조망이 유리한 곳에 제장을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부안 죽막동유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양국의 해신제사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공동의 바다를 해상 교섭 수단이면서, 경제적으로 이용하였기에 부단하게 해상 교류를 진행시켜왔고, 한편으로는 동일한 어로

24) 북교단(北郊壇)에서 여러 해신(海神)에게 고하는 기우제문
25) 해사일기 제문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일본 통신사들의 일기와 포로 및 표류 등으로 일본을 왕래한 사람들의 기행록을 모은 총서.4책. 활자양장본. 1914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간행한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 속속편(續續篇) 제3~6집에 실려 있다. 서문과 발문 없이 20여 편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수록된 내용을 보면, 제1책에 정몽주(鄭夢周)의 <봉사시작 奉使時作>,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 海東諸國記>, 김성일(金誠一)의 <해사록 海{錄>, 강항(姜沆)의 <간양록 看羊錄>, 제2책에는 경섬(慶暹)의 <해사록>, 오윤겸(吳允謙)의 <동사상일록 東上日錄>, 이경직(李景稷)의 <부상록 扶桑錄>, 임광(任絖)의 <병자일본일기 丙子日本日記>, 이선달(李先達)의 <표주록 漂舟錄>, 김세렴(金世濂)의 <해사록>(상), 제3책에는 김세렴의 <해사록>(하), 황호(黃昊)의 <동사록 東槎錄>, 신유(申濡)의 <해상록 海上錄>, 작자 미상의 <계미년동사일기 癸未年東日記>, 남용익(南龍翼)의 <부상록>, 제4책에는 홍역사(洪譯士)의 <동사록>, 김지남(金指南)의 <동사일록>, 조엄(趙曮)의 <해사일기 海槎日記> 등이 실려 있다. 대부분 일기형식의 산문과 시로 되어 있다. 정몽주의 <봉사시작>은 일본 사행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며, 1377년(우왕 3) 9월에 출발하여 이듬해 7월에 돌아오면서 쓴 시이다. 일본의 실정을 알려주는 내용의 시 12수이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김성일의 <해사록>, 이경직의 <부상록>, 김세렴의 <해사록>, 황호의 <동사록>, 김지남의 <동사일록> 등은 대부분 사행일기이며, 일본의 문물제도, 일본인과의 대화, 견문, 사행길의 감회 등을 기록했다. 강항의 <간양록>은 임진왜란 후 일본에서 4년 동안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쓴 기행문이며, 이선달(李先達)의 <표주록 漂舟錄>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까지 표류하다가 일본 관원들에게 구조되어 귀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인들이 일본을 보는 시각 및 일본인들이 조선을 보는 시각, 일본의 문물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된다. 1974년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해 국역되었다. 한편 작자·연대 미상의 <해행총재>(28책)가 전하는데, 수록된 저술이 조선고서간행회 편의 이 책과 큰 차이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6) 해신(海神)에게 제사한 글 [남옥(南玉) 지음]
27) 탐라(耽羅)로 보낼 곡식을 배에 실을 때 남해신(南海神)에게 제사한 글
28) 유병하, 「부안 죽막동유적의 海神과 제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문화나 해양 신앙을 배경으로 유사한 神 관념이 발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울릉도 海神과 海神堂을 이해함에 있어 1900년 이후 일본인의 진출로만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로 보아야 하며, 일본인들이 神社를 만들어 여기서 '海神'만을 위하였다는 경직된 생각 또한 변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공동체 신앙의 전통을 보면 우리가 山神을 상당신으로 모시듯이 그들 또한 우리와는 다른 상당신을 모신 후 해신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9]

용왕은 신라 이래 고려·조선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마을에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모셔지는 신령이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마을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 중 주신인 성황신을 협시하는 형태로 모셔진 용왕, 울진 죽변·영덕 구계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해안 마을 제의 중 하당제인 용왕제에서 모셔진 용왕이 이에 해당한다. 해신을 용왕으로 여긴 사례들도 많기에 바다에서의 용왕제에서 모신 용왕이 지닌 종교적 기능은 위에서 소개한 해신과 유사한 종교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해안지역 마을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신령 이외에도 수부나 성주를 모신 사례들도 있는데, 이는 해안지역 마을을 특정하는 신령은 아니다.

Ⅲ. 동해신묘 관련 기록 검토

1. 각종 기록을 통해 본 동해신묘

동해안 지역에 설치된 국가 차원의 제장은 신라에서 동해와 북해에 제사지낸 제장을 경상도와 삼척 비례산에 설치하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양양에 東海神祠를 설치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두만강 하구에도 제장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제장들은 각 시기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한반도 전체를 관장하는 국가로 발전한 고려시대 이후에 동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신앙 처소를 동해를 대표하는 진정한 중심 제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고려시대에 양양에 설치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東海神祠가 지닌 위상과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려사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각종 지리지 등에 소개된 東海神祠[東海神廟]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9) 이와 관련하여 일본 내 공동체 신앙 또는 개인 신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울릉도 마을신앙의 성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각종 기록에 소개된 東海神祠[東海神廟] 관련 기록[30]

관련 문헌	제당 명칭	수록 내용	비 고
고려사 〉 地理 三 〉 동계 〉 익령현	東海神祠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有東海神祠]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3일(1437년)		・나라에서 행하는 양양부의 동해는 중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쓰며 ・동해·남해의 묘에 각각 본현의 현령으로 묘령(廟令)을 겸하게 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1452년)	東海神祠堂	東海神祠堂은 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지낸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1456년)		동해·남해·서해의 신사(神祠)는 모두 개성(開城)을 기준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또한 방위(方位)가 어긋납니다. … 동해신(東海神)을 강릉(江陵)에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1월 15일(1464년)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원구단에 제사하다. … 동해위(東海位)·남해위(南海位)·서해위(西海位)·북해위(北海位)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을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제44권 / 강원도(江原道)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東海神祠	동해신사(東海神祠) : 부 동쪽에 있다. 봄가을 나라에서 향축을 보내 치제한다.	서해신사(풍천도호부), 남해신사(나주목), 압록강사(의주목), 두만강 신사(경원도호부)
고통정대부수황해도관찰사배공신도비명(양양부사를 역임[1581~1583]한 배삼익 신도비		매년 동해신에게 제사하는데, 서울로부터 축문과 칙령이 냐려오면 공계서는 경건히 제사지내는 일을 맡아하였다.	동해신을 모신 제사를 양양부사가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기언』 제35권 원집 외편(1667년)	東海神祠	양양에는 海上에 東海神祠가 있다.	
懶隱集 卷之二 / 詩 東海神廟 在襄陽時。爲神廟祀官。	東海神廟 (東海神祠)	東海神祠壓海門。三山只隔一重雲。長風吹上扶桑日。燭破滄溟萬里昏	
俛宇集 卷之四 / 詩○東遊錄 謁東海神廟	東海神廟	大東宅巨浸。泱漭一元儲。雲濶扶桑域。星漂析木墟。牲醴通肅穆。蠢的愧狂踈。年年風雨晏。環海賴安居	
현산지	동해묘	… 경종2년(1722) 임인에 부사 채팽윤이 중창하였고, 동해묘와 백천문 등의 편액도 채팽윤의 글씨이다. …	1722년 중창 기록
현산지		… 영조 28년(1752) 임신에 부사 이성억이 또 새로 지었다. …	1752년 중창 기록

30) 위 표에서 소개한 문헌은 필자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각종 지리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문집 등에 소개된 기록은 아래 글을 참고하였다.
이규대, 「양양 동해신묘의 자료 및 연구성과의 검토」, 『양양 동해신묘』, 강릉대 박물관, 1999.
양언석, 「동해신사(東海神祠) 고찰 -명칭을 중심으로-」, 『아시아강원민속학』 제33집, 2020.

관련 문헌	제당 명칭	수록 내용	비 고
양양부읍지 (규17514) (1759년)	東海廟	부 동쪽 10리 해상(海上)에 있다. 정전(正殿) 6칸, 신문(神門) 3칸, 전사청(奠祀廳) 2칸, 동서재(東西齋) 각 2칸, 백천문(百川門) 1칸으로 매년 초에 별제(別祭)와 2월[仲春]·8월[仲秋]에 상제(常祭)를 지낸다. 향(香)과 축(祝)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	『여지도서』·『관동지』에 실린 내용과 같음
여지도서 (1757~1765년)	東海廟	부 동쪽 10리 해상(海上)에 있다. 정전(正殿) 6칸, 신문(神門) 3칸, 전사청(奠祀廳) 2칸, 동서재(東西齋) 각 2칸, 백천문(百川門) 1칸으로 매년 초에 별제(別祭)와 2월[仲春]·8월[仲秋]에 상제(常祭)를 지낸다. 향(香)과 축(祝)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	·서해신사·남해신사·압록강사·두만강신사에는 지방 관아에서의 거리와 봄·가을에 향축을 내려 제사한 내용만 기록 ·『관동지』·『양양부읍지』에 실린 내용과 같음
東營狀啓謄錄 (건륭 23년[1758년] 10월 30일)	東海廟	達爲行祭事節到付禮曹關內乙用良正月十一日行東海廟 襄陽 雉嶽山 原州 同月十七日行 義館嶺 德津溟所 淮陽 竝只 獻官 差定 依禮文設行之意發關知委爲白如有乎東海廟祭 獻官 襄陽府使 金永燮	·1758(영조 34) 10월부터 1759년(영조 35) 2월까지 江原監營의 管內行政關係啓達文書인 狀啓를모아 江原監營에서 작성하고 기록한 책 ·東海廟祭 獻官 襄陽府使
日省錄 (정조 7년[1783년] 11월 08일)	東海廟	東海廟則令地方官說祭。而祭文以前下通用	
『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정조 24년(1800년)	東海神廟	·어사 권준의 상주와 강원도관찰사 남공철의 주장으로 재차 중수 ·암행 어사 권준(權晙)이 장계하기를 … 양양(襄陽) 낙산진(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 복을 빌어 영락없는 음사(淫祠)로 변했으며, 게다가 전 홍천 현감(洪川縣監) 최창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닭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 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짓는 연기가 바로 곁에서 피어 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져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잡히는 고기도 매우 양이 적은데, 해변 사람들이 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중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소서."	

관련 문헌	제당 명칭	수록 내용	비 고
『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정조 24년(1800년)	東海神廟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장청대로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 보고하면 권준을 헌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빌게 하겠다. …	
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남공철(南公轍) 찬(撰)/ 1800년	東海神廟	후세에 또 동해(東海)에 왕의 작호를 더하여 광덕왕(廣德王)이라고 하였고 서해(西海)를 광윤왕(廣潤王), 남해(南海)를 광리왕(廣利王), 북해(北海)를 광택왕(廣澤王)이라고 하여 제후(諸侯)의 예로 지역안의 악독(嶽瀆)에 제사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동해신묘(東海神廟)가 양양부(襄陽府)의 다스리는 동쪽 10리에 있는데 성상(聖上) 정종(正宗) 24년 어사(御史) 권준(權畯)이 언신(言臣)으로 군현(郡縣)을 갔다가 동해신묘제사(東海神廟齊舍)의 담장이 허물어져 마땅히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민가(民家) 여덟 집이 묘(廟) 근처에 살아 모두 철거하여 닭이나 개소리가 서로 들리지 않게 하여 악독(嶽瀆)의 제사에 엄숙하게 하니 사방의 홍수와 가뭄, 질병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렇지만 매우 숭상하고 높이는 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식을 지어 금지하게 하는 날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신(臣) 공철(公轍)이 마침 관동(關東)에 순찰사(巡察使)로 삼가 예부(禮部)가 되어 거행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급히 향축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을 받들고 일을 거행하는 일에 대하여 듣고 향축(香祝)이 서울에서 와 준(畯)이 차헌관(差獻官)으로 제사를 지냈다. 아! 질병으로 아픈 사람은 반드시 호소하는 것은 사람의 정(情)으로 백성들 중 해신(海神)을 부모처럼 여기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비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제사에는 항상하는 제사가 있으니 저 어리석은 남녀들이 금백(金帛)을 가지고 온자들이 장차 신에게 아첨을 구하는 것은 복을 맞이하려는 예가 점점 불어나면 불어 날수록 넘쳐나 한층 더 고집함이 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바로 신을 지극히 높이고 바른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것이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이다. 마침내 이 일을 기록하고 돌비석에 새겨 그 느낀 것을 푸니 묘우(廟宇)가 때에 따라 보수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유사(有司)를 두었다.	동해(東海)에 왕의 작호를 더하여 광덕왕(廣德王)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음
관동지 (1826~1830년)	東海廟	부 동쪽 10리 해상(海上)에 있다. 정전(正殿) 6칸, 신문(神門) 3칸, 전사청(奠祀廳) 2칸, 동서재(東西齋) 각 2칸, 백천문(百川門) 1칸으로 매년 초에 별제(別祭)와 2월[仲春]·8월[仲秋]에 상제(常祭)를 지낸다. 향(香)과 축(祝)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	『여지도서』·『양양부읍지』에 실린 내용과 같음
대동지지/ 단유(1862~1866년)	東海神檀	동해신단(東海神檀) : 동쪽으로 13리에 있는데, 고려 때는 동해(東海)이므로 중사(中祀)에 실려 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관련 문헌	제당 명칭	수록 내용	비 고
國恤謄錄 (高宗 年間: 1863–1907)	東海廟	關內乙用良襄陽東海廟淮陽義館嶺 德津溟所原州雉嶽山	1805~1878년 사이에 5차례의 國葬과 관련해서 중앙관청과 강원도 監營 및 各邑驛鎭 사이에 오간 關, 移關, 甘結 등의 공문서를 모아 편찬한 책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3월 19일 (1903년)		다섯 방위의 큰 산, 진산, 바다, 큰 강을 봉하다. … 제사 지낼 곳을 정함으로써 짐(朕)이 예(禮)로 신을 섬기려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오악·오진·사해·사독으로 봉해야 할 산천(山川)을 참작해서 마련하여 … 사해(四海)는 동해(東海) 【강원도(江原道) 양양군(襄陽郡)】 …	
순종 2년(1908년)	동해신묘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철(毁撤)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철[毁撤 : 헐어서 치워버림]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전한다.	
『강원도지』1940년 / 단사(壇祠)	東海神祠	동해신사(東海神祠) : 군의 동쪽에 있다. 봄과 가을에 향을 내려주어 제사 올리는 것을 축하했다. ○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1993년 ~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 1동이 건립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났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	
2000년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위에서 정리한 표를 통해 東海神祠[東海神廟]를 언급한 최초 기록은 『고려사』 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제당 명칭은 東海神祠였고, 현재 양양인 익령현에 설치하였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양양지역 읍지인 『현산지』 등 각종 지리지, 각종 문집 등에 東海神祠[東海神廟] 관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양양부 동쪽에 설치한 東海神祠[東海神廟]는 정전(正殿) 6칸, 신문(神門) 3칸, 전사청(奠祀廳) 2칸, 동서재(東西齋) 각 2칸, 백천문(百川門) 1칸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초에 별제(別祭)와 2월[仲春]·8월[仲秋]에 상제(常祭)를 지냈는데, 이때 올린 향(香)과 축(祝)을 중앙 정부에서 내려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사 주관을 양양부사가 관장하였음 또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東海神祠[東海神廟]에서 국가 차원의 제사와 함께 민간에서도 개인적으로 그 주변에 와서 바다에서의 안녕과 풍어 등을 기원하는 신앙 행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정조대에 중수하는 등 국가 제장으로서의 격을 갖춘 형태로 유지되었던 東海神祠[東海神廟]는 고종대에 동해를 관장하는 제장을 양양에 설치한다는 기록을 통해 조선후기까지 지속

적으로 잘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철(毁撤)하였기에 국가 제장으로서의 동해신묘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1993년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정전 1동이 건립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났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 2000년에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비를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하였기에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제당 명칭을 '東海神廟[31]'라 부르며, 건물 정면에는 '東海廟'라 쓴 현판을 걸었다. 그런데, 위의 표를 보면 제당의 명칭을 東海神祠, 東海神廟, 東海神祠堂, 東海廟, 東海神檀 등 다양하게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명칭에 따라 東海神廟가 지닌 의미가 부분적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큰 틀에서 동해신을 모신 제의 공간이라는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제의 공간이 지닌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운 것으로 보인다.

동해신묘에 관한 여러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허균의 글에 전하는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력 갑신년 7월 양양부 동산리에 사는 어부 지익복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바람이 그 배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 이렇게 일주야를 달려 동쪽으로 한 섬에 닿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인도하여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왕궁에 나아가니 궁 뜰에는 창을 든 병사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왕이라는 자가 보라색 옷을 입고 궁전에 앉아서 말하기를 내가 강릉에서 제사를 받아먹은 지 수천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부 사람에게 쫓기어 이곳으로 옮겨와 보니 좋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상제께 호소한 끝에 이제 비로소 허락을 받았으니 너의 힘을 빌려 관원에게 뜻을 전하고 옛 땅 내 집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는 목민관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몰아치게 할 것이니 백성들이 나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는 바람을 몰아 돌려보내 주었는데 하루가 못 되어 동해로 돌아왔다. 어부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으나 감히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향임(鄕任) 이석림에게 말하여 관아에 보고하게 하였다.

이 설화 외에도 동해신묘에서 관우를 제향하였다는 설화도 양양군에서 전해온다.

2. 고지도를 통해 본 동해신묘

해동지도를 비롯하여 각종 고지도에서 東海神廟를 확인할 수 있다.
[표] 각종 고지도에 표기된 東海神廟

31) 東海神祠, 東海神廟, 東海神祠堂, 東海廟, 東海神檀 등 다양하게 불리우는 제당 명칭을 필자가 이 글에서 東海神廟라 한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東海神廟이기에 이를 따랐다.

관련 고지도	제당 명칭	수록 내용	비 고
해동지도(1750년대)	東海廟	· 東海廟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여지도서(1757~1765년)	東海廟	· 東海廟 표기 · 정전을 비롯하여 각종 건물 표기	
광여도(1737-1776)	東海廟	· 東海廟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양양도호부
청구도 (純祖34年[1834])	東海神壇	· 東海神壇 표기 · 위치 표기하였는데, 현재 위치와 다름[誤記로 여겨짐]	
양양부지도(1872년)	東海廟	· 東海廟 표기 · 정전을 비롯하여 각종 건물 표기	
청구요람 (1863-1907)	東海神坮	· 東海神坮 표기 · 위치 표기하였는데, 현재 위치와 다름[誤記로 여겨짐]	

위에서 소개한 고지도를 통해 東海神廟의 위치와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위치는 양양도호부 동쪽 바닷가에 위치하며, 낙산사 아래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복원된 東海神廟 또한 이 위치에 있다.

그리고 고지도에는 제당의 명칭을 '東海廟' 또는 '東海神廟', '東海神坮'라 하여 동해신을 모신 제의 공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지도서』를 비롯하여 각종 기록에는 정전(正殿) 6칸, 신문(神門) 3칸, 전사청(奠祀廳) 2칸, 동서재(東西齋) 각 2칸, 백천문(百川門) 1칸으로 구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지도 중 여지도서에 수록된 고지도와 1872년에 제작된 양양도호부 지도에는 전체적인 양상을 보여즈고 있지 않으나, 기록에 소개된 건물 배치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東海神廟의 위치와 건물 배치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에도 이와 같은 형태가 잘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소개한 고지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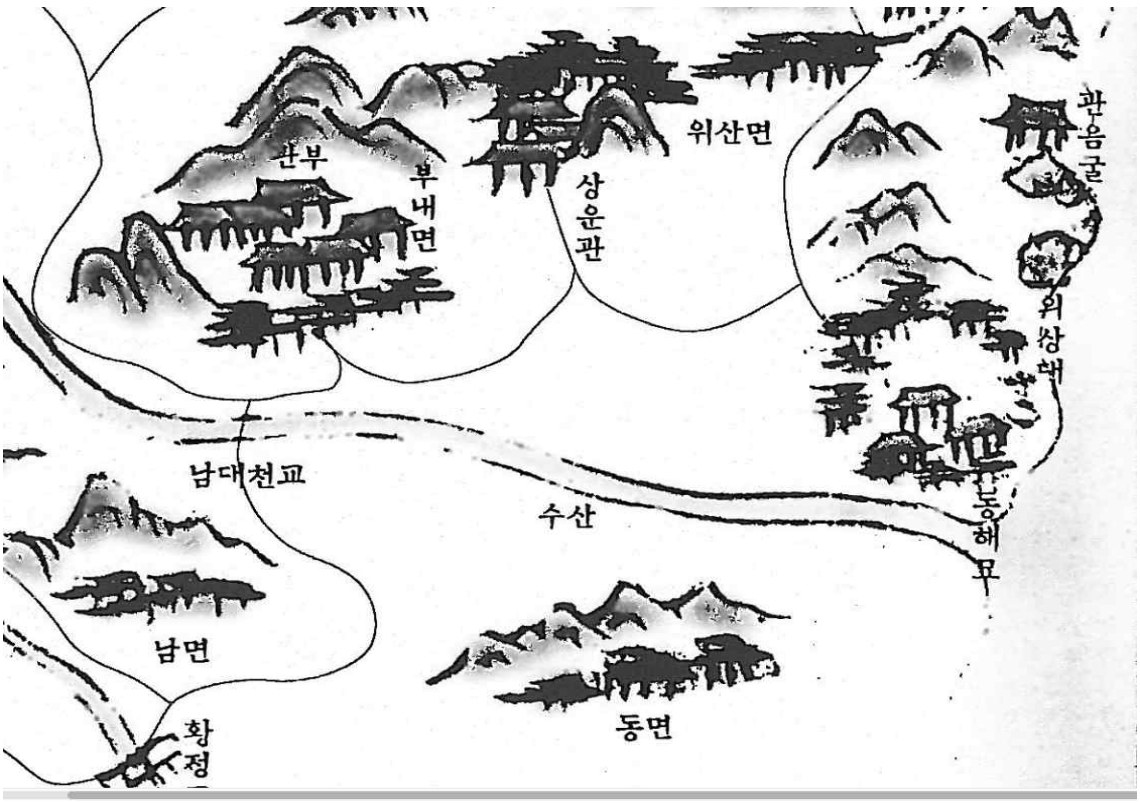


그림 1. 여지도서 양양도호부 지도에서 동해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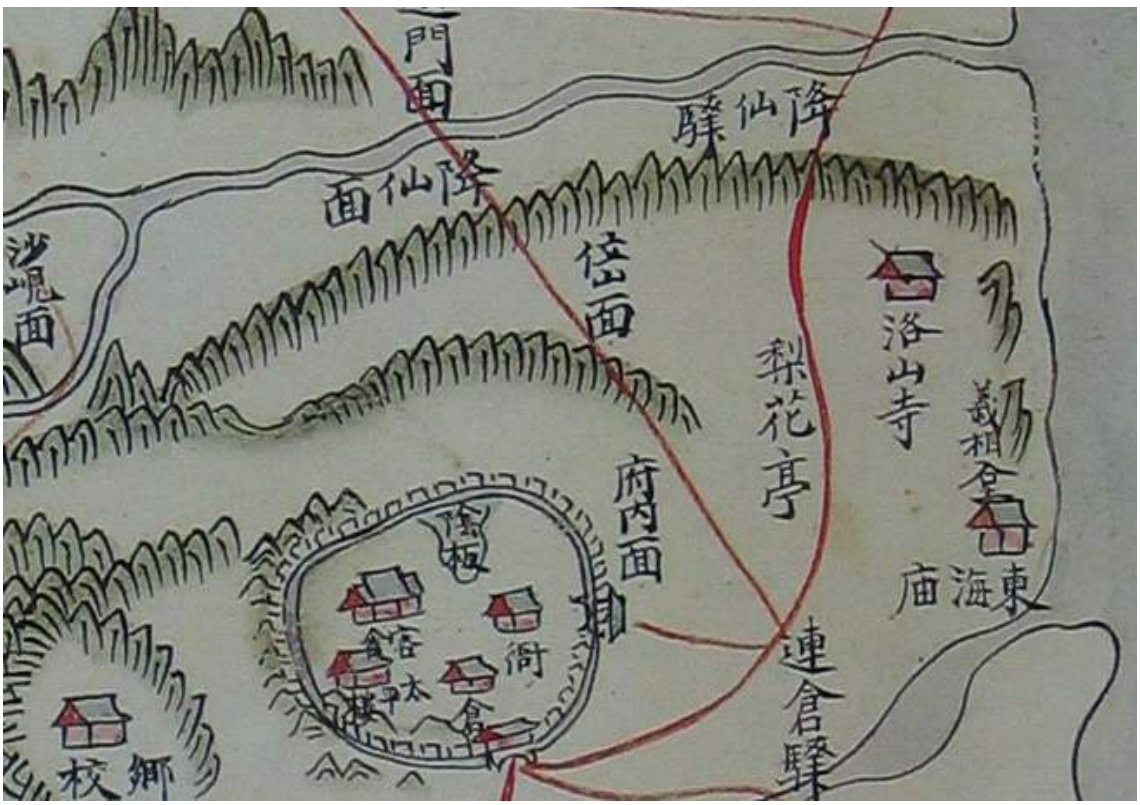


그림 2. 해동지도 양양도호부애서 동해묘

그림 3. 광여도 양양도호부에 표기된 동해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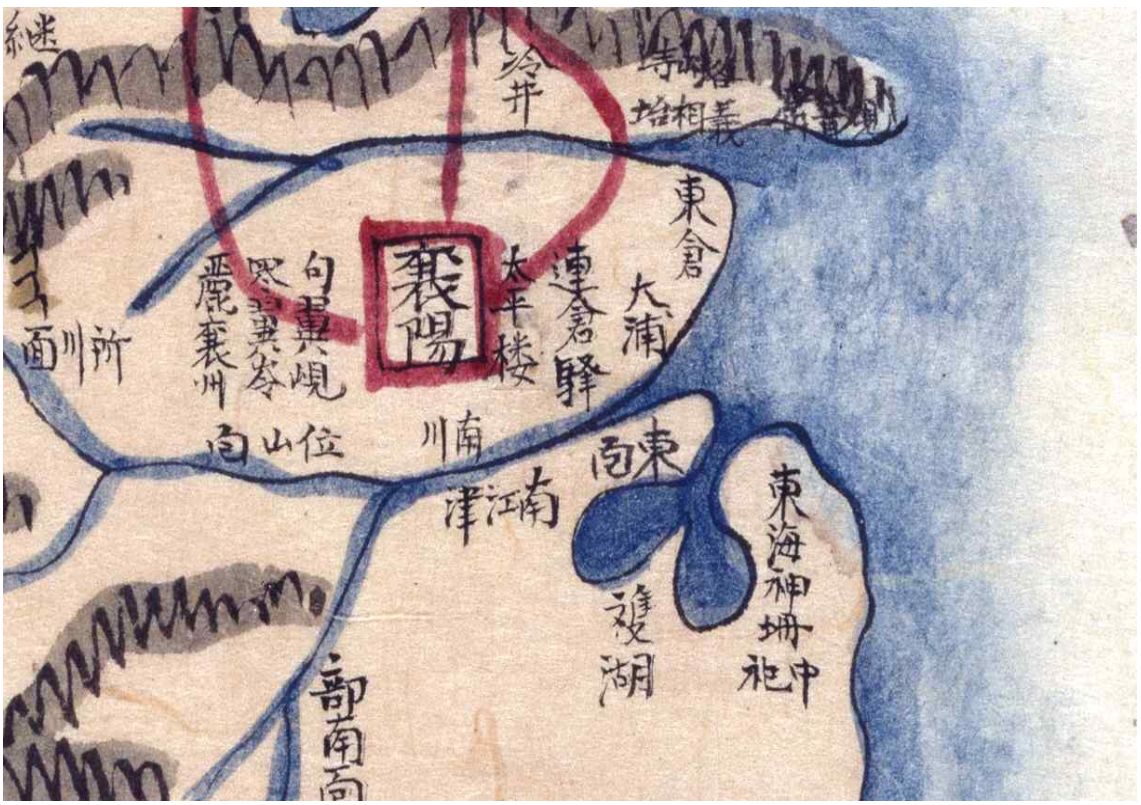


그림 4. 청구도 양양도호부에 표기된 동해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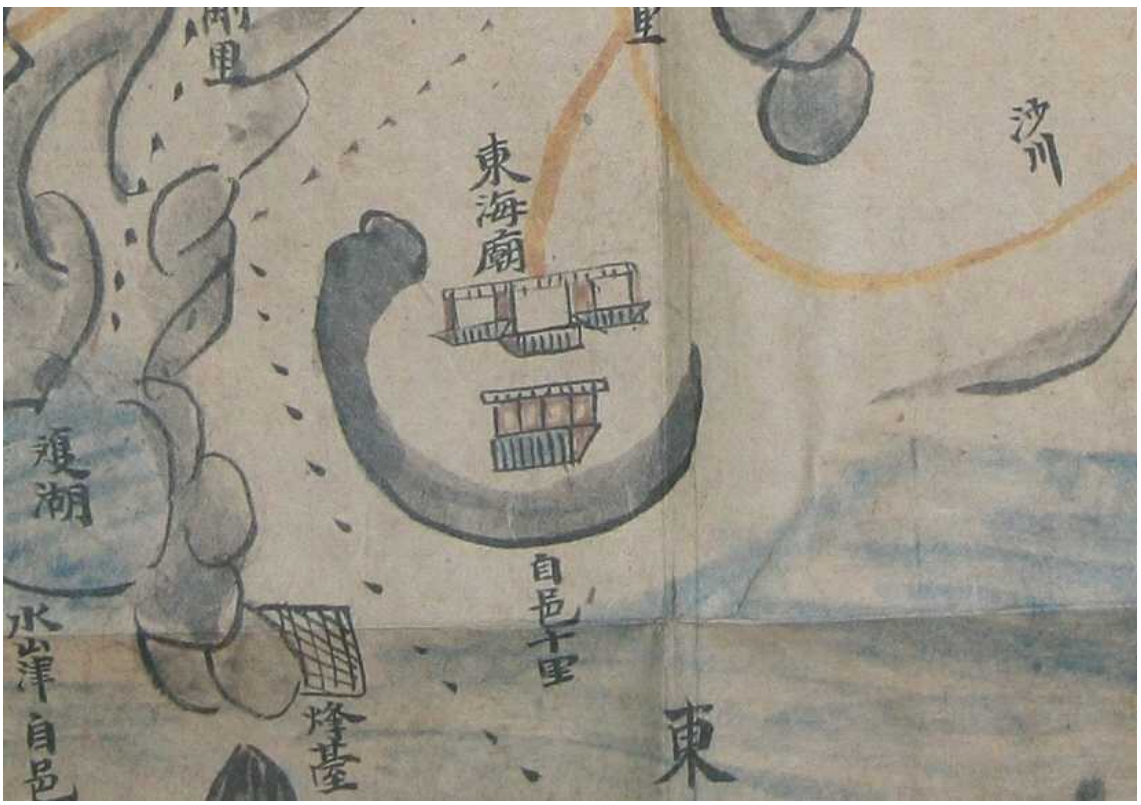


그림 5. 1872년 양양도호부 지도에 표기된 동해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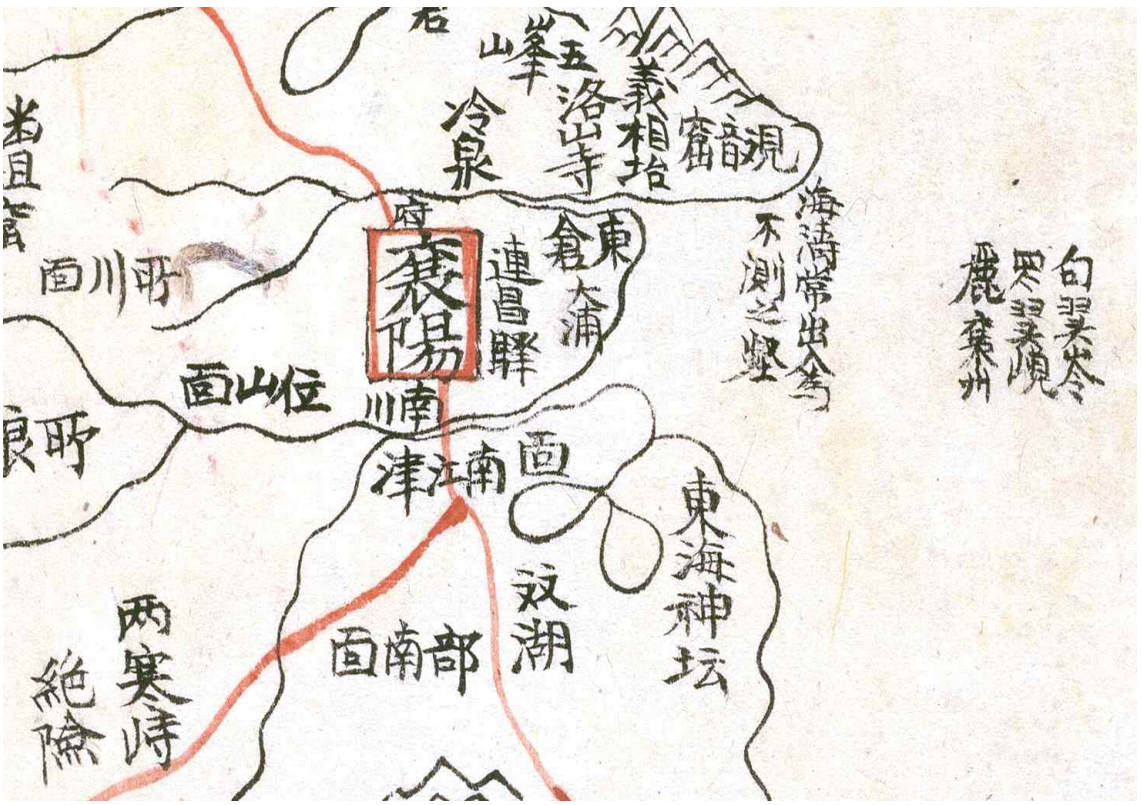


그림 6. 청구요람 양양도호부 지도에 표기된 동해신대

동해신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도에 표기된 남해와 서해에 각각 설치되었던 南海堂과 西海神壇[西海神廟]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각종 고지도에 표기된 南海堂

관련 고지도	제당 명칭	수록 내용	비 고
호남지도(1769년 이전)	南海堂	· 南海堂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나주
지승(1776년 이후)	南海堂	· 南海堂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여지도	南海堂	· 南海堂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나주목
나주지도(1872년)	南海堂	· 南海堂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영암군지도(1872년)	(나주)南海堂	· 나주에 속한 南海堂임을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표] 각종 고지도에 표기된 西海壇

관련 고지도	제당 명칭	수록 내용	비 고
해동지도(1750년대)	西海神壇	· 西海神壇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풍천
광여도(1737–1776)	西海神廟	· 西海神廟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풍천부
조선지도(1767~1776년)	西海神壇	· 西海神壇 표기 · 위치 표기	풍천
비변사인방안지도	西海壇	· 西海壇 표기 · 위치 표기	풍천
청구도(1834년)	西海神壇	· 西海神壇 표기 · 위치 표기	풍천
풍천부지도(1872년)	西海壇	· 西海壇 표기 · 대표 건물 1채 표기	
청구요람(1863–1907)	西海神壇	· 西海神壇 표기 · 위치 표기	풍천

위에서 소개한 고지도를 통해 南海堂과 西海神壇[西海神廟]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남해당은 나주목(후에 영암군에 속함)에 속하여 남해에서 내륙으로 진입하는 뱃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당의 명칭을 '南海堂'이라 하여 남해신을 모신 제의 공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西海神壇[西海神廟]은 풍천부에 속하여 서해에서 내륙으로 진입하는 업청강 뱃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당의 명칭을 '西海神壇' 또는 '西海神廟', '西海壇'이라 하여 서해신을 모신 제의 공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동해와 남해, 서해에 국가제사를 지낸 제당을 설치하였으나, 그 명칭은 다르다. 이와 같이 다르게 부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수도를 기준으로 동쪽을 비롯하여 남쪽과 서쪽에 있는 주요 항구 중 내륙과 연결될 수 있는 항구가 있는 장소 인근에 각각의 바다를 관장하는 海神을 대상으로 제사지내는 제당을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南海堂과 西海神壇[西海神廟]이 표기된 대표적인 고지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호남지도 나주목에 표기된 남해당

그림 8. 나주지도(1872년)에 표기된 남해당

그림 9. 해동지도 풍천부에 표기된 서해신단

그림 10. 광여도 풍천부에 표기된 서해신묘

그림 11. 1872년 풍천부지도에 표기된 서해단

Ⅳ. 동해신묘제의 전승 양상

1. 동해신묘

1908년 훼철되었던 동해신묘는 1993년에 복원되었다. 편액을 '東海廟'라 걸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지붕은 겹처마에 맞배지붕 형태이다. 내부에는 일자형의 제단을 설치한 후 '東海廣德龍王神位'라 쓴 나무 위패를 모셨고, 제당 정면에는 해와 달, 청룡과 황룡, 그리고 東海神을 상징하는 인물을 그린 당신도를 걸어서 모셨다.[32]

동해신묘 앞에는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와 '重修東海龍王廟碑'를 세웠다.

동해묘에 모신 신령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東海廣德龍王神'이다. 東海神에 왕의 작호를 더하여 '東海廣德龍王'으로 적어 모신 배경은 조선후기 학자 閔魯行이 여러 문헌 중에서 명물·도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편찬한 類書인 『名數愚聞』(圭 7569)에 실린 내용 중 '동해(東海)에 왕의 작호를 더하여 광덕왕(廣德王)이라고 하였고 서해(西海)를 광윤왕(廣潤

32) 당신도에 해와 달을 그려 장식한 것은 하늘을 상징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신을 상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 형태의 신령 좌우에 청룡과 황룡을 배치한 것은 해신을 보좌하는 성격을 지닌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王), 남해(南海)를 광리왕(廣利王), 북해(北海)를 광택왕(廣澤王)'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모셨다고 여겨진다.[33]

그림 12. 양양 동해신묘 전경

그림 13. 동해신묘 정면에 걸린 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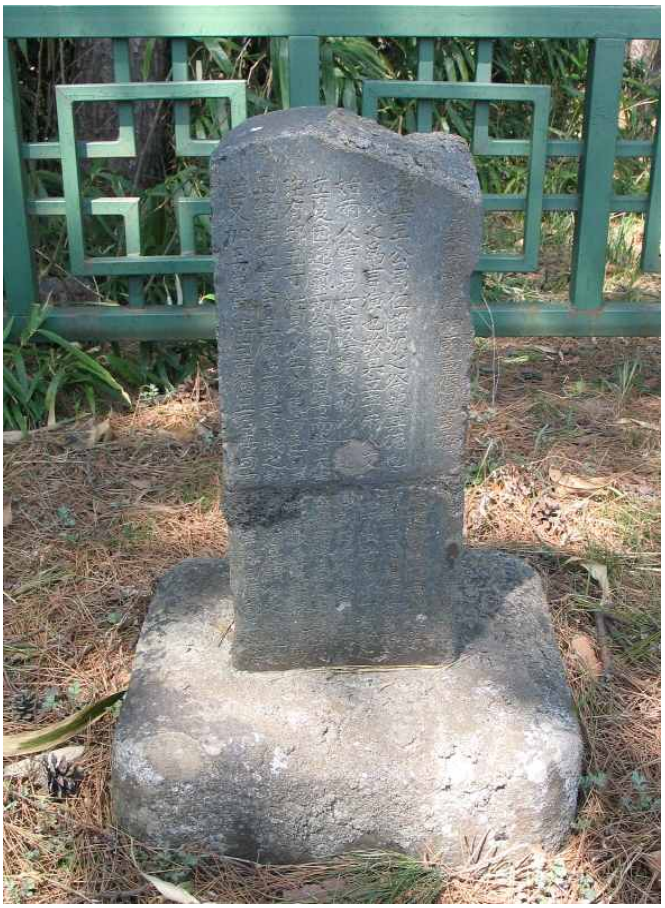


그림 14. 양양 동해신묘 앞에 세워진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 비

그림 15. 重修東海龍王廟碑

33)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던 南公轍이 撰한 '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에 '東海廣德王' 관련 내용이 적혀있는데, 남공철은 閔魯行이 편찬한 『名數咫聞』(圭 7569)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여 비문을 작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6. 동해신묘 내 정면에 모신 동해용왕 당신도와 東海廣德龍王之神 위패

그림 17. 동해신묘 내 제단에 모신 東海廣德龍王之神 위패

2. 동해신묘제

매년 정월 초하루 해맞이 행사를 하는 중에 東海神을 모시는 `동해신묘제'를 양양군수가 주관하여 지낸다. 이와 함께 여름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시기에 맞춰 '여름해변 운영 용왕제'를 동해신묘 앞 조산리 해변에서 지내는 것으로 동해신묘에서 동해신에게 제사 지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양양에 설치되었던 국가 제장인 東海神祠에서 모셨던 主神은 제당 명칭에 나타나듯이 '東海神'이다. 동해에 좌정한 해신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龍을 海神으로 비정할 수도 있다. 이에 '東海廣德龍王神'을 모셔서 東海神廟祭를 지낼 수 있으나, 고려와 조선시대의 동해신묘 관련 각종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령 명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東海神廟祭 홀기를 보면 제의 명칭을 '東海廣德龍王神 祭禮'라 적었다. 이에 공식 명칭이 '東海廣德龍王神 祭禮'이며, 이를 줄여서 '東海神廟祭'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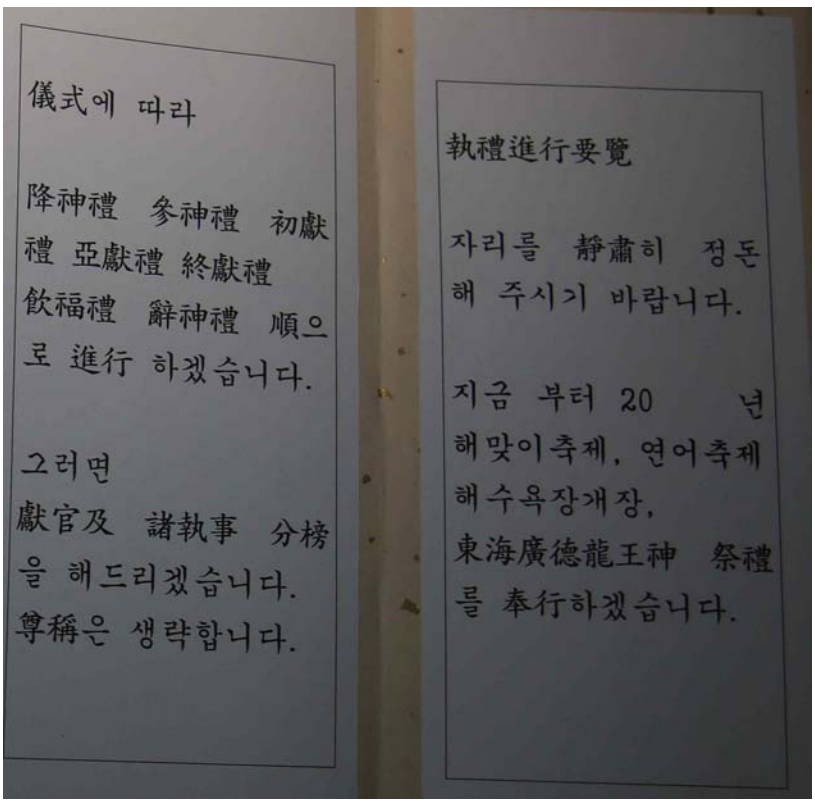


그림 18. 홀기 중 제례 명칭

2019년 '東海廣德龍王神 祭禮'를 주관한 제관과 집례자 명단을 적은 분방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東海神廟祭 獻官及諸執事分榜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五十二年 歲次 己亥
陽 一月 一日 戊戌
東海神廟祭 獻官及諸執事分榜

初獻官 襄陽郡守 金振夏
亞獻官 襄陽郡議會議長 高濟喆
終獻官 襄陽文化院長 尹汝俊
執禮 襄陽鄕校 掌議 崔燉均
大祝 襄陽鄕校 掌議 李興洙
謁者 襄陽鄕校 掌議 盧利俊
贊引 襄陽鄕校 掌議 崔善俊

奉香　　襄陽鄕校　掌議　　金相基
烽爐　　襄陽鄕校　掌議　　李常均
奉爵　　襄陽鄕校　掌議　　韓德福
奠爵　　襄陽鄕校　掌議　　金準植
典祀官　襄陽鄕校　掌議　　鄭相敎

그림 19. 東海神廟祭 獻官及諸執事分榜(2019년)

'東海廣德龍王神 祭禮'는 홀기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獻官及 諸執事 以下 俱就位, 降神禮, 參神禮, 初獻禮, 亞獻禮, 終獻禮, 飮福禮, 辭神禮, 望燎禮 순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獻官及 諸執事 以下 俱就位
◎ 謁者引 初獻官詣　◎ 點視　◎ 引降服位　◎ 撰引引 祝及 諸執事 詣 盥洗位
◎ 盥手 帨手　◎ 入就 階間拜位　◎ 四拜　◎ 鞠躬　◎ 拜興 ②③④　◎ 平身 各就位
◎ 設 香爐香盒　◎ 謁者引 獻官 俱就拜位　◎ 謁者陣 初獻官 之左 白有司 謹具請 行事

◇ 行 降神禮
◎ 謁者引 初獻官 詣 盥洗位　◎ 搢笏　◎ 盥手 悅手　◎ 執笏　◎ 引詣神位前　◎ 跪
◎ 搢笏　◎ 三上香　◎ 執笏　◎ 俯伏　◎ 興 平身　◎ 引降復位　◇ 行 參神禮
◎ 獻官以下階 四拜　◎ 參禮員 一同은 默禮입니다.　◎ 鞠躬　◎ 拜興 ②③④　◎ 平身

◇ 行 初獻禮

◎ 謁者引 初獻官詣神位前 跪 ◎ 搢笏 ◎ 酌酒 ◎ 執爵 獻爵 ◎ 執笏 ◎ 俯伏
◎ 興 小退 跪 ◎ 諸位者皆 參禮員一同 俯伏 ◎ 祝進 獻官之左東向 跪 ◎ 讀祝
◎ 俯伏 ◎ 興 平身 ◎ 引降復位

◇ 行 亞獻禮

◎ 贊引引 亞獻官詣 盥洗位 ◎ 搢笏 ◎ 盥手 帨手 ◎ 執笏 ◎ 引詣 神位前 跪
◎ 搢笏 ◎ 酌酒 執爵 ◎ 獻爵 ◎ 執笏 ◎ 俯伏 ◎ 興平身 ◎ 引降復位

◇ 行 終獻禮

◎ 贊引引 終獻官詣 盥洗位 ◎ 搢笏 ◎ 盥手 帨手 ◎ 執笏 ◎ 引詣 神位前 跪
◎ 搢笏 ◎ 酌酒 執爵 ◎ 獻爵 ◎ 執笏 ◎ 俯伏 ◎ 興 平身 ◎ 引降復位

◇ 行 飮福禮

◎ 謁者引 初獻官詣 飮福位 西向跪 ◎ 搢笏 ◎ 祝以爵授獻官 ◎ 獻官受爵
◎ 飮啐爵 ◎ 以爵授 祝 復於坫上 ◎ 祝以胙授胙授 ◎ 獻官受胙
◎ 以胙授 祝 置東門內 ◎ 獻官 興 ◎ 引降復位

◇ 行 辭神禮

◎ 獻官以下 皆 四拜 ◎ 參禮員一同 默禮 ◎ 鞠躬 ◎ 拜興 ②③④ ◎ 平身

◇ 行 望燎禮

◎ 謁者引 初獻官詣 焚祝位 北向立 ◎ 祝以 匪取 ◎ 祝 降自西階 ◎ 置於坎
◎ 焚祝 ◎ 引降復位 ◎ 謁者引 初獻官 之左白 禮畢
◎ 獻官以下 出
◎ 祝及諸執事 階間配位 四拜 ◎ 鞠躬 ◎ 拜興 拜興 拜興 拜興 ◎ 平身 ◎ 以 次出

이상으로 제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분 헌관, 참례원 그리고 집사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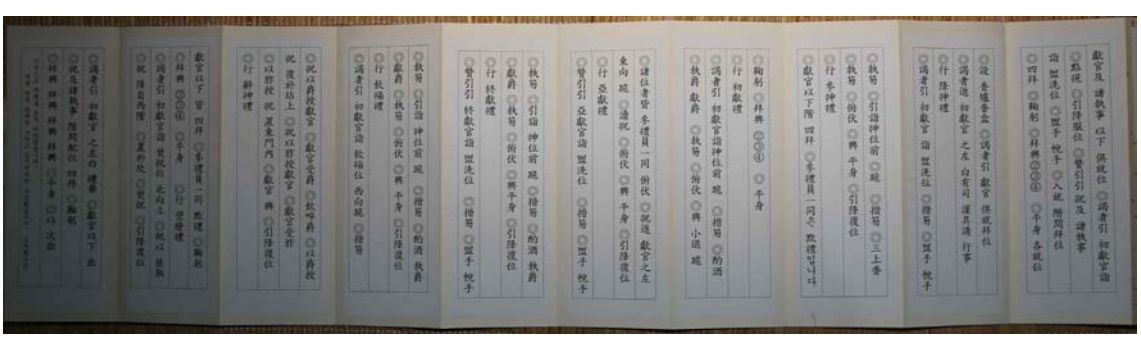


그림 20. 동해신묘제 홀기

그림 21. 謁者引 初獻官詣

그림 22. 降神禮 三上香

그림 23. 初獻禮 중 초헌관이 술을 올림

그림 24. 初獻禮 중 축관이 축문을 읽음

그림 25. 亞獻禮 중 아헌관이 술을 올림

그림 26. 終獻禮 중 종헌관이 올린 술을 집사가 제단에 올림

그림 27. 飮福禮에서 초헌관이 음복하는 장면

그림 28. 辭神禮에서 제관과 집사들이 절을 하는 장면

그림 29. 望燎禮에서 초헌관 焚祝 장면

그림 30. 禮畢 후 처음 대기하였던 자리로 돌아오는 집사들

그림 31. 동해신묘제를 마친 후 참여자들이 함께 음복하는 장면

동해를 비롯하여 남해와 서해에서 중사로 설행하였던 의식 절차는 『국조오례의』 길례 중 '嶽海瀆祭에 관한 의식'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실린 의식 절차는 큰 틀에서 時日, 齋戒, 陳設(안팎을 소제, 饌幔 설치, 신좌 설치[廟는 제외], 헌관 위치 설정, 음복위 · 집사자 · 문외위 · 망예위 · 축판 · 진폐위 · 향로와 향합 · 복주자와 조육조 · 세위 등의 설치 점검), 牲器를 살핌, 行禮(점검, 복장 갖춤, 각자 위치에 선다, 4배, 관세위, 작세위로 나아가 잔 씻어 준소로 이동, 4배, 전폐례[삼상향, 헌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예, 예필, 원래 자리로 돌아옴) 순서로 진행한다.

그런데, 2019년에 설행한 의례와 비교해 보면 헌폐례가 없고, 각 절차별 집사와 제관의 위치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절차상의 다름이 다수 발견된다. 이에 『국조오례의』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례 과정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東海廣德龍王神 祭禮'를 지낼 때 읽은 축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五十二年 歲次 己亥
陽 一月 一日 戊戌
襄陽郡守 金振夏 敢昭告于
東海廣德龍王 之神 伏以
惟我東海 八道祖宗 鎭比東海
神爲最靈 百谷之王 德著廣利
享祀是宜 永介多祉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尙
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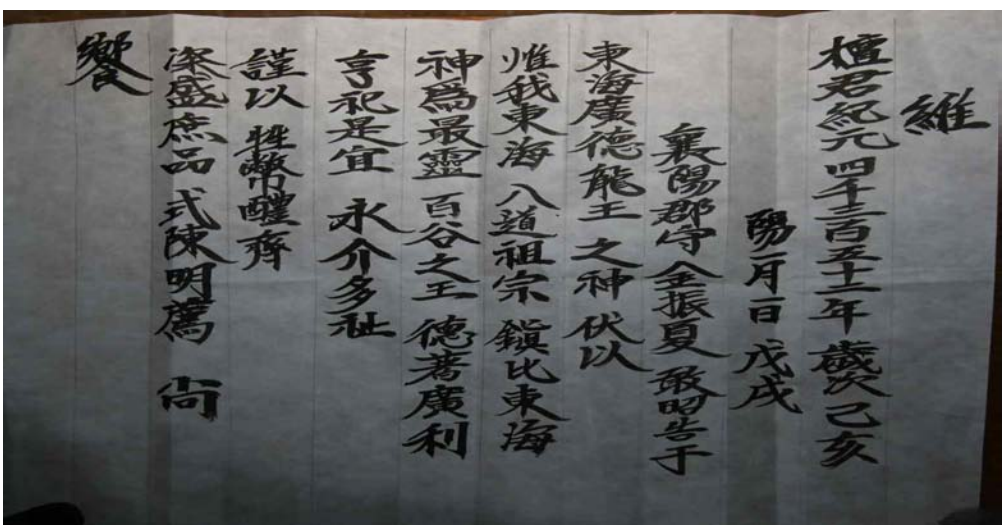


그림 32. 東海神廟祭 祝文

축문 또한 『關王廟儀軌』에 동해신을 모셔서 제사지낼 읽는 축식이 수록되어 있다. 2019년에 읽은 축문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東海廣德龍王神 祭禮'를 지낼 때 용떡을 비롯하여 소머리, 떡, 삼실과, 생선 등 다양한 제물을 준비하였다. 진설도와 사진을 통해 올린 제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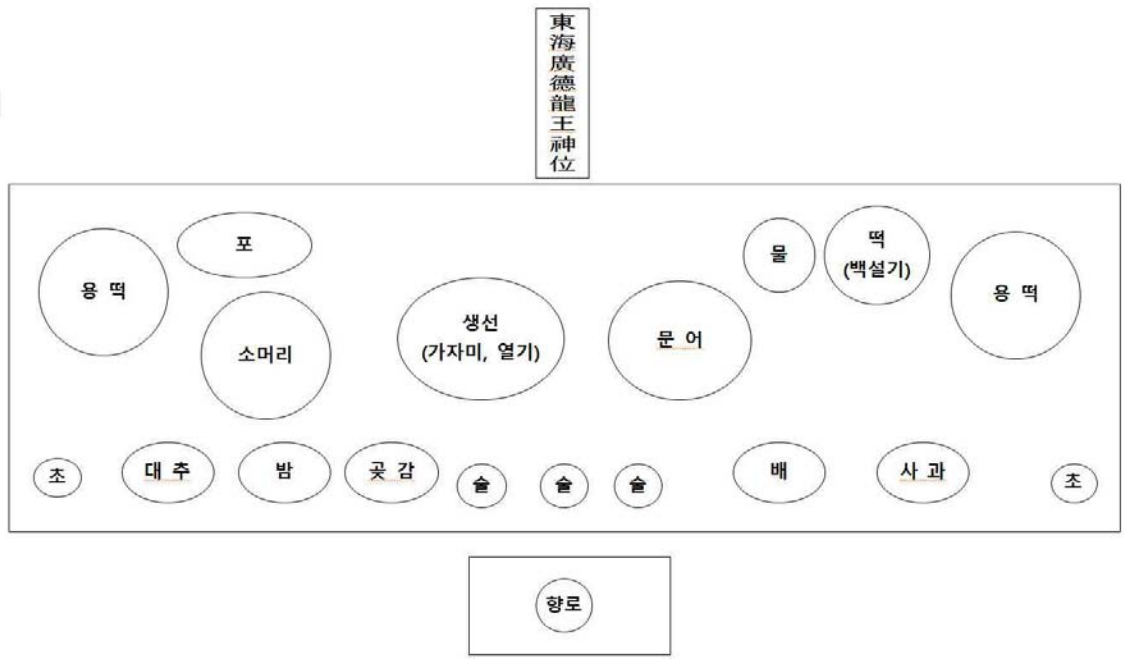


그림 33. 동해신묘제 진설도(2019년)

그림 34. 동해신묘제 제물 진설(2019년)

그림 35. 東海神廟祭에 진설한 제물 중 용떡 1

그림 36. 東海神廟祭에 진설한 제물 중 용떡 2

2019년에 준비한 제물과 진설 또한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관련 의례와 비교하였을 때 논의해야할 과제가 많다. 일단 2019년 진설을 보면 폐백을 준비하지 않았다. 『국조오례의』 서례 권지 1 길례편을 보면, 동방의 동해신을 제사할 때 푸른색 폐백을 준비하며, 그 길이는 11척 6촌 7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희생으로 소머리를 올렸는데, 『국조오례의』를 보면, 중사인 風雲雷雨를 비롯하여 嶽海瀆 등에서는 小牢를 쓴다.(양 1마리, 돼지 1마리)

이와 함께 樽所를 별도로 준비해야함에도 2019년에는 제상 아래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祭需를 담는 祭器 또한 『국조오례의』를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東海를 배경으로 바다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또는 바다로부터 올 수 있는 나쁜 액살을 막고 안전을 위해 신라 이래 고려와 조선시대에 東海에서 海神[龍王]을 주요 신령으로 모셔서 제사를 지냈다는 각종 기록이나 설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양에서 동해를 관장하는 국가 제장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낸 전통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이어져서 1908년까지 유지되었음을 작종 기록과 고지도, 관련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모신 신령은 동해신 또는 용왕으로 상징되는 동해신이었으며, 이들 제의를 주관한 사람은 양양부사였고, 국가에서 향과 축을 내려주었기에 국가 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은 동해를 관장하는 제의 공간이었기에 민간에서도 이곳을 신성 공간으로 여겨 다양한 민속신앙 의례가 행하여졌음을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물론 관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동해신을 모셔서 제사 지낸 전통은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의 민간신앙 전통에도 영향을 미

쳐 마을 단위 제의에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에서도 하위 제차로 용왕제를 지내고 있음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高麗史』 /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허균, 「重修東海龍王碑文」, 1605.

허목, 『陟州誌』, 『기언』

『懶隱集』/『현산지』

『양양부읍지』(규17514) /『東營狀啓謄錄』

『日省錄』/『國恤謄錄』

『비변사등록』 / 『승정원일기』

『여지도서』

이규원, 『鬱陵島檢察日記』(壬午年, 1882년)

『고지도』 서울대 규장각, 한중연 장서각 소장 자료

『국조오례의』

강릉대 박물관, 『양양 동해신묘』, 1999.

김도현,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 『역사민속학』2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김도현, 「울진군 죽변의 마을신앙 -죽변 성황사를 중심으로-」, 『史香』2집, 울진역사연구회, 2005.

김도현 · 이명진, 『영덕 구계리 굿과 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년 12월.

김도현 · 이명진, 『삼척 임원리 굿과 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년 12월.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년 2월.

김도현, 「용왕밥」, 『한국 민속신앙 사전 : 무속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2010.

김도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대풍헌과 마을신앙」, 『박물관지』16집,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0년 2월.

김도현, 「울진과 울릉도 공동체신앙의 관계성 검토」,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I』, 영남대 독도연구소 · 울진군, 2015.

김도현, 「동해안지역의 민간신앙 전통과 이사부」, 『이사부와 동해』11호, 한국이사부학회, 2015. 12.

김도현, 「신라의 국가 제사와 삼척」, 『이사부와 동해』12호, 한국이사부학회, 2016. 8.

김도현, 「강원도의 마을신앙」, 『강원도사(민속편)』, 강원도청, 2018.

김도현, 「강릉 대동마을 민속(민간신앙 · 세시풍속 · 종교 · 민간의료)」, 『강릉 대동마을지』, 가톨릭관동대 · 한국수력원자력, 2019.

김도현, 「민속으로 본 이사부와 삼척」, 『삼척, 이사부와 동해 -학술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사)한국이사부학회 · (재)국강고고학연구소, 2019.

김철웅, 「고려시대 잡사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배재홍,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집, 대구사학회, 2011.
양언석, 「동해신사(東海神祠) 고찰 -명칭을 중심으로-」, 『아시아강원민속학』 제33집, 2020.
장정룡, 「동해신묘의 문화사적 고찰」,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정영호, 「동해묘에 관한 소고」, 『청람사학』창간호,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사학회, 1997.

주제발표 2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東海神廟)의 명칭 고찰

양 언 석
(강원도립대 교수)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東海神廟)의 명칭 고찰

양 언 석
(강원도립대 교수)

1. 양양의 정체성
2. 양양과 東海神廟의 상관관계
3. 동해신묘의 명칭문제
4. 동해신묘의 시련과 복원문제
5. 결론
참고문헌

1. 양양의 정체성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談論을 간직한 고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문화가 미래인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유적과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생활, 그리고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양양의 풍속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1)]

'농업에 힘쓰고, 장례에 정성을 다하고, 놀이를 좋아하며,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귀하게 여긴다'는 기록에서 양양인의 面貌를 알 수 있다. 양양의 유가(儒家)사회는 문학을 숭상하고 예와 의를 소중히 하였다.

1) 『輿地圖書』
『關東誌』
『關東邑誌』
『峴山誌』(동국여지승람 인용)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숭하며 함께 즐겁게 생활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은, 양양인의 풍속과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전통적으로 품위와 멋의 고을이다.[2)]

역사적으로 본다면, 삼국시대 신라[3)]가 강성해지면서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을 먼저 점령한 것은 통일을 위한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고구려가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신라의 정책 때문이다. 예부터 양양은 접경구역으로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불교를 통한 一心과 佛國土를 통해 이 지역을 관리해 왔다. 삼국시대 양양의 불교는 불교의 聖地답게 우수한 문화유적이 전해 오고 있다. 삼국시대 양양은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이었다.

양양의 역사를 말하면서 불교와 화랑의 역사를 제외하고 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불교의 성지고,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화랑은 그 명예에 어울리는 교육방법이 있었다.

- 相磨以道義
- 相悅以歌舞
- 遊娛山水 無遠不至

이상의 기록을 통해 중심순례지인 양양이 도의(道義)를 중시하는 의리의 고장, 문화예술의 고을이다. 이러한 화랑의 전통이 오늘날 양양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擇里志』 山水條에 의하면, 산수의 승지는 당연히 강원의 영동이 제일(山水之勝 當以江原嶺東第一)일 했고, 『新增東國輿地勝覽』 樓亭條 形勝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수의 훌륭한 경치는 관동이 첫째(我東韓 山水之勝 關東爲最)라고 기록하고 있다.

儒家사회에서 연암이 景觀祿俸論을 언급하기 이전부터 선비와 문인들이 風光 좋은 양양을 찾아 은둔하거나, 유람하며 심회를 표현한 시와 山行記는 양양의 역사이고 문화로 자리하고 있

---

2) 유성룡 (柳成龍, 1542~1607)의 저서 서애선생문집권지19)의 비갈(碑碣)에 고통정대부수황해도관찰사배공신도비명 병서(裵三益, 1581년 5월 양양부사 도임. 저서로는 시문집인 『임연재선생문집(臨淵齋先生文集)』 6권이 있다) 퇴계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여 『심경』과 『시전』을 전수받았다.

바닷가 고을의 양양은 풍속이 순박하여 다스림도 풍속을 따르니 고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마음이 너그럽고 까다롭지 아니하여 쇠잔함 없이 생기 있어 선정의 명성이 더욱 자자했다.
더욱 제사에 관한 사항을 중시하고 석전, 사직, 성황, 여제를 내 몸같이 모두 아끼며 제사를 중시하였다. 매년 동해신에 제사하는데 서울로부터 축문과 칙령이 내려오면 공께서는 경건히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 하였다.

數年 邑中稱治 去後多遺愛 襄陽 濱海之邑 土俗淳樸 公因俗爲治 乃更御之以寬簡 蘇殘起廢 政聲尤藉 重祀事 釋菜社稷城隍厲祭 率皆以身親之 每年祭東海神 祝冊自京師至 公虔肅將事

3) 양양은 5세기 중반 이후 신라와 고구려의 격전장이 되었으며, 5세기 말엽에서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의 영향력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6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양양은 신라의 영역에 편제되었으니 익령으로 수성군의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림사회[4]이다. 양양의 유림들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조선왕조는 양양을 外親이라 하여 부로 승격하고 특별히 관리해 왔다[5]. 그 증거가 조선조 '양양도호부'건물[6] 이다. 이로 인해 양양의 유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선이 일제에 강점당하자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만세운동을 통해 조선왕조에 대한 의리와 충절, 그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였다. 유림의 고장답게 3.1 독립만세운동이 치열[7]했던 것은 양양의 역사와 문화에서 기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만세운동에 참여한 군민은 9 개면 132 리 중, 6 개면 82 리에서 6000 명이 참여하였다. 다른 지역[8]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문화가 미래인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地域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襄陽學은 역사, 인문, 지리,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산업 등을 연구하여 미래발전을 탐색하는 학문이다.

오늘의 양양문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양양의 문화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襄陽學의 正立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의미 있다.

2. 양양과 東海神廟의 상관관계

용은 상상의 동물로, 물을 주관하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책임지는 존재로 고대사회부터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삼국사기』[9]에 의하면 용의 화상을 그려

---

4) 유교문화의 유적으로 향교, 서원, 사우, 루정, 효렬각, 신도비 등이 있다. 양양의 유교문화유적은 향교 1개, 서원 1개, 사우 4개, 누정 19개, 기적비 19개, 선정비 20개, 효렬각 42개가 있다. 양양의 유교문화 유적은 영동지방 중에서 다양하게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임진왜란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고 유실되었지만 기록을 토대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太祖實錄』권 11, 6년(1397)1월 24일(정축)
본조 太祖 6년(1397)에 임금의 외가 고을이라 하여 승격하여 府로 하였으며 太宗 13년(1413)에 예에 따라 都護府로 하였고, 태종16년(1416)에 지금의 명칭인 襄陽으로 고쳤다.

6) 양양도호부 건물은 동서남북 성 위에 루(樓)가 있다. 부의 문루는 醉山樓, 동쪽 성문 루 漢水樓, 남쪽 성문 루 峴山亭, 객관 동쪽 언덕 通遠樓, 객관 남쪽에 太平樓, 성 안 臥遊軒 앞 연못이 있고 연못 가운데 愛蓮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루(樓)나 정자에 관한 시가 전해오고 있다.
·객사 35간, 아사 108간, 향청 10간, 훈련청 14간, 군기청 10간 총 177간(관동읍지),
·관원 부사, 교수 외 88명(현산지),

7) 만세운동으로 12명 순국, 수형자가 87명. 유공자 64명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2, 712면
작일, 강릉시장에서 8,9명이 구한국기를 지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니 20여명이 화창 하였으며 타 군중은 참가하지 않고 해산. 주모자 취조 중.

9) 『三國史記』, 卷三十二, 雜誌, 第一

놓고 빌었고[10], 『고려사』[11]에는 가뭄이 계속되면 오해신에게 기우제[12]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양양의 전통적으로 동해용왕의 상주처(常住處)이다. 동해신묘가 양양에 건립된 것은 고려시대 정동이라고 하지만 역사·문화적으로 고찰해 보면삼국시대부터 양양은 용왕의 상주처로 많은 사람들이 탐방하고 숭배하였다. 용왕 상주처인 양양은 동해용왕 관련 담론이 다음과 기록하고 있다.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남효온(南孝溫)

—전략—

낙산사는 신라 중 의상(義相)이 지은 것인데, 그 절의 중이 그 사적을 전하기를,

"의상이 직접 관음(觀音) 대사를 해변 굴속에서 만나니 관음이 친히 보주(寶珠)를 주고 용왕(龍王)이 또 여의주(如意珠)를 바치기에 의상은 두 구슬을 받았다. 이에 절을 짓고 전단토(旃檀土)를 가져다 손수 관음상을 만들었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굴이 바로 관음의 머무른 곳이요, 뜰 가운데 있는 석탑이 바로 두 구슬을 수장한 탑이요, 관음 소상은 바로 의상이 손수 만든 것이다." 한다.

의상은 재계 후 칠 일만에 좌구를 새벽 물위에 띄웠더니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굴속으로 안내해 들어가 공중을 향해 참예하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준다. 의상이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동해의 용왕이 또한 여의보주 한 알을 바치므로 의상이 받들고 나와 다시 칠 일 동안 齋戒하고 나서 이에 관음보살의 참모습을 보았다.

관음보살이 "좌상의 산마루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다. 그 곳에 불당을 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법사가 듣고 굴에서 나오자 과연 대나무가 당에서 솟아 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바탕이 마치 천연석으로 생긴 것 같았다.

대나무가 다시없어지자 비로소 관음보살의 진신이 살고 있음을 알았다. 법사는 자기가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봉안하고 그곳을 떠났다.

· 세종 18년(1436) 6월 4일. 경상도 감사에게 백성들의 숭배와 신앙을 금하게 하다.

10) 『三國史記』, 卷三十四, 眞平王五十年條, 夏大旱移市畵龍祈雨
11) 『高麗史』, 世家, 四十二
12) 『高麗史』7 권11 세가 권11에는 고려 제15대 숙종 3년(1098년) 4월 21일 다섯 해신에 기우제를 지냈다.
『高麗史』33 권54지권8에는 고려 제15대 숙종 7년(1102년) 6월 20일 재상에게 명 하여 오방(五方)의 산과 세 곳의 海神에게 祭祀하게 하였다.

이 앞서 종[婢] 중이(衆伊)란 자가 상언(上言)하기를,

"여의주(如意珠)가 경상도 지리산(智異山) 오대사(五臺寺)에 있사오니, 만약에 불러서 서울에서 맞게 하면, 비가 억수로 쏟아질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괴이하게 여겨 경상 감사로 하여금 친히 가서 살펴보게 하니, 바로 수정으로 된 구슬(水精珠)이었다.

또 그 절의 비문에 이르기를, "수정(水精) 1매(枚)를 찾아서 무량수상(無量壽像)에 걸었다."하였다. 전에 이 때문에 이름을 수정사(水精社)라 하였고 그것이 여의주가 아님은 명백한 것이었다.

중들이 허탄한 말을 만들어 말하기를,

"이 구슬은 바로 동해 용왕의 여의주(如意珠)인데, 용왕이 낙산관음(洛山觀音)에게 바친 것을, 이제 이 절에 옮겼다."하였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혹신하고 다투어가면서 숭배하고 믿어 그 괴이하고 허탄한 것을 좋아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임금이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백성들의 숭배와 신앙을 금하게 하였다.

先是, 有奴衆伊者上言, 如意珠在慶尙道智異山五臺寺, 若招迎來京, 則當沛然下雨. 上怪之. 令慶尙道監司, 使之親往審視, 乃水精珠也. 且其寺碑文曰, 索水精一枚, 懸於無量壽像前因名水精社. 其非如意珠明矣. 僧人等造爲誕妄, 乃曰此珠乃東海龍王如意珠也. 龍王獻于洛山觀音, 今移此寺. 愚民信惑, 爭相崇信, 其好爲怪誕如此, 上令其道監司, 禁民崇信.

『太宗實錄』72권, 세종 18년 6월 4일 己亥

· 고려 중 익장(益莊)의 기문에, "양주(襄州) 동북쪽 강선역 남쪽 동리에 낙산사가 있다. 절 동쪽 두어 마장쯤 되는 큰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높이는 1백 자 가량이고 크기는 곡식 1만 섬을 싣는 배라도 용납할 만하다. 그 밑에는 바닷물이 항상 드나들어서 측량할 수 없는 구렁이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관음대사(觀音大士)가 머물던 곳이라 한다. 굴 앞에서 오십 보쯤 되는 바다 복판에 돌이 있고, 돌 위에는 자리 하나를 펼 만한데 수면에 나왔다 잠겼다 한다.

옛적 신라 의상법사(義相法師)가 친히 불성(佛聖)의 모습을 보고자 하여 돌 위에서 전좌배례(展坐拜禮)하였다. 27일이나 정성스럽게 하였으나 그래도 볼 수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동해 용왕이 돌 위로 붙들고 나왔다.

대성(大聖)이 곧바로 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水精念珠)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서 두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가면, 그곳이 나의 머리 꼭지 위다. 거기에다 불전(佛殿)을 짓고 상설(像設)을 안배하라.' 하였으며 용(龍) 또한 여의주와 옥을 바치는 것이었다. 대사는 구슬을 받고 그 말대로 가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다 불전을 창건하고 용이 바친 옥으로써 불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는바, 곧 이 절이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봄가을에 사자(使者)를 보내 사흘 동안 재를 실시하여 치성하였고, 그 후에는 갑령(甲令 항상 하는 일)에 적어서 항규(恒規)로 하였다. 그리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 절에 보관해 두어 보물로써 전하게 하였다.

계축년에, 원(元) 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으므로 이 주(州)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절의 종(奴)이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땅에 묻고 도망하여 조정에 고하였다. 침입군이 물러간 후에 사람을 보내 가져다가 내전(內殿)에 간수하였다. 세상에 전해 오기로는, '사람이 굴 앞에 와서 지성으로 배례하면 청조(靑鳥)가 나타난다.' 하였다. 명종(明宗) 정사년에, 유자량(庾資諒)이 병마사가 되어 시월에 굴 앞에 와서 분향 배례하였더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서 복두(幞頭)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드물게 있는 일이라 한다." 하였다.[13)]

· 의상의 기적(義相異蹟) 이해조(李海朝)

고려의 승 익장의 기문에 낙산사 동쪽 수리쯤 해변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굴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머물던 곳이라고 세상에 전한다. 굴 앞에 한자리 깔만한 돌이 있어 신라 의상법사가 이에 돌 위에서 전좌배례하며 관세음보살 진상을 진견하려고 14일을 기다려도 볼 수 없어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용이 붙들고 돌 위로 나왔다.

관세음보살이 굴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를 부면서 "내 몸은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를 따라가면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이르면 그곳이 내 이마머리다. 여기에 불전을 짓고 상설안배 하라" 하였다. 용이 바치는 여의주와 보옥을 의상께서 받아가지고 오니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았다. 이에 그 땅에 절을 짓고 용이 바친 옥으로 불상을 마련하여 봉안하니 곧 관음사요 수정염주를 소장한 보물의 절이 되었다.

고려 유자량이 병마가사 되어 관음굴 앞에 이르러 분향재배하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 노래하며 꽃을 두건 위에 떨어뜨렸다. 유자량의 시에 명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조를 이 사람이 만나 것이라고 말했다. 굴 왼편 한 기슭에 바다에 우뚝 솟아 예부터 의상이 머물던 곳을 이름 하여 의상대라 하였다. 대 앞에 구불구불 서린 여러 그루의 고송이 볼만하다.

高麗僧益壯記. 洛山寺東數里許海邊. 有窟可容舟. 世傳. 觀音大士所住處. 窟前. 有石可鋪一席. 新羅義相法師. 乃於石上展拜. 求見觀音眞像. 二七日未獲覩. 便投身海中. 有神龍扶出石上. 觀音卽於窟中. 伸臂授水晶念珠曰. 我身不可覩. 但從窟上. 行至雙竹湧出處. 是吾頂上. 於此. 可營一殿. 安排像設也. 神龍獻如意珠及寶玉. 義師受珠玉而來. 有雙竹自抽. 乃於其地創殿. 以龍所獻玉. 造像安之. 卽觀音寺. 藏珠於是. 寺傳寶之. 高麗庾資諒爲兵馬使. 到窟前拜稽. 有靑鳥啣花飛鳴. 花墜幞頭上. 庾資諒詩. 明珠非我欲. 靑鳥是人逢云云. 窟左 一麓陡起入海. 舊稱義相所憩處. 名以義相臺. 臺前數株古松蟠屈可玩.

13)『新增東國輿地勝覽』

의상대사의 황홀한 일	義師事怳惚
바다에 투신하여 진상을 구했네	投海求眞像
용이 의상을 감싸 안으니	神龍護袈裟
석상에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네	宛在舊石上
스님이 머물던 곳 아득하여	蒼茫住錫處
옛날 누대는 천 길 벼랑에 서있구나	古臺立千丈
대 앞의 소나무는 가지는	臺前松樹枝
언제나 동쪽으로 향하리	幾時復東向

명암집『鳴巖集』

· 세종 4년(1422) 1월 25일. 사헌부에서 전 판정주목사 변처후를 국문하기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 때, 군아(郡衙) 안에 간직된 추포(麤布) 90필, 건어(乾魚) 1백 50마리, 소금 10말 등의 물품을 온 곳에 바로 공문으로 회답하지 않았으며, 또 군아 안에 있는 건어와 관청 안에 있는 건어 합계 1백 50마리, 해곽(海藿) 40속(束)으로 생고치(生繭) 6석(石)을 바꾸어 사사로이 사용하였다.

또 무녀(巫女)의 놋쇠 11냥(兩)을 거두어 군아 안에 있는 놋쇠까지 합하여 놋주발을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또 경내(境內) 낙산사(洛山寺)의 진수정 염주(眞水精念珠) 21개를 비밀리 사고,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緜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

공사(供辭)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은 명백히 공사에 자백(自白)하였는데도 처후(處厚)는 승복하지 않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임금은 범죄가 사죄(赦罪) 전에 있었으므로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司憲府啓, 前判定州牧事邊處厚曾任襄陽時, 衙中所藏麤布九十匹, 乾魚百五十首, 鹽十斗等物來處不直答通. 又以衙中乾魚及官中乾魚幷百五十首. 海藿四十束, 換生繭六石私用. 又收巫女鍮鐵十一兩幷衙中鍮鐵,造鍮鉢私用. 又密買境內洛山寺眞水精念珠二十一枚. 又請鹽于境內山城浦萬戶李養脩, 換緜花及楮. 辭連各人, 明白納招, 而處厚不承, 請收職牒鞫問. 上以犯在赦前命勿論.
『世宗實錄』15권, 세종 4년 1월 25일 癸未

·『世宗實錄』권72, 18년(1436) 6월 4일(기해)

왕이 동해용왕이 낙산관음에 바친 여의주를 믿는 백성들이 숭배와 신앙을 금하게 하라, 백성들의 절대적인 용왕숭배사상의 풍속을 알 수 있다.

·『高麗史節要』 권19, 원종(元宗) 14년(1273)

3월에 여의주를 송분에게 주어 원나라로 보내다.

3월 마강이 돌아갔는데 대장군 송분(宋玢)과 동행하여 가게 하였다. 원나라 왕후 가 일찍이 낙산사의 여의주 보기를 원하였으므로 분(玢)을 시켜 드리게 하였다.

·『풍악록(楓岳錄)』 백호(白湖) 윤휴(尹鑴)

—전략—

홍녹문의 원운은, '낙산사에서 노두(老杜)의 운으로',

이곳이 용왕의 집자리인가	地卽龍王宅
어느 해에 절이 열었는가	何年梵宇開
하늘은 푸른 바다에 떠가고	天浮青海去
산은 백두산에서 왔다네	山自白頭來
가을 풍경을 실컷 보고	縱目觀秋色
석대에 올라 쉬었네	扶笻倚石臺
여기에 올라 세월의 무상함을	登臨撫今古
생각하니 이런 일 저런 일 끝이 없어라	俯仰恩悠哉

후략

· 낙산사(洛山寺)에서 양양 부사(襄陽府使)인 이여복(李汝復) 경용(景容)종장(宗丈)[14]을 만나서. 이날 눈이 크게 내렸다. 3수 택당(澤堂) 이식(李植)

누가 용왕 불러내어 옥가루 뿌리게 하였는가	誰喚龍公撒玉塵
머리 돌려 바라보니 절의 광경 새롭네	琳宮光景轉頭新
은백색 포말(泡沫) 거꾸로 쓴 푸른 바다요	滄溟倒接銀濤沫
봄철인 양 담복(薝蔔)으로 하얗게 단장한 기수로세	祇樹粧成白蔔春
세모에 올라와 굽어보니 그대로 마냥 절승(絶勝)	歲暮登臨仍勝地
하늘 끝 타향 만나 뵌 분 바로 우리 집안 어른	天涯會合是宗人
귀로에 도롱이 젖은들 무슨 걱정 있으리까	不愁歸路簑衣濕
구속 떨쳐 내버리고 술이나 한껏 드세	且鬪樽前漫浪身

14) 종장(宗丈): 집안 어른이라는 말이다.

지인도 창주의 취향이 있었던지 至人亦有滄洲趣
신령스런 그 자취 동해안에 남겼네 靈迹曾留海岸東
자비로운 천수 관음(千手觀音) 동방에 한 손길 뻗쳐 줌에 一手慈悲奔鰈域
웅장한 절 천추토록 홍몽을 제압하였네 千秋臺殿壓鴻濛
경어 우는 소리에 스님들 발우(鉢盂) 공양했고 鯨魚自吼僧催鉢
보배 기운 감돌면서 벽에서 무지개 뿜었네 寶氣常騰壁吐虹
백화 왕자가 지은 찬 한번 본떠 보려 해도 欲效白華王子讚
솜씨 겨룰 기막힌 시어(詩語) 없는 것이 부끄럽네 愧無奇語與爭工

진해(鎭海)의 낙가산(洛伽山)을 소백화산(小白華山)이라고도 하는데, 이곳도 바로 관음(觀音)의 도량(道場)이다. 왕자 안(安)이 이에 대해서 찬(讚)을 지었는데, 무척이나 기이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15)]

『澤堂先生集』

· 관세음보살의 신상(觀音神像) 이해조(李海朝)

쌍죽이 솟아 바다는 깨끗하고 雙竹湧海淸
법당의 불정은 한없이 높구나 孤棟架佛頂
관음상을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고 神像巧鐫玉
깊은 동굴 배 모습과 흡사하네 深窟恰容艇
청조가 천화를 물어다 떨구고 鳥銜天花墜
용이 토한 여의주가 빛나네 龍吐驪珠炯
옛 자취를 어루만지고 싶어 舊迹欲摩挲
오래 앉아 있으니 바람만 차구나 坐久風凄冷

명암집『鳴巖輯』

15) 이식의 문장은 한문이 함축성과 살리면서 간결하고도 품격이 높았고, 5언율시를 잘 썼다. 한문4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풍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고 소설의 폐단을 강경하게 지적하고 소설배격론을 주장하며 허균을 공격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이 시는 이식이 간성부사로 부임하여 낙산사를 지나면서 쓴 시이다. 첫 수는 낙산에서 바다를 바라보자 눈 내리는 모습을 용왕이 옥가루를 뿌려 은백색의 포말이 선궁 같고, 은백색의 포말을 뒤집어 쓴 푸른 바다, 너무나 아름다움에 모든 구속을 떨쳐버리고 술이나 마시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음을 노래하고 있다.
두 번째 수는 낙산은 관음보살의 상주처로 자비로움을 이야기 하며 의상대사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성전에 모셨던 고사응 인용하고 있다. 세 째 수 에서는 안견의 수목화와 임억령의 시가 천년토록 아름다우며 전란으로 스님들이 모두 떠나 큰 변화로 폐허가 되었다며 심회를 표현하였다.

· 관음굴(觀音窟)에서 노닐며 춘정집 (春亭) 변계량(卞季良)

나무꾼 따라서 산 속으로 들어가니 獨隨樵者入山門
양쪽 언덕 솔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었지 夾岸踈松路自分
몇 조각 채색기는 석양빛에 찬란하고 幾片彩幡明夕照
묏부리의 풍경은 가을 구름 가리었네 一峯寒磬隔秋雲
밤 연못에 하얀 기는 용이 살기 때문이고 夜潭白氣龍曾蟄
솔 달에 맑은 소린 출중한 학 때문이지 松月淸音鶴不群
송도를 돌아보니 십 리도 안 되는데 回望京都無十里
수레가 남북으로 시끄럽게 왕래하네 輪蹄南北正紛紜
『春亭集』

· 관음굴(觀音窟) 강한(江漢) 황경원(黃景源)

운무 속 암자가 거센 물결을 누르는데 雲龕壓驚瀧
날아오를 듯한 서까래는 천정에 걸쳐있네 飛棟跨其項
백길 깊은 곳에 현묘한 굴이 있어 玄窟百丈深
찬 등불 밤새도록 반짝이는구나 寒燈永夜炯
용의 궁궐 바로 가까이 있고 龍宮正鄰近
인어의 집 또한 나란히 있어 鮫室且比並
아침저녁으로 조수가 일고 早潮與暮潮
출렁이는 물은 태초의 기운과 통하네 滔滔通溟涬
단향목에 부처를 새기었는데 栴檀刻金仙
향기는 어찌 그리 그윽하게 퍼지는지 香氣何幽迥
선조께서 신령스러운 산에 기도를 하여 烈祖禱山靈
이에 하늘이 성인을 내시었네 聖人乃天挺
만년토록 왕위를 보위하고 萬年負黼扆
칠묘가 제사를 받게 되었도다 七廟饗烝鼎
누가 일렀던가 이 산신의 공이 孰謂嶽神功
위로 하늘과 같다고
『江漢集』

· 또 준 상인이 낙산으로 가는 것을 전송하다[又送俊上人往洛山]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상인께서 박연에서 막 돌아와서	上人朴淵來
박연폭포 모습 내게 전해 주었네	傳我朴淵瀑
박연폭포 그 기세는 웅장하고 웅장하여	朴淵瀑布氣雄哉
유월에도 하얀 눈이 절벽에서 뿌려지고	六月白雪洒石壁
돌 절벽은 하늘 닿아 아득 높이 서리어서	石壁參天鬱穹崇
폭포의 물 은하와는 서로 간에 통했으며	瀑布水與銀河通
고모담은 물 깊어서 그 깊이가 만길이라	姑姆之潭一萬丈
파도 물결 내뿜어져 용왕궁을 만드는데	波濤噴作龍王宮
그 소리에 천 바위와 만 골짝이 울리어서	聲動千巖與萬壑
동천에는 벽력 치지 않는 날이 없다 하네	洞天無日無霹靂
내가 이 말 들었는데 말 다 끝나기도 전에	我聞此語語未已
홍 일어나 다시 구름 산을 향해 가려 하네	逸興却向雲山起
스스로가 말하기를 다시금 또 영동에 가	自言又作嶺東行
낙산에 가 푸른 바다 바라보려 한다 하네	將往洛山觀滄溟
낙산 동남쪽에서는 하얀 해가 오르는데	洛山東南白日出
첫닭 울 때 뜨는 해를 볼 수 있다 말 전하니	人傳鷄鳴見出日
상인이여 거기 갔다 속히 다시 돌아와서	上人速宜歸來乎
날 찾아와 삼족오의 모습 내게 말해 주게	須語我來三足烏

『東溟集』

양양에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 영랑호와 청초호가 양양군에 속해 있을 때, 황룡과 청룡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는 수룡이 살았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는데 서로 땅속으로 통하는 물길을 따라 오가며 살았다. 어느 날, 한 어부가 실수로 큰 불이나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수룡이 죽고 말았다.

이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였다. 이로 인해 어민들이 용을 달래고 흉사를 없애기 위해 정월 대보름이면 무당을 청하여 용신제를 지내여 암룡을 달래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하는 민속놀이가 거행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나룻배 싸움은 결국 화합을 강조하기 위한 놀이로 두 마을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놀이 구성이 흥미와 즐거움을 준다. 이 호수와 관련된 많은 놀이가 전해져 오고 있다.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유래

속초의 양대 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각각 수룡과 암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만천동은 옛 지명이다. 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는 수룡이 살았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는데 서로 땅 속으로 통하는 물길을 따라 오가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나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수룡이 죽고 말았다. 이 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렸다. 만청동과 청대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용을 달래고 흉사를 없애기 위해 정월대보름이면 무당을 청하여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이 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으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가 거행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용을 달래야 이런 흉사가 없어질 것이라 믿은 마을 사람들이 용제(龍祭)를 지내게 되었다.

용제 후에 두 마을 사람들이 나룻배 싸움을 하면서 힘을 겨루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기 시작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특색

음력 정월보름이 지나 날씨가 풀리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용제를 올릴 제일(祭日)을 택한다. 제주와 제관을 뽑고 마을에서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 배에 태우고 용제를 올린다. 풍년과 풍어,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올린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마을로 찾아가서 전체 주민들에게 음복을 권하며 인사를 올린다. 제사와 상대 마을을 방문,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몰고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돌아온 나룻배에 신주(神主)와 메를 싣고 다시 호수로 나가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양쪽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이 우세하다고 시위를 벌인다. 마을에서 만든 음식과 술로 흥을 돋운다.

마을의 부잣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온다. 흥을 돋우면서 마을끼리 힘을 겨루는 놀이가 시작된다. 양편 나룻배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나룻배끼리 부딪쳐 밀고 나간다. 노를 젓던가 선정된 도구로 나룻배를 밀어 붙여 각기 상대 마을로 밀고 나간다. 상대 힘에 밀려 나룻배가 자기 마을에 닿게 되면 지고, 밀고 간 편이 승리하게 된다. 나룻배 싸움놀이가 끝나면 두 마을이 흥을 돋우는 놀이마당을 벌여, 서로 내년에 다시 힘을 겨루어 꼭 이길 것을 결의한다.

나룻배 싸움에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에게 새경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면제해주며 푸짐한 대우를 하게 된다. 나룻배 싸움은 혼례 때 나룻배에서 만나도 행해지고, 특별히 물건을 운반

할 때도 행해진다.

나룻배 싸움은 전래의 어촌 생활에서 가뭄과 흉어를 용제(龍祭)를 지내어 극복하는 삶의 부활에 상당한 뜻을 두었다. 나룻배에서 싸워 이긴 신부는 첫 아들을 낳는다는 민간신앙이 전해진다.

구성과 놀이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마당 : 용제

두 마을의 제관과 마을 청년들이 수룡과 암용을 위무하는 용제를 지낸다.

제2마당 : 음복

상대 마을을 찾아가 음복을 권하며 인사를 나눈다. 이후 각기 차기 마을로 되돌아온다.

제3마당 : 뱃놀이

장정을 뽑아 배에 태우고, 이들이 나룻터를 왕래하며 노래와 춤으로 나룻배의 무사고를 비는 의식을 행한다. 나루터 행사가 끝나면 마을로 되돌아 와, 힘 겨룰 준비를 한다.

제4마당 : 뱃싸움

징이 울리면서 마을사람들의 환성이 울린다. 장정들은 나룻배를 서로 밀어붙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한다.

제5마당 : 놀이마당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쪽은 환호하고 패한 쪽은 한숨 짓는다. 이어 흥을 돋우는 놀이마당을 벌인다.

청초호 용갈이(草湖龍耕) 이해조(李海朝)

쌍성호 일명 청초호라고 한다. 부의 남쪽 사십 리에 간성과 경계에 있다. 둘레가 수십 리고, 매년 겨울 얼은 후에 얼음이 갑자기 물결을 일었다. 북쪽 기슭에 남쪽 기슭까지 마치 쟁기질로 물결을 갈라 엎은 것 같은 형상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르기를 용갈이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것으로 한해의 점을 쳤다고 한다.

雙成湖一名靑草湖在府北四十里杆城界周數十里每冬月合凍後氷忽鱗起自北岸至南岸有若犁破狀村人謂之龍耕以此占年云

눈 속의 아름다운 풀은 雪裏種瑤草
용과 신선의 부름임을 아네 知有呼龍仙
긴 호수가 밭이 되어 長湖爲十畝
얼음 갈이가 연기 갈이 같구나 耕氷如耕烟
서릿발이 갑자기 햇살에 번쩍이고 霜鱗乍閃暎
하늘의 쟁기는 어찌 빙빙 도는가 雲耜何蹁躚
스스로 갈이 하고 또 비가 오는데 自耕又自雨
어찌 풍년이 아니라고 근심하는가 何憂不豊年
명암『鳴巖集』

청초호의 용갈이(草湖龍耕) 김창흡(金昌翕)

잠용은 변화에 익숙하여 潛龍變化熟
연못에 밭이 있는 것 같네 在淵若在田
몸을 보존할 여력이 있어 存身有餘力
밭갈이 마치니 얼음이 단단히 얼었다 耕罷氷腹堅
쟁기질 흔적은 강하게 나타나 犁痕隨闊狹
호수기슭에서 점을 친다 湖岸占來年
몹시 더운 날 또 비를 내리니 炎天又行雨
용은 어느 때 쉬는가 龍兮幾時眠
잠룡(潛龍)-승천할 때를 기다리며 물속에 잠겨 있는 용
삼연집『三淵集』

이상의 기록에서 고찰해 보면, 예부터 양양은 동해용왕의 상주처로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조선조를 건국하고 초기에 신사(神祠)에 대한 이전 논의가 있었다. 즉, 고려조는 개성을 중심으로 정동인 양양을 선정하였는데, 방위가 어긋나기 때문에 강릉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양성지가 세조에게 건의 했지만 실행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즉, 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16]. 남해신사 또한 이전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전설의 문제는 성종 27년(1490)강릉 안인포에 있던 수군만호영을 조산으로 옮기고 대포영이라 칭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군영에는 신묘는 아니지만 신단(神壇)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함께 옮기면서 잘못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16)『세조실록』 권38, 12년(1466) 윤 3월 13일, 세조가 낙산사에 거동하다.
『성종실록』 권208 18년(1487) 10월 5일에 의하면 정희왕후(세조의 비)가 일 년에 쌀 백 섬씩 낙산사에 주었다.

그 이유는 동해용왕의 상주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은 고대사회부터 인간의 생명이고 미래이다. 동해안처럼 거친 파도와 삶 때문에 신앙이 더욱 강화되었다.

양양의 동해신묘는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봄과 가을로 향축(香祝)을 보내어 중사(中祀)로 치제하였다. 동해신묘는 고려조와 조선조에 통치이념으로 매우 중시하며 왕이 직접 관리하며 강화하였다.

동해신묘는 동해안 주민과 어민들에게 중요한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지주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국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신묘를 부서지고 비석은 반으로 갈라지고 방치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민족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동해신묘의 제대로 된 복원은 양양의 정신을 회복하고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양양인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동해안 주민들의 신앙적 모태가 되었다.

이러한 동해신묘의 역사적, 문화적 연구와 고증을 통해 양양인과 동해안의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명칭문제부터 정정해야 한다.

3. 동해신묘(東海神廟)[17]의 명칭문제.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은 강과 바다가 삶의 터전으로, 선사시대부터 강과 바다를 접하면서 삶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물을 주관하는 용왕을 숭배한 역사적인 사실이 동해신사(東海神祠)[18]이다.

조선조 초기에는 고려조의 제도를 그대로 전승하였고, 용왕은 용신제와 용왕굿에서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숭배하였다. 이에 국가에서 관리하며 제례를 숭배한 것이 동해신사(東海神祠)[19]이다.

이처럼 동해신사는 예부터 동해용왕에게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던 유서 깊은 신사이다.

신사는 국가통치의 성격으로 제의규모, 형식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관리하였다. 동해안 어민들에게 용왕숭배사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

17) 동해를 지키는 신인 용왕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관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1993년에 복원한 신당을 비롯하여 동해신묘지 일대가 2000년 1월 22일 도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다.

18) 『高麗史』 卷58, 志, 第12, 地理3, 翼嶺縣
° 元宗元年 陞知襄州事 別號襄山 有東海神祠
°『世宗實錄』 卷153, 地理志, 襄陽都護府
名山雪嶽 在府西 新羅時爲小祀 東海神祠堂 在府東 春秋降香祝 致祭中祀

19) 고려시대 동해신묘가 양양에 건립된 것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정동(正東)의 방위에 신묘를 선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건국 초기 사전 (祀典)을 정비하여 악(嶽). 진(鎭). 해(海). 독(瀆)을 중사(中祀)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매년 봄과 가을에 치제(致祭 : 임금이 직접 제물과 용품을 보내어 지내는 국가관리 제례)를 위해 조정에서 강향사(降香使)를 보내어 향과 축을 내렸다. 이것을 조선을 건국하고 그대로 따랐다.

동해안 문화인 용왕숭배사상은 국가통치의 중요 수단이었다. 조선 전기는 고려조의 제도를 그대로 전승하였지만 후대로 올수록 통치이념인 성리학에 의해 신사(神祠)의 명칭이 신묘(神廟)나 묘(廟), 단(壇)으로 혼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동해신묘의 명칭은 처음 명칭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본고에서 동해신사의 명칭과 의미를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려조나 조선조 초기에는 분명히 동해신사(東海神祠)로 기록하고 있다. 동해신사는 황해도 풍천의 西海神祠, 전라도 나주의 南海神祠와 함께 우리나라 三海의 海神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과 축을 보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남해신사도 남해당(南海堂), 남해묘(南海廟), 남해사(南海祠) 등으로 혼용하였다.

그림 1 팔도총도(八道總圖, 1530)의 조선시대 악(嶽) · 해(海) · 독(瀆)과 해신사

김상태교수 남해신사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에서 재인용[20)]

지금 명명하고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의 명칭을 역사적으로 변이과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신사(神祠)명칭

·『高麗史』

元宗元年 陞知襄州事 別號襄山 有東海神祠[21)]

『高麗史』36 권58지 권12의 동계 익령현(東界 翼嶺縣)기록에는"원종(元宗) 원년(1260년)에 다시 승격하여 양주(襄州)로 읍호하고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었는데 별호(別號)는 양산(襄山)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 고려(918-1392)조는 건국 초부터 동해신사를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高麗史』33 권54지권8에는 고려 제15대 숙종 7년(1102년) 6월 20일 재상에게 명 하여 오방(五方)의 산과 세 곳의 海神에게 祭祀하게 하였다.

·『朝鮮王朝實錄』

名山雪嶽 在府西 新羅時爲小祀 東海神祠堂 在府東 春秋降香祝 致祭中祀[22)]

『朝鮮王朝實錄』세종지리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편 기사에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은 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23)]로 제사 지낸다." 라 하였다. 세종실록 오례(五禮) 길례서례(吉禮序例) 변사편 기사에 대사(大祀)는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이고, 중사(中祀)에 동해는 강원도 양주의 동쪽에 있다. 무릇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게'사(祀)'라 하고, 지기(地祇)에게는'제(祭)'라 하고, 인귀(人鬼)에게는'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석전(釋奠)'이라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중종25년, 1530) 양양도호부 사묘(祠廟)에 문묘(文廟): 향교가 있다

동해신사(東海神祠): 부 동쪽에 있다. 봄가을로 나라에서 향축을 보내 치제(致祭)한다.

---

20) 김상태, 남해신사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고찰, (문화재 통권 44호, 국립문화제연구원), 2009. 67면

21)『高麗史』卷58, 志, 第12, 地理3, 翼嶺縣

22)『世宗實錄』卷153, 地理志, 襄陽都護府

23)『세종실록』에 의하면, 나라에서 행하는 양양부의 동해는 중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해신사의 위패는 시기에 따라 달리하고 있지만 동해지신(東海之神)으로 해야 한다.

·『記言』 제35권 원집 외편 동사(東事) 현종 8년 정미년(1667년) 동지(冬至)에 양천(陽川)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글.

정선(旌善)은 효제(孝弟)의 고을이라 불렸고, 명주(溟州)는 예국, 수춘(壽春 춘천)은 맥국의 땅이다. 양양(襄陽)에는 해상(海上)에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24)]

旌善稱孝弟鄕 溟州濊國 壽春貊國 襄陽海上有東海神祠

·『輿載撮要』(고종 30년, 1893) 신사(神祠)

동해신사(東海神祠): 봄가을 降香使가 내려와 致祭를 한다.

·『江原道誌』(1940년 9월), 단사(壇祠)

동해신사(東海神祠): 군 동쪽에 있다. 봄가을로 향축을 내여 제사 지낸다.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신묘(神廟)명칭

·『日省錄』 정조 24년 경신(1800) 4월 7일(기축)

양양(襄陽)의 동해신묘(東海神廟)

· 송병선[(宋秉璿)1836년~1905년] 의 연재선생문집 권지20(淵齋先生文集卷之二十) 雜著 東遊記 <歲戊辰暮春> 1868년(戊辰) 늦은 봄 간성을 출발하여 양양을 지나 강릉에 이르다.[自杆城歷襄陽至江陵記]의 기록이다.

그 높이가 수십 보에 이른다. 앞을 바라보니 시원스레 활짝 트였는데 동해신묘는 좌우 송림 속에 있다.

高可數十步眺望爽豁而東海神廟在右松林之間矣

·『鳴巖集』동해신묘는 부의 동쪽 해변 송림 속에 있으며 봄가을에 제를 올린다..

東海神廟在府東海邊松林間春秋設祭

·『俛宇集』卷之四 / 詩○東遊錄 謁東海神廟

·『懶隱集』 卷之二 / 詩 東海神廟 在襄陽時° 爲神廟祀官°

24) 旌善稱孝弟鄕 溟州濊國 壽春貊國 襄陽海上有東海神祠

신단(神壇)명칭

·『 대동지지』(1866) 단유(壇壝)

동해신단(東海神壇): 동쪽 13리에 있다[25]. 고려 때 동해는 중사로 기재되어 있다. 본조에도 그렇게 따랐다.

묘(廟)명칭

·『輿地圖書』(영조 41년, 1765) 단묘(壇廟)

문묘(文廟)

성황사(城隍祠)

동해묘(東海廟): 부 동쪽 10리에 있다. 정전 6간, 신문 3간, 전사청 2간, 동서재 각 2간, 백천문 1간으로 매년 초에 별제를 지내고 2월 8월 상제를 지낸다. 향과 축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

·『關東邑誌』(1871) 단묘(壇廟)

동해묘(東海廟): 부 동쪽 10리 바다 가에 있다. 정전 (正殿) 6간, 신문 3간, 전사청 (奠祀廳) 2간, 동서재東西齋) 각 2간, 百川門 1간으로 매년 초에 별제 (別祭) 를 지내고 2월, 8월 상제 (常祭) 를 지낸다. 향과 축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26]

·『동주집』 관동록(關東錄) 동해묘에서(東海廟)

·『峴山誌』(1910년 초) 사묘(祠廟)

동해묘(東海廟): 부 동쪽 10리 바닷가에 있다. 창건 연월을 기록으로 밝힐 만한 것은 없으나 매 초봄에 별제를 御諱(임금의 이름)로써 친히 향축을 내려 지내는데 일의 형편에 따라서 존중하고 중시하였다. 여러 산천의 제사의식이 더욱 요원하게 되었다. 별제를 2월과 8월에 하고 또 상제도 있다. 경종 2년(1722) 임인에 부사 채팽윤이 중창하였고, 동해묘와 백천문 등의 편액도 채팽윤의 글씨이다. 지금의 임금 임신년(영조 28년-1752)에 부사 이성억이 또 새로 지었다.[27]

25) 21년(1490년)에 강릉 안인포로 옮기고 만호(萬戶)를 두었다. 중종 15년(1520년)에 성을 쌓았으며, 둘래가 1천 4백 69척이었는데 후에 고쳤다. 청초호(靑草湖)는 고려 때 만호를 두어 정박하는 병선을 관리하였다고 기록되었을 뿐 수군만호영 이전 할 때 동해신묘를 함께 이전하였다는 설의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26)『關東誌』

27)『峴山誌』

전라도 나주목의 남해신사와 황해도 풍천도호부의 서해단의 명칭은 신사(神祠), 묘(廟), 단(壇)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기록을 보면 신사(神祠)는 신에게 제를 올리는 뜻이고, 묘는『西周金文』을 시작으로 쓰여져 본래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사당의 뜻으로 사용하였고, 한나라 후 묘(廟)와 원시적인 신사(神社, 토지묘)와 혼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불교의 전래에 따라 절을 묘로 부르기도 하였다.

일본의 신사(神社) 영향으로 어감적으로 우리의 신사(神祠)는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자가 다르다.

『經國大典』의하면 침묘(寢廟)에
묘(廟)는 죽은 사람의 신주를 위해 놓은 사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동해신묘라는 명칭은 17-18세기 유교문화가 불교와 귀신의 세계를 폄하하는 시대적 사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양의 동해신묘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위해 본래대로 동해신사(東海神祠)로 정정해야 한다.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동해신사를 중시하였지만 시대적 사조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된다. 이제 우리는 양양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동해신묘의 정체성을 찾아 남해신사와 서해신사처럼 동해신사를 정정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동해신사를 신묘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폄하한다는 사실이다.

4. 동해신묘의 시련과 복원문제

동해신묘는 동해을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이었다.

동해묘의 제사(海廟香火)

동해신묘는 부의 동쪽 해변 송림 속에 있으며 봄가을에 제를 올린다.
東海神廟在府東海邊松林間春秋設祭

울창한 송림 속은 시원하고 고요한데　　松林鬰森爽
신을 모신 신궁은 엄숙하고 밝다　　神宅儼明宮

향을 피우니 하늘하늘 구름이 되고　　爐香裊汀雲
깃발 날리어 바닷바람 일으키네　　旗脚颺海風
모든 백성 늘어서서 제를 올리니　　蜿蜿享百靈
여러 해 풍년 들 효험 있구나　　穰穰驗屢豊
부끄러운 관리들 명심하고　　愧乏吏部銘
바다를 맡은 신에게 치성을 드리네　　致崇如祝融
현산 삼십경을 읊으며[峴山三十詠]

명암(鳴巖)　이해조(李海朝)(숙종 35년, 1709년 2월 도임)

관동록(關東錄)　　동해묘에서(東海廟)

동해묘 옆 소나무 숲　　東海廟傍松樹林
짙푸르게 해 가려 낮에도 늘 그늘이네　　蔥靑蔽日晝常陰
봄에 비바람은 신령한 변화 있고　　一春風雨有靈變
사철 피리 소리 서로 화음　　四節笙竽相和音
무당의 말 술자리에 황당하게 전하고　　巫語盤筵傳怳怳
용왕 거처에 장막 닫힌 채 침침하구나　　神居帷幕閉沈沈
올 농사 하나도 덕 보지 못했으니　　今年穡事渾無賴
가을 제사에 감사하는 마음 아프겠네　　秋社空傷報賽心
報賽: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東州集』(1679년 출간 추측)

이처럼 시에서 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설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허균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이전설에 대한 내용을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오랜 연구와 자세한 고찰을 통해 이전설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였다.

만력 갑신년(선조34, 1604) 7월 양양부 동산(洞山)에 사는 어부 지익복(池益福)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바람이 그 배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 이렇게 일주야(一晝夜)를 달려 동쪽 한 섬에 닿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인도하여 왕국으로 데리고 갔다. 왕궁에 나아가니 정원에는 창을 든 병사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왕이라는 자가 보라색 옷을 입고 궁전에 앉아서 말하기를

“내가 강릉에서 제사를 받아먹은 지 수 천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부 사람에게 쫓기어 이곳에 옮겨와 보니 좋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상제께 호소하여 이제 비로소 허락을 받았으므로 너의 힘을 빌어 관원에게 뜻을 전하고 옛 땅 내 집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는 목민관 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몰아치게 할 것이니, 백성들이 나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는 바람을 몰아 돌려보내 주었는데 하루가 못되어 동해 가에 돌아왔다.

어부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으나 감히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향임(鄕任) 이석림(李碩霖)에게 말하여 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부사 홍여성(洪汝成)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고(典故)를 들어 상고해 보니 가정(嘉靖-명 세종 연호) 병신년(중종 31년)에 사당이 강릉부 정동촌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음을 알았다. 그러나 감히 귀신의 말을 인용하지 못하고 폐해기 많다는 이유로 옛 문서를 돌려주기를 방백(方伯)에게 청하였으나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해 을사년(선조 39년, 1536) 7월 관동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안변, 통천에서부터 남쪽으로 안동까지 수십 군이 혹독한 수해를 입어 백성과 가축 죽은 수효는 수만에 이르렀는데 강릉이 특히 심하였다.

부사 홍공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여 지방 관리와 백성을 불러 의논하기를

“귀신이 사당을 옮기지 않으면 해를 내린다고 우리에게 경고한지 1년 만에 수해가 이 지경이니 이는 과연 그 징험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으나 그 사당을 보니 퇴락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고 있다. 어찌 우리가 서로 이를 새롭게 단장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하고 정성으로 받든다면 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그렇다 하고 드디어 녹봉을 떼 내어 공장이와 인부를 모아 향임에게 이를 감독하게 하여 기와를 갈고 벽을 바르고 담장을 둘러쌓고 신문(神門)을 만들고 마당 고르는 일을 두어 달 만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이 몸소 제사를 지내니 이때부터 양양이 바람이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강릉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여 비석을 세워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글을 청하기에 나는

“우리나라는 사해 용왕을 위해 사당을 세웠고, 지리의 중앙을 가려 설치하였는데 강릉은 동해의 한 가운데이고 정동이며 더욱이 고을 한가운데가 상개(爽塏-앞이 탁 트여 밝은 땅)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정동이라 이름하고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제사지냈다. 그런데 공희왕(恭僖王-중종) 때 강릉부 사람으로 장원급제한 심언경(沈彦慶), 심언광(沈彦光)형제가 용왕의 사당에 비용이 든다고 하여 방백에게 말하여 상께 글을 올리고 까닭 없이 옮겨버렸다. 근래 편찬한 여지

서(輿地書)에는 ‘동해 용왕의 사당은 양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당 자리는 낮고 더러워 귀신의 영을 평안히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니 귀신의 노여움도 당연하다 하겠다. 언광형제의 몰락도 이것 때문일 것이며 을사년 바람과 비의 변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신이 사람에게 밝게 고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이다. 부사의 사당 개수는 예에 들어맞는 처사이니 어찌 그를 덮어 둘 것인가”하고 갖추어 기록하고 이에 송(頌)을 드린다.

바다는 천지간에	海於天地
가장 큰 것이다	爲物甚鉅
그 누가 왕이 되어	孰王其中
바람 불고 비 오게 하는가	以風以雨
강하고 강한 용왕신이라	矯矯龍神
하늘의 용은 이것 같음이 없네	天用莫如
복 내리고 화 내림에	降福降汝
신령스러운 응보 매우 진실하네	靈應孔孚
그 누가 그 곳 낮은 데에	疇就其庳
내 집 옮기게 하였는가	俾徙我宇
적은 비용 아끼니	惜其小費
신의 노여움 마땅하네	宣神之怒
귀신이 계신 곳은	神之所都
조개집 구슬 궁궐이네	貝闕珠宮
세상의 오두막집	俗之陬居
뭐라 연연하여 섭섭해 하겠는가	奚戀以恫
아니로다 정성은	不然誠敬
신의 흠향하시리라	神所享者
불경한 자가 방자하고	不敬者慢
불선하면 게으른 법	不誠則隋
땅을 쓸고 물 떠 놓아도	掃地酌水
정성껏 공경하면 강림하리	誠敬則臨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차려 놓아도	玉寢瓊饗
방자하면 흠향하지 않는다네	慢則不欽
옮겨 놓고 더럽힘은	移以汚之
게으르고 방자한 일	卽隋則慢

어찌 제수의 많고 적음에	豈以豊殺
기뻐하고 탄식할까	而爲忻歡
알려줘도 안 따르니	告以不從
홍수피해 마땅하네	宜水之洪
온화한 원님이	溫溫邦侯
공경으로 신 받드리	事新以恭
새로 사당 단장하고	乃新其構
제수차려 제 올리오	乃腆其饗
신이 돌아보고 기뻐하여	神顧以喜
바람같이 와 흠향하네	風來悽愴
공경을 다 하여 정성껏 받든다면	克敬克誠
어찌하여 강릉, 양양 가리겠는가	奚擇江襄
원컨대 이곳이 길이 진정하시어	願此永鎭
해마다 풍년들게 도와주시오	資歲穰穰
백성들 상하지 않으며	民無札傷
전란이 미치지 못하게 하오	五兵不入
길이길이 만년토록	於萬斯年
우리 고을 도와주소서	祐我弊邑

『惺所覆瓿稿』 附錄

중수동해용왕묘비(重修東海龍王廟碑)

이상 허균의 기록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남공철(南公轍) 찬(撰)[28]

28) 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江原道觀察使南公轍撰
海與王公同位望沈之祭報其德也 易說卦曰潤萬物者莫盛於水水之爲言演也 故其立字兩人交一以中出者爲水一者數之始兩人譬男女言蔭陽交物以一起也 周制四次驚蟄因郊而祭立夏因迎氣而祭白露因雩而祭大寒因蜡而祭歲凡四祭王兩珪有邸五寸牲用少牢幣視方色王及尸皆服毳冕樂奏蕤賓歌函鐘舞大夏用五獻器齊是朝踐之獻也 淸酒是饋食之獻也 後世又加王爵東海曰廣德王西海曰廣潤王南海曰廣利王北海曰廣澤王曰禮諸候得祀方內嶽瀆我國亦有東海神廟在襄陽府治東十里聖上正宗二十四年御史權睟言臣行郡縣見東海神廟齊舍墻垣多頹廢宜修治民家之八居近廟者一併撤去毋使鷄犬相聞肅敬於嶽瀆之祀而四方之以水旱疾苦祈禱者聚焉 甚非所以致崇極之道諸著爲式以禁敎日可命觀察使主其事臣公轍適按關東謹作禮部知▨擧行事說驛聞香祝自京師至以睟差獻官而祀之噫疾痛必呼人之情也 民之視海神如父母不護者祈禱焉 固宜然祀有其常祀彼遇夫遇婦執金帛而來者將以求媚于神而徼福禮滋甚漫則層執甚焉 朝廷之禁之乃尊神之至而導民於正也 一擧而兩得矣 遂述其事刻石碑解其感至於廟宇之隨時修補者有有司存銘曰有宮變變有墻翼翼邊豆▨嘉維珪及帛於粢酒掃肆筵說凡神具醉飽神旣安正御史自東歸奏于王岳瀆有祀曰沈曰望蚩蚩者氓凡有假求握粟擲錢久爲神羞禮滋益慢神顧不敵王命方伯其始自今勅其府使祗存常祀迺宣祝冊乃命御史丕顯我王以禮事神導率土之正愛及衆民民皆稽首神宜酬惠酬之維何惠玆東裔▨有魚矣 多黍多稻旣富而庶黃髮壽考維萬億年海晏河淸維萬有▨偕我太平

바다는 왕공(王公)과 같은 지위이면서도 망심제(望沈祭)를 지내는 것은 그 덕을 갚으려는 것이다. 『주역(周易)』「설괘(說卦)」에 이르기를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보다 성한 것이 없다. 물이란 뜻은 불어난다는 윤택하게 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글자가 만들어짐에 있어 두개의 인(人)이 교차되고 일(一)이 가운데 나온 것이 수(水)이다. 일(一)은 수의 시작이고 두 사람은 남녀를 비유한 것으로 음양(陰陽)이 교차되어 물건은 일(一)에서 시작이 된다.

주제(周制)에 네 차례를 지내는데 경칩(驚蟄)에 교(郊)를 인하여 제사지내고 입하(立夏)에 영기(迎氣)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고 백로(白露)엔 우(雩)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고 대한(大寒)엔 향(蜡)으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 한해 모두 네 번 제사를 지낸다. 왕의 양규(兩珪)는 아래로 오촌(五寸)을 둔다. 희생으로는소뢰(少牢) 를 쓰고 폐백(幣帛)은 방색(方色) 으로 하고 왕(王)과 시동(尸童)은 모두 취면(毳冕)을 쓰고 음악은 유(蕤賓)를 연주하고 함종(函鐘) 을 노래하고 대하(大夏)에 춤추기를 다섯 번 한다.

헌기(獻器)는 가지런히 하는 것은 조천(朝踐)을 드리는 것이고 청주(淸酒)는 궤식(饋食)을 드리는 것이다. 후세에 또 동해(東海)에 왕의 작호를 더하여 광덕왕(廣德王)이라고 하였고 서해(西海)를 광윤왕(廣潤王), 남해(南海)를 광리왕(廣利王), 북해(北海)를 광택왕(廣澤王)이라고 하여 제후(諸侯)의 예로 지역안의 악독(嶽瀆)에 제사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동해신묘(東海神廟)가 양양부(襄陽府)의 다스리는 동쪽 10리에 있는데 성상(聖上) 정종(正宗) 24년 어사(御史) 권준(權晙)이 언신(言臣)으로 군현(郡縣)을 갔다가 동해신묘제사(東海神廟齊舍)의 담장이 허물어져 마땅히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민가(民家) 여덟 집이 묘(廟)근처에 살아 모두 철거하여 닭이나 개소리가 서로 들리지 않게 하여 악독(嶽瀆)의 제사에 엄숙하게 하니 사방의 홍수와 가뭄, 질병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렇지만 매우 숭상하고 높이는 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식을 지어 금지하게 하는 날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신(臣) 공철(公轍)이 마침 관동(關東)에 순찰사(巡察使)로 삼가 예부(禮部)가 되어 거행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급히 향축 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을 받들고 일을 거행하는 일에 대하여 듣고 향축(香祝)이 서울에서 와 준(晙)이 차헌관(差獻官)으로 제사를 지냈다.

아! 질병으로 아픈 사람은 반드시 호소하는 것은 사람의 정(情)으로 백성들 중 해신(海神)을 부모처럼 여기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비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제사에는 항상하는 제사가 있으니 저 우리석은 남녀들이 금백(金帛)을 가지고 온자들이 장차 신에게 아첨을 구하는 것은 복을 맞이하려는 예가 점점 불어나면 불어 날수록 넘쳐나 한층 더 고집함이 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바로 신을 지극히 높이고 바른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것이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이다. 마침내 이 일을 기록하고 돌비석에 새겨 그 느낀 것을 푸니 묘우(廟宇)가 때에 따라 보수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유사(有司)를 두었다. 명(銘)하기를,

---

崇禎紀元後庚申閏四月江原道觀察使 南公轍撰

궁(宮)은 훤칠하고
담장을 펼쳐졌네.
제기(祭器)는 아름답고
옥과 비단
환히 술을 따르고 청소를 하여
자리를 펴 사람들을 기쁘게 하네.
신은 모두 취하고 배불리 먹어
신은 이미 안정이 되었네.
어사가 동쪽에서 에서 와서
돌아가 왕께 아뢰네.
악독(嶽瀆)에 제사를 드리니
심제(沈祭)와 망제(望祭)라네.
어리석은 것은 백성들
잠깐이라도 복을 구하려
곡식을 쥐고 돈을 던져
오랫동안 신의 수치를 만드네.
예는 점점 태만해져
신은 돌봄은 대적할 길 없네.
왕께서 방백(方伯)에게 명하여
그 다스림 지금부터 시작이라네.
부사(府使)에 칙명을 내려
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축책(祝册)을 베풀어
이에 어사(御史)에게 명하였네.
크게 우리 왕 드러나
예로서 신을 섬겨
바른대로 백성들 인도하고
사랑은 수 많은 백성들에게 미쳤네.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신은 마땅히 보답하네.

보답함이 어떠한가
우리 동쪽 종족에게 은혜롭네.

많은 물고기
풍요로운 곡식
이미 풍성하고 많고
노인들 장수하고
만억년이 지나도록
바다가 조용하고 황하가 맑아지도록
만년토록
태평하게 하소서.
숭정(崇禎) 기원(紀元) 경신(庚申) 윤(閏) 4월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남공철(南公轍)은 찬(撰)하노라.

『江原道誌』(1940년 9월), 단사(壇祠)
동해신사(東海神祠): 군 동쪽에 있다. 봄가을로 향축을 내여 제사 지낸다.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신사(神社)
신명신사(神明神社): 양양면 남문리에 있다. 대정(大正) 12년(1923) 계해에 건립되었다. 조황대신(照皇大神)을 제사한다.

다음 기록을 고찰해 보면 동해신사가 훼손되어 탐방한 지식인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동해신묘가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풍천의 서해신사와 나주(지금의 영암)의 남해신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해의 해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을 내려 보내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조선조 경종 2년(1722년)과 영조 28년(1752년)에 양양부사 채팽윤과 이성억에 의해 각각 중수 되었으며, 정조 24년(1800년)에는 어사 권준의 상주와 강원도관찰사 남공철의 주장으로 재차 중수되었으나 순종 2년(1908년)에 일본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제향은 세수(歲首)에 별제(別祭)를 올리고, 춘추로 상제(常祭)가 있었다. 1722년(경종 2)에 양양부사 채팽윤과 1752년(영조 28)에 양양부사 이성억이 중수하였다. 1800년(정조 24)에는 어사 권준의 상소에 따라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주관으로 중수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와 백천문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전에 백천문은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암행어사 권준의 장계에서 복원문제를 인지할 수 있다.

정조 24년 경신(1800) 4월 7일(기축) 강원도 암행 어사 권준의 장계에 대해 답하는 전교를 내리다

강원도 삼척(三陟) · 간성(杆城) 등지의 암행 어사 권준(權晙)이 장계하기를,

"신은 간성 경내로 들어가 곧장 고백진(古栢津) 화재 장소에 이르러 상황을 탐문하고 그 전말을 알아보았더니, 69가구가 한꺼번에 불탔는데 휼전(恤典)으로 나누어 지급한 쌀은 29석이었습니다. 불탄 가구가 먹은 환곡(還穀)은, 때마침 섣달을 만나 이미 봉고(封庫)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꺼내어 지급하였는데 그 수량은 각곡 도합 1백 59석이었으며 영읍(營邑)에서도 다 함께 도와서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본 바로는 마을 형태가 이미 이루어져 모두 자리잡고 살 곳을 정한 형편입니다. 그들 가운데 간혹 농사지을 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환곡을 받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창고에 보관해 둘 명목으로 놓아둔 부근 창고의 곡물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에 고백진에서 발길을 돌려 경내의 촌마을로 찾아가 상세히 탐문해 보았더니, 계묘 · 갑진년 이후 조정에서 보살피고 구제해 준 혜택이 본읍에까지 두루 미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공삼(貢蔘)의 일부를 면제한 일, 진결(陳結)을 감면한 일, 포보(砲保)를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도록 한 일, 유랑민에 대해 10년 동안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 일 등은 이 모두 고을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였는데, 그 이후 16년이 된 오늘날 상처가 거의 다 아물고 유랑민도 이미 안정되어 다른 고을에 견주어 볼 때 별다른 폐단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행적을 숨기고 다니면서 보고 들은 일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본군 고백진(古栢津)의 불탄 가구 가운데 군보(軍保)를 띠고 있는 자의 신포(身布)를 이미 다 감면하였으니, 삼척의 불탄 가구 가운데 공천록(公賤錄)에 올려진 역군과 내노(內奴) · 역노(驛奴) 5명도 누구나 차별없이 보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에 비추어 다 함께 신역을 견감해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1. 삼척 후평(後坪) 굴촌(窟村)에 사는 유학(幼學) 김채인(金采仁)의 질녀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스물 일곱 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천(私賤)으로 속량(贖良)을 한 이웃에 사는 정완수(鄭完守)가 그를 맞아들여 아내로 삼고 싶었으나 신분이 서로 맞지 않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석 가락지를 사서 같은 마을의 어린아이를 꼬여 김씨 질녀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기를 "아무개 질녀가 나에게 시집올 것이다. 내가 일찍이 가락지를 사서 줬다." 하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곧 목을 매어 죽어버렸는데 채인은 그 더러운 소문이 역겨워 끝내 덮어두고 말았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들은 뒤에 관가에 들어가 은밀히 물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감영에 보고하기까지 하였고, 감영의 판결문에서도 그 억울한 마음을 밝히긴 하였습니다만 완수는 곤장만 쳐서 석방하였습니다. 불가불 한번 다시

조사하여 그 사실을 캐낸 다음에 완수를 무고죄로 조율하여 억울하게 죽은 넋으로 하여금 참된 심정을 밝히게 해야겠습니다.

1. 간성(杆城)에서 해척(海尺) 11인과 선격군(船格軍) 77인이 지난해 정월 11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 한꺼번에 침몰하였으나 시신을 건져내기 전에는 생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에 장계를 올리지도 못하고 휼전(恤典) 또한 제급(題給)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월달에 추위가 매섭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니, 그들이 익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이 보고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아비 잃은 어린 자식과 남편을 잃은 홀어미가 소리를 삼켜가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해상에서 제사를 지내 구슬픈 넋을 위로하게 하고 특별히 선세(船稅)를 견감하여 백징(白徵)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소서.

1. 양양(襄陽)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다.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 복을 빌어 영락 없는 음사(淫祠)로 변하였다. 게다가 전 홍천 현감(洪川縣監) 최창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닭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 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짓는 연기가 바로 곁에서 피어 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져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잡히는 고기도 매우 양이 적은데, 해변 사람들이 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중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살펴보니, 간성 백성들 또한 살 곳으로 나아가 안정되게 살아갈 가망이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덧붙여 아뢴 여러 조항 가운데 첫 조항은 사실 옳은 말이다. 즉시 문건을 만들어 감사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고을 수령에게 분부하여 간성 고백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역을 견감해 주도록 하라. 삼척 후평 굴암촌(窟巖村)의 조사할 일 또한 감사에게 철저히 조사 처

결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간성 해변 마을에서 1백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바다에 빠져 버렸는데도 아직까지 조정에 알리지 않으면서 어찌 생사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시 감사로 하여금 지방관을 엄중히 지시하여 제단을 설치, 위문제를 행하도록 하고, 선세(船稅)도 장청(狀請)대로 거행하라.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 보고하면 권준을 헌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빌게 하겠다.

일찍이 들은 바로는 양양·간성에서 은어(銀魚)를 잡아 바치는 폐단은 백성의 큰 고통이라 했는데, 그대는 이번 걸음에서 어찌 장계에다 거론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산물로서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일이며 게다가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뜻으로 말하더라도 양양은 그나마 해당되는 고을이라 할 수 있으나 간성은 참으로 부당하다. 이 문제를 항상 규정으로 정하려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그대가 마침 영동에 어명을 받고 나간 김에 우선 두 고을 은어에 대하여 궁중에 바치는 것이거나 감영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전복을 잡지 말도록 한 제주(濟州)의 규례에 의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봉진(封進)과 복정(卜定)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고을에서라도 만일 한 마리라도 사들여 쓰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고을 수령을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의 은결죄(隱結罪)로 다스리겠다."
하였다.[29)]

29) 正祖實錄』 江原道 三陟、杆城等暗行御史權睃狀啓言.
臣入杆城境, 直抵古栢津火燒處, 探問事勢, 審視形止, 則延燒六十九家, 而恤典分給米爲二十九石零. 燒戶所食還穀, 時値臘月已封庫, 故出給之數, 各穀爲一百五十九石零, 營邑亦皆有助給. 以今所見, 聚落旣成, 皆已奠接. 其中或有農糧難辦, 而自願受還者, 故以附近倉穀留庫條分給. 而自古栢津, 轉尋境內村閭, 詳細訪問, 則蓋自癸甲以後, 朝家存恤之澤, 偏及於本邑. 貢蔘之蠲除, 陳結之減免, 砲保之給代, 流民之限十年勿侵雜役, 皆是邑民再生之秋, 而去今十六年之間, 瘡痍幾盡甦醒, 流寓亦旣安集, 比之他邑, 還爲無弊. 外此潛跡時所聞見, 開錄于左. 一, 本郡古栢津燒戶中, 有帶軍保者, 身布旣皆蠲免, 則三陟燒戶, 亦有案付軍與內奴、驛奴合五名, 其在一視之義, 竝爲蠲役, 恐合事宜. 一, 三陟 後坪窟村居幼學金采仁姪女, 幼失父母, 年至二十七而未嫁, 隣居鄭完守以私賤贖良者, 欲娶之爲妻, 而地不相適, 不敢生意, 誘同里小兒, 買給錫指環於金女, 號於衆曰, '某女當歸于我. 我嘗買給指環.' 女聞其言, 仍卽縊死, 采仁, 惡其醜名, 遂爲掩置. 後入官家廉問, 捧招各人, 至有報營之擧, 營題亦已白其心, 而但完守則杖而釋之. 不可不一番更查, 得其直情然後, 完守則照以誣人之律, 使冤死之魂, 得以暴其本情. 一, 杆城海尺十一, 船格軍七十七人, 昨年正月十一日, 捉魚入海, 猝遇急風, 一時漂沒, 而以屍身拯得前, 生死未分, 不得狀聞, 恤典亦不得題給云. 而時値正月, 寒威太酷, 惡風大發, 則其爲淹死, 丁寧無疑. 以臣所聞見言之, 孤兒寡婦, 呑聲掩泣, 有不忍見. 分付道臣, 設祭海上, 以慰啾啾之魂, 特蠲船稅, 俾無白徵之冤. 一, 襄陽 洛山津, 有東海神廟, 享禮在於國典, 則其爲所重如何, 而近年以來爲祭官者, 全欠致敬, 牲豆不潔, 往來商旅, 輒事祈禱, 便成淫祠, 重以前洪川縣監崔昌迪家, 在於神廟至近之地, 鷄犬糞穢, 雜遝於其間, 村里烟火, 繚繞於逼側. 神人狎處, 殊非敬遠之義. 近來風濤險惡, 人物間多淹沒, 魚産亦甚絶貴, 沿海人言, 皆云職此之由. 語涉傳會, 不足爲經, 其在敬神明重祀典之道, 不可仍置. 分付道臣, 重新其廟, 使之潔淨, 享祀之具, 亦必申飭, 凡係淫禱, 一切禁斷, 廟前人家, 亟命撤去. 敎曰, 觀此狀本, 杆民亦有就次奠居之望, 甚可幸也. 附陳諸條中, 首條果然. 卽爲文移道伯, 或分付邑倅, 一依杆城 古栢之例蠲役. 三陟 後坪 窟巖村査事, 亦付之道臣, 拔例査決狀聞. 杆城海戶近百名淹沒之, 尙無登聞, 豈可謂之生死未分乎? 卽令道臣, 嚴飭地方官, 設壇慰侑, 船稅依狀請擧行. 襄陽 洛山津東海神廟事, 亦依狀請修補後, 道伯狀聞, 則當差爾爲獻官, 設祭以祈襄民之若昔富盛. 嘗聞襄、杆銀口魚捉納之弊, 爲小民切苦, 而爾於今行, 何不擧論於狀本乎? 以無用之物, 爲難矯之端者, 已無意味, 且以任土之義言之, 襄猶該邑, 杆尤不當. 此一款每欲定式而未果, 爾適銜命嶺東, 先從兩邑銀口魚, 無論供御與營用, 依濟州折大全鰒勿捉之例, 更勿擧論. 不但不爲封進與卜定而已, 雖自該邑, 若有一尾貿用之弊, 該守令, 施以均廳隱結之律.

· 허균이 1605년에 쓴 「중수동해용왕비문」은 글과 남공철(南公轍)에 의한 「동해신묘중수기사급명(東海神廟重修記事及銘)」(1800년)만이 전해오고 있다.

·『日省錄』 정조 24년 경신(1800) 4월 7일(기축)

삼척(三陟)의 화재를 당한 민호(民戶) 중에서 신역(身役)을 진 자는 감면해 주고, 삼척부 후평(後坪) 굴암촌(窟巖村)의 조사하는 일은 도신에게 넘겨 특례로 조사하여 처결하게 하고, 간성(杆城)의 물에 빠져 죽은 해호(海戶)에 대해서는 단(壇)을 설치하여 위령제를 지내 준 뒤 선세(船稅)는 사고로 처리하여 면제해 주고, 양양(襄陽)의 동해신묘(東海神廟)를 신칙하여 보수(補修)하고, 양양과 간성 두 읍의 은구어(銀口魚)는 공어(供御)든 영문(營門)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막론하고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俛宇集』卷之四 詩, 東遊錄 謁東海神廟

大東宅巨浸ᄋᆞ泱漭一元儲ᄋᆞ雲濶扶桑域ᄋᆞ星漂析木墟ᄋᆞ牲禋通肅穆ᄋᆞ蠢的愧狂踈ᄋᆞ年年風雨晏ᄋᆞ環海賴安居ᄋᆞ

조선 순종 2년(1908년)에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철(毁撤)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철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한다.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 1동이 건립 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났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 2000년 1월 22일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5. 결론

양양은 선사시대부터 강과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며 자연스럽게 용왕숭배사상이 생성되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낙산사 창건설화와 관련 있는 용왕설화이다.

동해용왕의 상주처인 양양은 삼국시대부터 신성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동해신사(東海神祠)로, 역사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로 올수록 신사(神祠)가 성리학의 영향으로 동해신사의 신성성이 폄하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正祖實錄』 54권, 정조 24년 4월 7일 己丑

『정조실록』 정조 24년(1800)권준의 장계에서 지적하고 있고, 허목은 이미 치제의 예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제의가 성리학의 이념에 의해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 전기는 통치이념이 엄격하게 유지되었지만 후기로 오면서 시대적 흐름에 의해 해이해졌다.

하지만 어촌의 용왕숭배사상은 오늘날까지 강한 생명력으로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어촌의 공동체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해신사(東海神祠)는 국가주관 제사로 『고려사』를 시작으로 사서, 지리지, 각종 읍지 등 수많은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동해신사의 명칭과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양양문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

『世祖實錄』

『正祖實錄』

『記言』

『惺所覆瓿稿』

『동문선』

『輿載撮要』

『江原道誌』

『峴山誌』

『關東誌』

『新增東國輿地勝覽』

강릉대박물관, 『양양 동해신묘』, 학연문화사, 1999

강릉대박물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연문화사, 1994

양양문화원, 『향토지』, 1976

양주편찬위원회, 『양주지』, 강원일보사 출판국, 1990

양양향교, 『양양의 향교지』, 대보사, 1999,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자료.

지현병 외, 양양 동해신묘, 강릉대박물관, 1999.

김상태, 남해신사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고찰, 문화재 통권 44호, 국립문화제연구원, 2009.

주제발표 3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

김 상 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

김 상 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 서론
2. 단묘건축과 악(嶽)·해(海)·독(瀆) 단묘건축
 2.1 단묘건축의 개념과 분류
 2.2 악·해·독 단묘건축의 위치고찰
 2.3 악해독의 단묘건축의 건축현황과 특징
3. 동해신묘의 인문현황과 건축특성
 3.1 동해신묘의 문헌현황
 3.2 동해신묘의 지도현황
 3.3 동해신묘의 건축현황
 3.4 동해신묘의 발굴조사 현황
4. 동해신묘의 정비방향
 4.1 악·해·독 단묘건축의 발굴조사와 정비사례
 4.2 동해신묘 정전의 문제인식과 발굴조사 결과
 4.3 동해신묘 정비방향 제언
5. 결론

1. 서론

동해신묘는 조선시대 동해를 지키는 동해신을 치제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에 설립한 단묘건축으로 국가가 제사를 주관하는 국가제의시설이다. 악·해·독 단묘건축 중 하나로 나주 영암 남해신사, 해주 풍천의 서해신사와 더불어 삼대 해신사이다.

조선시대 단묘건축은 중요도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구분하여 치제를 하였는데, 악·해·독 사묘건축은 고려시대에서는 소사로, 조선시대는 소사에서 중사, 그리고 지방 도의 치제로 시대에 따라 제사규모가 변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동해신묘의 위상과 위치의 문제점, 복원된 건축의 진정성 문제 등의 배경으로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를 통하여 동해신묘의 현 건축에 대한 분석 및 건축특성 도출과 그 연구결과에 따른 차후의 정비방향에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건축특성과 정비방향에 대한 제안은 차후 정비계획에 보다 명확한 이론적 바탕과 진정성과 완정성 회복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단묘건축과 악(嶽)·해(海)·독(瀆) 단묘건축

2.1 단묘건축의 개념과 분류

단묘건축의 정의는 유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개념으로 단(壇)은 지붕이 없는 1단 내지 2단의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며, 묘(廟)는 지붕이 있는 건물로 유교적 신위를 모신 묘당(廟堂), 신당(神堂), 사우(祠宇) 등으로 표현된다. 단묘건축을 사묘건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사묘건축은 주로 실질적인 건물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묘건축의 사(祀)는 제사를 지내는 터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의 의미도 있어서, 단묘건축과 사묘건축은 그 의미와 사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제단으로 된 사묘건축일 경우 단(壇)의 의미가 강조되어 단묘건축으로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단묘건축으로 분류한다.

예제건축은 단묘건축의 또 다른 명칭이다. 조선시대는 국가의 제례를 법과 의례로 정하여 유교국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제례관련 건축을 배치, 규모와 구조, 장식에 이르는 건축의 기본적인 규범을 유교 예법을 근거로 하여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에 그림과 글로 기록하였다. 예제는 이와 같은 제례의식을 예법으로 정한 것으로, 단묘건축은 국조오례의 중 길례에 해당하는 건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제건축이 단묘건축보다 큰 범주의 영역으로 단묘건축이 예제건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단묘건축 분류는 시기적으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초기에서 조선후기, 그리고 고종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삼국시대에서 고종대까지 단묘건축의 전개를 비교한 표이다.[1)]

〈표 1〉 단묘건축의 시기에 따른 규모 분류

시대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	기타
삼국시대 ~ 통일신라	三山 : 一奈歷部 二骨火 三穴禮	五岳 : 東吐含山, 南地理山, 西雞龍山, 北太伯山, 中父岳 四鎭 : 東溫沫慕, 南海耻也里, 西加耶岬岳, 北熊谷岳 四海 東阿等邊, 南兄邊, 西未陵邊, 北非禮山 四瀆 : 東吐只河, 南黃山河, 西熊川河, 北漢山河, 俗離岳, 推心, 上助音居西 烏西岳, 北兄山城 淸海鎭	霜岳, 雪岳, 花岳, 鉗岳, 負兒岳, 月奈岳, 武珍岳, 西多山, 月見山, 道西城, 冬老岳, 竹旨, 熊只, 岳髮, 于火, 三岐, 卉黃, 高墟, 嘉阿岳, 波只谷原岳, 非藥岳, 加林城, 加良岳, 西述	종묘(宗廟), 사직(社稷) 선농(先農), 중농(中農) 후농(後農), 풍백(風伯) 우사(雨師), 영성(靈星) 사성문제(四城門祭)

1) 김상태, 단묘건축 양식과 남악사, 구례남악사지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 구례군·나라문화재연구원, 2022.02.18., pp.33~34

시대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	기타
고려시대	환구(圜丘) 방택(方澤) 사직(社稷) 태묘(太廟) 별묘(別廟) 경령전(景靈殿) 제릉(齊陵)	적전(藉田) 선잠(先蠶) 문선왕묘(文宣王廟)	풍사(風師), 우사(雨師) 뇌신(雷神), 영성(靈星)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사한(司寒), 잡사(雜祀) 제주현(諸州縣) 문선왕묘(文宣王廟),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 제례(祭禮)	
태종 13년 1413년	사직(社稷) 종묘(宗廟) 별묘(別廟)	선농(先農) 선잠(先蠶) 문선왕(文宣王) 풍운뇌우(風雲雷雨) 산천(山川) 성황(城隍)	풍사(風師), 우사(雨師) 뇌사(雷師), 영성(靈星) 사한(司寒),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보(馬步) 마사(馬社), 영제(禜祭) 칠사(七祀)	
고종 33년 1896년	원구단(圜丘壇)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사직단(社稷壇) 대보단(大報壇)	경모궁(景慕宮) 문묘(文廟) 미성(尾星) 기성(箕星)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雩祀) 관왕묘(關王廟)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 사한(司寒) 중류(中霤), 계성사(啓聖祠), 사현사(四賢祠), 선무사(宣武祠), 정무사(靖武祠), 독제(纛祭), 여제(厲祭) 성황제(城隍祭), 마조(馬祖), 기우(祈雨) 영제(禜祭), 기설(祈雪)	속례(俗禮): 영희전(永禧殿), 준원전(濬源殿), 화녕전(華寧殿) 각 능원(陵園)·현륭원(顯隆園)·조경묘(肇慶廟)·각 묘(廟)와 궁(宮) 도(道) 제사 규정: 만동묘(萬東廟), 역대 시조(始祖), 기자릉(箕子陵), 동명왕릉(東明王陵), 삼성사(三聖祠), 성신사(城神祠), 무열사(武烈祠), 정충단(旌忠壇), 풍운뇌우(風雲雷雨)

통일신라 때 단묘건축은 전국의 명산과 대천을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기사는『삼국사기』권 제32 잡지(雜志) 제1 제사 악(祭祀 樂)편 중, 제사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다음은 기사의 내용이다.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大祀

三山 一奈歷(習比部) 二骨火(切也火郡) 三穴禮(大城郡)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 西雞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已郡) 中父岳(一云公山 押督郡) 四鎭 東溫沫慤(牙谷停) 南海耻也里(一云悉帝 推火郡) 西加耶岬岳(馬尸山郡) 北熊谷岳(比烈忽郡) 四海 東阿等邊(一云斤烏兄邊 退火郡) 南兄邊(居柒山郡) 西未陵邊(屎山郡) 北非禮山(悉直郡) 四瀆 東吐只河(一云梨浦 退火郡) 南黃山河(歃良州) 西熊川河(熊川州) 北漢山河(漢山州) 俗離岳(三年山郡) 推心(大加耶郡) 上助音居西(西林郡) 烏西岳(結已郡) 北兄山城(大城郡) 淸海鎭

(助音島)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迂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難知可縣) 月見山(奈吐郡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熊只縣) 岳髮(一云髮岳 于珍也郡) 于火(生西良郡于火縣) 三岐(大城郡) 卉黃(牟梁) 高墟(沙梁) 嘉阿岳(三年山郡) 波只谷原岳(阿支縣) 非藥岳(退火郡) 加林城(加林縣 一本有靈嵒山·虞風山 無加林城) 加良岳(菁州) 西述(牟梁) …”

상기의 기사를 살펴보면, 대사는 삼산으로 신라 경주 주변을 보호하는 산, 혹은 신라 국토에서 주요한 3곳의 산을 삼산으로 하여 재사의 제례를 지냈다고 하며, 중악은 오악 · 4진 · 4해 · 4독의 명산대천에 대하여 제사를 지냈고, 소사는 그 외의 지역에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해신묘가 속하는 의미의 사해(四海)에서, 동해는 아등변으로 퇴화군은 현재 포항지역이다. 남해는 부산 동래, 서해는 군산, 북해는 삼척지역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해신사 위치와 차이가 있다. 이는 당시 영토와 연관이 있다. 조선시대 세조 2년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는 당시의 동해·남해·서해의 신사의 위치가 개성을 중심으로 정한 곳이기 때문에 “동해신(東海神)을 강릉(江陵)에, 서해(西海)는 인천(仁川)에, 남해(南海)는 순천(順天)에, 북해(北海)는 갑산(甲山)”[2] 으로 옮기는 것을 상소한 기록이 있다. 이는 각 시대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방위를 결정하여 악(嶽) · 해(海) · 독(瀆)의 위치를 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조선시대 대사로 분류된 종묘와 사직은 신라에도 종묘의 경우 2대 남해왕 대의 시조 혁거세 사당건립과 22대 지증왕의 신궁설립, 36대 혜공왕대의 5묘 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직은 37대 선덕왕대에 세웠음이 기술되어 있다. 조선시대 소사의 경우, 신라 또한 선농(先農) · 중농(中農) · 후농(後農) · 풍백(風伯) · 우사(雨師), 영성(靈星)을 치제하였음이 기술되어 있으며, 사성문제(四城門祭)를 지내 도성의 안위를 위한 특별제도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단묘건축은『고려사(高麗史)』권59 지(志) 권제13 예(禮) 1에서 권63 지(志) 권제17 예(禮) 5까지 기술되어있다. 예1(禮 一)에서는 길례대사로 환구(圜丘) · 방택(方澤) · 사직(社稷)을, 예2(禮 二)에서는 길례대사(吉禮大祀) 태묘(太廟)를, 예3(禮 三)은 태묘(太廟) · 별묘(別廟) · 경령전(景靈殿) · 제릉(齊陵)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예4(禮 四)는 길례중사(吉禮中祀)

2)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 정유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 … 一, 岳、鎭、海、瀆。 蓋一代之興, 必有一代之制, 本朝岳鎭海瀆名山大川之祀, 皆倣三國及前朝之舊而爲之, 多有可議者焉。 龍興江我太祖興運之地, 至於妙香山 檀君所起, 九月山有檀君祠, 太白山神祠所在, 金剛山名聞天下, 長白山在先春嶺之南甲山之北, 實爲國之北岳。 臨津國之西關, 龍津國之東關, 洛東江 慶尙大川, 蟾津 全羅大川, 博川江卽古大寧江, 以至菩提津、五臺山, 皆不在祀典。且東、南、西海神祠, 皆自開城而定之, 亦乖方位, 乞命禮官詳加考定, 以三角山爲中岳, 金剛山爲東岳, 九月山爲西岳, 智異山爲南岳, 長白山爲北岳, 白岳山爲中鎭, 太白山爲東鎭, 松岳山爲西鎭, 錦城山爲南鎭, 妙香山爲北鎭。又移祭東海神於江陵, 西海於仁川, 南海於順天, 北海 【鴨綠江上流】 於甲山, 以龍津爲東瀆, 大同江爲西瀆, 漢江爲南瀆, 豆滿江爲北瀆。又以木覓山、紺岳山、五冠山、雞龍山、雉岳山、五臺山、義館嶺、竹嶺山爲名山, 熊津、臨津、菩提津、龍興江、淸川江、博川江、洛東江、蟾津爲大川, 依例致祭, 【楊津二處、德津二處、伽耶津、主屹山、亏弗山、牛耳山、鼻白山、長山串、阿斯津、松串、沸流水、九津、溺水可革】 以新一代祀典。 是則山川之載祀典者, 古今皆三十四, 而仍舊者十七, 移祭者四, 新陞者十三, 可永革者亦十三矣。…”

로 적전(藉田) · 선잠(先蠶) · 문선왕묘(文宣王廟)를 기술하였다. 예5(禮 五)는 길례소사(吉禮小祀)로 풍사(風師)·우사(雨師)·뇌신(雷神)·영성(靈星)과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사한(司寒), 제주현(諸州縣) 문선왕묘(文宣王廟),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 제례(祭禮), 그리고 잡사(雜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상 고려사 기사를 통해 고려는 유교 중심의 예제영향과 황제국의 위상으로 인하여 대사에 환구가 도입되었으며, 중사에서는 문선왕묘 즉 성균관의 문묘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사에서는 본 연구대상인 악 · 해 · 독과 위상이 유사한 풍사 · 우사 · 뇌신 · 영성이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해신사가 운영되었던 점을 보면 악 · 해 · 독은 소사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고려사에는 풍사의 규모를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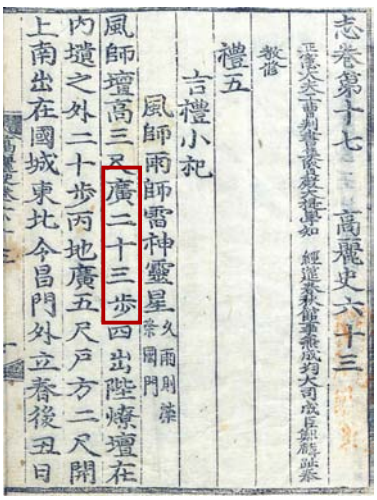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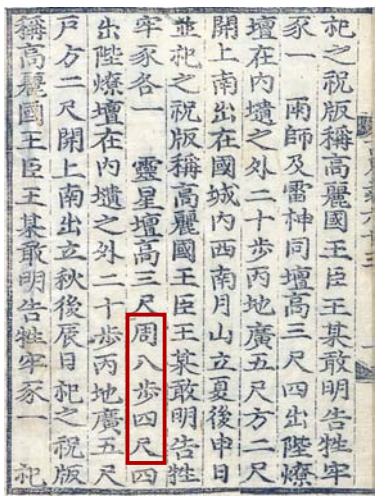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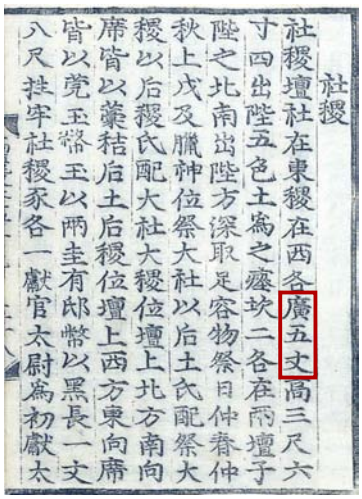
> "풍사단(風師壇). 높이가 3척이고 너비가 23보이며, 사방으로 계단을 둔다. 요단(燎壇)은 안쪽 유(壝)의 바깥에서 20보 떨어진 남쪽[丙地]에 두되, 너비를 5척으로 하고 출입구[戶]는 사방 2척으로 하여 위를 틔우고 남쪽으로 출입한다." -『고려사(高麗史)』 권63 지(志) 권제17 예(禮) 5 풍사·우사·뇌신·영성

여기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너비이다. 23보는 1보가 주척으로 6척이므로, 23보는 주척 138척이다. 1주척이 20.7~8㎝단의 너비는 28.7~8미터이다. 제단으로 하기 에는 너무 큰 규모이다. 조선시대 중사규모인 풍우단과 악 · 해 · 독단의 규모는 2장3척 즉 23척이다. 현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세종시대 1척 32.21㎝를 23척으로 하면 7.4m이다. 고려시대 제단규모가 조선시대보다 규모가 큰 것을 감안하여도 상대적으로 거대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23보를 23척으로 환산하면 고려시대 영조척이 30㎝전후로 6.9m이다. 고려사에서 영성단 둘레가 8보4척으로 주척52척으로 현대 길이로 환산하면, 10.76m이며, 한 변이 2.69m이다. 일반적으로 풍사가 영성단보다 큰 것을 감안하여도 28m는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이다.[3] 따라서 고려사에서의 풍우단 너비는 오기로 판단할 수 있다. 광(廣)이 아닌 영성단과 같이 주(周)로 하면 한 변이 7.2m정도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이다.

조선시대 단묘건축의 분류와 규모는 국조오례의의 구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사의 규모를 대사(大祀) · 중사(中祀) · 소사(小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는데, 대사에는 종묘와 사직이 있으며, 중사는 풍 · 운 · 뇌 · 우, 악 · 해 · 독, 선농, 선잠, 우사, 문선왕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소사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여제와 명산대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고려사에서 대사인 사직은 길이가 5장, 중사인 선농적전은 3장이다. 따라서 소사인 풍사와 우사, 뇌신의 규모를 23보를 23척으로 가정하면, 6.9m, 23보를 둘레로 가정하면 7.2m이다.

〈표 2〉 고려사에서의 단묘건축의 규모

소사(小祀) 풍우단 규모	소사(小祀) 영성단 규모	대사(大祀) 사직단의 규모
		

조선 초기 각종 법과 규정을 정할 때 단묘건축의 분류와 규모를 정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13년인 1413년 4월 예조에서는 여러 제사의 제도에 대한 규정을 상정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삼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살피건대, 사직(社稷)·종묘(宗廟)·별묘(別廟)는 대사(大祀)가 되고, 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文宣王)은 중사(中祀)가 되며, 풍사(風師)·우사(雨師)·뇌사(雷師)·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보(馬步)·마사(馬社)·영제(禜祭)·칠사(七祀)와 주현(州縣)의 문선왕은 소사(小祀)가 됩니다. 신 등이 두루 고전(古典)과 전조를 상고하니, 참작(參酌)이 적중함을 얻었으나, 단지 풍사·우사만은 당(唐)나라 천보(天寶) 연간(年間) 때부터 그 시(時)를 건지고 물(物)을 기른 공을 논하여, 올려서 중사로 들어갔고 동시에 뇌사도 제사하였는데, 당나라가 끝나고 송(宋)나라를 거치는 동안은 감히 의논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명(明)나라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운사(雲師)를 더하여 부르기를, '풍운뇌우(風雲雷雨)의 신(神)'이라 하여, 산천(山川)·성황(城隍)과 함께 한 단(壇)에서 제사하였는데, 지금 본국(本國)에서도 이 제도를 준용(遵用)합니다. 또 문선왕은 국학(國學)에서는 중사가 되나 주현(州縣)에서는 소사가 되니 의(義)에 있어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송제(宋制)에는 주현의 석전(釋奠)도 중사로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풍운뇌우의 신을 올려 중사에 넣어 산천·성황과 같이 제사하고, 주현의 석전도 중사로 올리게 하소서. 그 나머지 여러 제사의 등제(等第)는 한결같이 전조 상정례(詳定禮)에 의거하소서." 4) 이다.

4)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4월 13일 신유 1번째 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1413년 영락(永樂) 11년
"辛酉/禮曹上諸祀之制。 啓曰: "謹按前朝《詳定古今禮》, 社稷、宗廟、別廟爲大祀, 先農、先蠶、文宣王爲中祀, 風師、雨師、雷師、靈星、司寒、馬祖、先牧、馬步、馬社、禜祭七祀、州縣文宣王爲小祀。 臣等歷稽古典, 前朝參酌得中, 但風

태종은 상기의 제도를 허가하여 조선 초기 단묘제도의 대상을 정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풍우뇌운과 산천, 성황 그리고 주현의 문성왕은 소사로 치제하였는데, 중사규모로 승격하여 정하자는 예조의 상정을 왕이 허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단묘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세종 12년인 1430년에 정비되는데,『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 12년 12월 8일에 기록된 단묘의 규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도의 단유(壇壝)의 체제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을 쌓지 아니한 곳도 있어서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서 짓밟아서 더럽혀 놓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제사의 의식[諸祀儀式]을 보면, '큰 제사[大祀]인 사직단(社稷壇)은 사방 2장(仗) 5척(尺)·높이 3척 사방으로 낸 계단[階]이 3층씩이며, 양쪽으로 작은 담[壝]을 친다. 자[尺]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중간 제사[中祀]인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과 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우사단(雩祀壇)은 모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이요, 작은 담이 둘이다. 작은 제사[小祀]인 영성단(靈星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마보단(馬步壇)은 모두 넓이가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요, 작은 담이 하나다. 묻는 구덩이는 모두 묘단(廟壇)의 북쪽 임방(壬方)의 땅에 있게 하되, 남쪽으로 계단을 내고, 네모지고 깊게 하여 물건을 넣어 둘 만하게 만든다. 그 제도는 벽돌을 층이 지게 쌓아 올려서 조그마한 천정(天井)을 만드는데, 깊이와 넓이를 3, 4척쯤 되게 하고, 그 남쪽에 밟고 오르내리는 통로를 만들어서, 일이 없을 때에는 흙을 매워 두고, 제사지낼 때에는 흙을 파내고 깨끗이 소제하였다가, 제사를 마치면 사람을 시켜서 폐백과 축판(祝版) 등속을 가지고 밟고 다니는 길로 내려가서 구덩이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흙을 부어서 꼭꼭 다지고 예에 따라 사람을 두고 지키게 한다.'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묘(祠廟)가 없는 중간 제사[中祀]인 악해독단(嶽海瀆壇)은 풍운뇌우단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3척, 높이 2척 7촌, 작은 담[壝]을 둘로 하고, 작은 제사[小祀]인 명산대천단(名山大川壇)과 각 고을에서 제사지내는 제단(祭壇)은 영성단(靈星壇)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1척, 높이 2척 5촌, 작은 담을 하나로 하고, 사방으로 계단을 내되 3층씩 쌓아 올리고, 묻는 구덩이도 위의 구덩이의 체제에 의하여 만들게 하소서."[5]

이상의 기사를 통해 대사의 규모는 사방 길이가 2장 5척(25척), 높이는 3척, 계단은 3단으로

師雨師, 自唐 天寶年間, 論其濟時育物之功, 陞入中祀, 幷祭雷師。 終唐歷宋, 無敢議者。 皇明 《洪武禮制》, 增雲師, 號曰風雲雷雨之神, 與山川城隍, 同祭一壇。 今本國遵用此制。 且文宣王, 在國學爲中祀, 在州縣爲小祀, 於義未安, 故宋制州縣釋奠, 亦爲中祀。 伏望風雲雷雨之神, 陞入中祀, 山川城隍同祭; 州縣釋奠, 亦陞中祀, 其餘諸祀等第, 一依前朝《詳定禮》。" 從之"

5)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8일 갑술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禮曹啓: "各道壇壝體制, 非唯長廣高低不一, 或無垣墻, 人畜頗踏毁汚穢。 謹稽本朝諸祀儀式, 大祀社稷壇, 方二丈五尺、高三尺, 四出陛各三級兩壝, 尺用營造尺。 中祀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壇, 竝方二丈三尺、高二尺七寸兩壝。 小祀靈星、馬祖、先牧、馬社、馬步壇, 竝廣二丈一尺、高二尺五寸一壝。 凡瘞坎, 皆在廟壇之北壬地, 南出陛, 方深取足容物, 其制用磚石砌作一小天井, 深闊三四尺許。 其南作踏道上下, 閑時以土實之, 臨祭取去土掃令潔淨, 祭(卑), 使人持幣及祝版之屬, 從踏道下送入坎中, 然後下土築實, 依例差人守視。 請無祠廟中祀嶽海、瀆壇, 依風雲雷雨壇制, 方二丈三尺、高二尺七寸兩壝; 小祀名山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高二尺五寸一壝, 四出陛各三級造築, 而瘞坎亦依上項瘞坎體制造作。" 從之。"

하였다. 중사는 사방 길이가 2장 3척(23척), 높이는 2척 7촌으로 하였으며, 소사는 사방 길이가 2장 1척(21척), 높이는 2척 5촌으로 정하였다. 세종 12년에는 영조척이 32.21㎝에서 31.22㎝로 변하는 시기이다. 영조척을 32.21㎝로 환산하면, 대사는 사방길이 805.25㎝ · 높이 96.63㎝, 중사는 사방길이 740.83㎝ · 높이 86.967㎝, 소사는 사방길이 676.41㎝ · 높이 80.525㎝이다. 또한 영조척을 31.22㎝로 환산하면, 대사는 사방길이 780.5㎝ · 높이 93.66㎝, 중사는 사방길이 718.06㎝ · 높이 84.294㎝, 소사는 사방길이 655.62㎝ · 높이 78.05㎝이다.[6)]

조선시대의 단묘건축의 변화는 크게 두 차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종 13년의 대사 · 중사 · 소사의 분류이고, 두 번째는 1896년 고종 33년의 대한제국 시기의 재분류체계이다. 다음은 고종 33년 고종실록 34권의 내용이다.

> “…十四日° 宮內府大臣李載純以"欽奉詔勅旨意, 太廟′ 殿′ 宮各陵′ 園祭享, 一遵舊式, 圜丘′ 社稷′ 諸山川′ 諸廟享祀則臣與掌禮卿參酌釐正° 別單開錄"上奏° 大中小祀別單: 圜丘 【天地從祀風雲雷雨國內山川° 冬至合祭, 正月上辛祈穀° 】, 宗廟 【四孟朔上旬′ 臘享′ 俗節′ 朔′ 望】, 永寧殿 【春秋孟朔上旬】, 社稷 【春秋仲朔上戊】, 大報壇 【三月上旬】° 已上大祀° 景慕宮 【四仲朔上旬′ 臘享′ 俗節′ 朔′ 望】, 文廟 【春秋仲朔上丁】, 尾箕星 【正月上寅】, 先農 【驚蟄後亥日】, 先蠶 【季春上巳】, 雩祀 【孟夏朔日】, 關王廟 【驚蟄′ 霜降】, 已上中祀° 三角山′ 木覓山′ 漢江 【竝春秋仲月】, 司寒 【春分十二月上旬】, 中霤 【季夏土旺日】, 啓聖祠 【春秋仲月上巳】, 四賢祠 【春秋仲月中丁】, 宣武祠 【三月中丁】, 靖武祠 【八月中丁】, 纛祭 【驚蟄′ 霜降】, 厲祭城隍祭 【淸明十月朔日】, 馬祖 【二月中氣後剛日】, 祈雨禜祭祈雪 【竝不常設行° 】° 已上小祀° 永禧殿′ 濬源殿 【竝俗節′ 臘享】° 華寧殿, 【誕辰′ 臘享】, 各陵園 【忌辰′ 俗節° 顯隆園外各園無冬至° ○祧位只寒食° 】, 肇慶廟 【春秋仲月上旬】, 各廟宮 【俗節′ 春·秋分′ 夏·冬至° ○祧位, 只春秋分° 】° 已上俗禮° 萬東廟 【九月】, 歷代始祖 【春秋仲月】, 箕子陵′ 東明王陵 【竝寒食】, 三聖祠 【八月】, 城神祠 【正月】, 武烈祠 【三月仲丁】, 旌忠壇 【三月上旬】, 風雲雷雨, 【濟州秋社日】° 已上外道祀典° ”[7)]

상기의 기사를 통해 재분류된 대사 · 중사 · 소사 규정을 살펴보면, 대사(大祀)는 원구단, 종묘(宗廟) , 영녕전(永寧殿) , 사직단(社稷壇), 대보단(大報壇)이고, 중사(中祀)는 경모궁(景慕宮), 문묘(文廟), 미성(尾星), 기성(箕星),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雩祀), 관왕묘(關王廟)이다. 소사(小祀)는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 사한(司寒), 중류(中霤), 계성사(啓聖祠), 사현사(四賢祠), 선무사(宣武祠), 정무사(靖武祠), 독제(纛祭), 여제(厲祭), 성황제(城隍祭), 마조(馬祖), 기우(祈雨), 영제(禜祭), 기설(祈雪) 이다. 이 기사에서의 특징은 대사에서 원구단과 대보단의 추가이며, 중사에서는 경모궁과 관왕묘의 추가, 소사에서는 악해독의 단묘가 중사에서 소사

6) 김상태, 단묘건축 양식과 남악사, 구례남악사지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 구례군 · 나라문화재연구원, 2022.02.18., pp.30~31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8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로 변경이 발생한 점이다. 또한 풍운뇌우의 경우 지방의 도(道)의 제사 규정으로 변경한 점을 들 수 있다. 고종대의 변화는 대한제국 황제로서 원구단의 설치와 임진란 이후 대보단과 관왕묘의 설치가 주된 이유였음을 알 수 있고, 기존의 악해독과 풍운뇌우의 소사와 지방 도 제사규정으로 위계변화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8)]

단묘건축을 대사 · 중사 · 소사로 구분하여 분류하면, 대사규모의 단묘건축은 종묘 · 사직 · 원구단 등이 있으며, 중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문묘 · 선농 · 선잠 · 풍운뇌우 · 악해독의 산천 · 성황 등이며, 소사는 풍사 · 우사 · 뇌사 · 영성 · 사한 · 영제 · 칠사 등의 기후와 마조 · 선목 · 마보 · 마사 등의 말과 관련한 제사시설이다.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건축문화재로 국가문화재와 시 · 도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사(大祀)는 서울 종묘와 서울 사직단, 대구 노변동사직단, 남원 사직단, 보은 회인 사직단, 산청 단성 사직단, 창녕 사직단, 진주 사직단, 고성 사직단이 있다. 원구단은 현재 황궁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중사(中祀)의 문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로 지정된 대성전의 경우 서울문묘 대성전, 강릉향교 대성전, 장수향교 대성전, 나주향교 대성전, 영천향교 대성전, 성주향교 대성전, 경주향교 대성전, 제주향교 대성전, 수원향교 대성전, 안성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대성전, 상주향교 대성전,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순천향교 대성전이다. 이외 다수의 향교 대성전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9)] 선농은 서울 선농단, 선잠은 서울 선잠단지가 있으며, 풍운뇌우는 산천 · 성황과 같은 장소를 겸하기 때문에 산천과 성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산천은 악해독, 즉 4악 · 3해 · 7독으로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악해독은 남악(南嶽), 중악(中嶽), 동해(東海), 남해(南海), 남독(南瀆), 중독(中瀆)이 있다. 남악은 지리산 남악사이고, 중악은 계룡산 중악단, 동해는 양양 동해묘, 남해는 영암 남해신사가 있다. 남독은 공주 웅진, 양산 가야진이 있으며, 중독은 한강의 서울 사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사당은 남아있지 않다. 문화재로 지정된 악해독의 단묘건축은 계룡산 중악단과 남독 양산 가야진사만이 지정되어 있다. 지리산 화엄사에 있는 남악사와 양양 동해묘, 영암 남해신사, 남독 웅진단은 새롭게 복원되어 건축되었다. 이중 남해신사는 발굴에 따른 유적지 위에 복원된 사례이다. 성황당은 대관령 성황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말기 고종대에 중사로 대상이 된 관왕묘는 서울 동관왕묘, 남원 관왕묘와 안동 관왕묘가 있다. 소사(小祀)규모의 단묘건축의 경우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로 사례가 찾을 수 없었다.[10)]

8) 김상태, 단묘건축 양식과 남악사, 구례남악사지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 구례군 · 나라문화재연구원, 2022.02.18., pp.32~33
9) 문화재, 국가문화재와 시 · 도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등재된 전국 향교는 108개소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10) 김상태, 단묘건축 양식과 남악사, 구례남악사지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 구례군 · 나라문화재연구원, 2022.02.18., p.35

2.2 악 · 해 · 독 단묘건축의 위치고찰

악 · 해 · 독 단묘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는『조선왕조실록』과『동국여지승람』을 들 수 있다. 실록은 사묘를 건립 혹은 중수를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동국여지승람은 지리서로 단묘건축의 입지와 현황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문헌에 기록된 단묘건축의 건축현황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악해독 사당에 대한 첫 번째 언급

> "…종묘(宗廟)·사직(社稷)과 악해독(嶽海瀆)·명산대천(名山大川) 및 소격전(昭格殿)에 비를 빌고, 원옥(冤獄)을 심리(審理)하고, 빈궁(貧窮)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드러난 백골과 시체를 묻어 주고, 또 문가학(文可學)을 시켜 기우(祈雨)하였다.…" 11)

위 기록은 악해독의 단묘건축이 종묘, 사직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제사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조선왕조실록』의 악해독 단의 건축 규모에 대한 언급

> "…사묘(祠廟)가 없는 중간 제사[中祀]인 악해독단(嶽海瀆壇)은 풍운뇌우단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3척, 높이 2척 7촌, 작은 담[壝]을 둘로 하고,…"

이상의 기사를 통해, 악·해·독 단묘건축의 단 규모가 폭 2장3척 즉, 영조척이 32.21일 경우 폭 약 740㎝와 높이 2.7척 즉 약 87cm의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척을 31.22㎝로 계산하면, 폭 718㎝, 높이 84㎝이다.

• 『조선왕조실록』의 악해독 사당의 위치에 대한 언급에 대한 기사

> "…중사(中祀) : 풍운뢰우(風雲雷雨)와 산천(山川)과 성황(城隍)도 붙여 제사한다. 악·해·독(嶽海瀆) 지리산(智異山)은 전라도 남원(南原)의 남쪽에 있고, 삼각산(三角山)은 한성부(漢城府)의 중앙에 있고, 송악산(松嶽山)은 개성부(開城府)의 서쪽에 있고, 비백산(鼻白山)은 영길도(永吉道) 정평(定平)의 북쪽에 있고, 동해(東海)는 강원도(江原道) 양주(襄州)의 동쪽에 있고, 남해(南海)는 전라도 나주(羅州)의 남쪽에 있고, 서해(西海)는 풍해도(豊海道) 풍천(豊川)의 서쪽에 있다. 웅진(熊津)은 충청도의 연기(燕岐)에 있고, 가야진(伽倻津)은 경상도의 양산(梁山)에 있

11) 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21일(신유) 1번째 기사

으니, 이상은 남쪽이요, 한강(漢江)은 한성부 안에 있고, 덕진(德津)은 경기(京畿) 임진(臨津)에 있고, 평양강(平壤江)은 평안도 평양부(平壤府)에 있고, 압록강(鴨綠江)은 평안도 의주(義州)에 있으니, 이상은 서쪽이다. 두만강(豆滿江)은 함길도(咸吉道) 경원(慶源)에 있다.…” 12)

이상의 기사를 보면, 조선 초 중악의 위치가 삼각산임을 알 수 있는데, 조선 후기 계룡산으로 변경되었다.

〈표 3〉 조선후기 중사규모의 악 · 해 · 독 단묘건축의 위치

악(嶽)	남악(南嶽)	남원(南原) 지리산(智異山)
	중악(中嶽)	공주 계룡산(鷄龍山)
	서악(西嶽)	개성(開城) 송악(松嶽)
	북악(北嶽)	정평(定平) 비백산(鼻白山)
해(海)	동해(東海)	양양(襄陽)
	남해(南海)	나주(羅州, 영암)
	서해(西海)	풍천(豊川)
독(瀆)	남독(南瀆)	공주(公州) 웅진(熊津), 양산(梁山) 가야진(伽倻津)
	중독(中瀆)	한강(漢江)
	서독(西瀆)	장단(長湍) 덕진(德陣), 평양(平壤) 평양강(平壤江), 의주(義州) 압록강(鴨綠江)
	북독(北瀆)	경원(慶源) 두만강(豆滿江)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악해독 위치

추가적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에 악해독의 위치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악(岳)은 남악(南嶽)-남원(南原) 지리산(智異山), 중악(中嶽)-삼각산(三角山), 서악(西嶽)-개성(開城) 송악(松嶽), 북악(北嶽)-정평(定平) 비백산(鼻白山)이고, 바다는 동해(東海)-양양(襄陽), 남해(南海)-나주(羅州), 서해(西海)-풍천(豊川)이며, 독은 남(南)-공주(公州) 웅진(熊津)과 양산(梁山) 가야진(伽倻津), 중(中)-한강(漢江), 서(西)-장단(長湍) 덕진(德津)과 평양(平壤) 평양강(平壤江), 의주(義州) 압록강(鴨綠江), 북(北)-경원(慶源) 두만강(豆滿江)으로 되어 있다.13)

• 현재 악 · 해 · 독 단묘건축의 위치

악·해·독 단묘건축의 국내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악(南嶽), 중악(中嶽), 동해(東海), 남해(南海), 남독(南瀆), 중독(中瀆)이 있다. 유명대산을 대상으로 하는 오악 중 남악은 지리산 화엄사 입구 인근에 입지하고 있으며, 중악은 계룡산 신원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팔도총도

12) 세종실록 오례/길례 서례/변사, 1453
13) 김상태, 웅진단 발굴에 따른 사당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2012

에는 중악이 삼각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는 계룡산으로 조선후기 신원사에 중악단이 개창되면서 변경이 되었다. 한반도 3면의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3해 중, 양양의 동해묘와 영암의 남해신사가 국내에 현존하고 있으며, 모두 근래에 복원하였다. 한반도 대표 강을 대상으로 하는 독은 전국 7개 중, 공주 웅진단과 양산 가야진의 남독, 한강의 중독의 3개 사묘만이 국내에 입지해 있다. 이 중 가야진사는 경상남도 민속문화재로 등재되었으며, 웅진당은 최근에 복원되었다.

〈그림 1〉 팔도총도(16세기) – 4악, 3해, 7독

〈그림 2〉 대한민국 악·해·독의 단묘건축의 지리적 위치

2.3 악해독의 단묘건축의 건축현황과 특징[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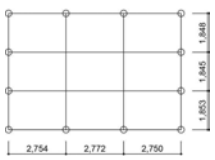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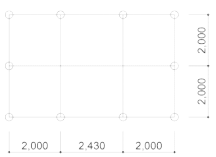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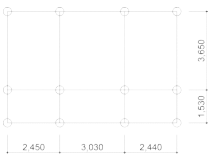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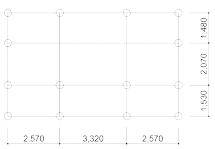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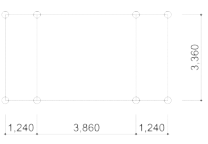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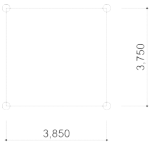
2.3.1 건축의 평면형태와 규모

악해독 단묘건축의 평면을 살펴보면 정면3칸에 측면 2~3칸을 알 수 있다. 가야진사는 다른 사묘와 차이가 나는데 발굴결과, 1차건물(2칸)과 2차건물(3칸?)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악단은 중사규모 단묘건축에서 가장 큰 평면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남악사, 남해신사와 동해신묘는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복원된 웅진단과 가야진사의 경우 1칸 규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같은 규모의 중사 단묘건축에서 위계에 따라 규모도 변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남악사와 남해신사, 동해신묘, 웅진단, 그리고 가야신사는 근래에 복원한 건축으로 그 평면규모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아직 기초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남악사와 동해신묘를 제외한 사묘는 발굴을 통해 평면의 규모와 형태를 알 수 있다. 남해신사는 기단의 크기만이 발굴되었는데, 연구결과 정면3칸×측면2칸의 전퇴구성 평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15)] 웅진단의 경우, 1430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의 평면 형태가 발굴조사[16)]를 통하여 알 수 있었는데, 초기는 정면3칸×측면3칸의 구성이며, 후기에는 정면3칸×측면2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가야진사는 정면1칸×측면1칸의 현재 건축과 다른 평면임이 발굴조사[17)]를 통해 밝혀졌는데, 정면2칸×측면1칸의 규모로 세종연간에 규정된 2칸 구성의 중사사당건축의 모습이 실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2차건물은 3칸 이상의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축이 1701년에 건축되고 현재의 위치에 1965년에 이건 되었으나, 현재의 모습은 이후 중수를 통해 보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악·해·독 단묘건축의 평면규모

(출처: 저자실측·작도)

대상지	중악단	남악사	남해신사
실측 평면			
대상지	동해신묘	웅진단	가야진사
실측 평면			

14) 2.3절은 김상태, 악해독 사묘건축의 건축특성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No.53, 2016의 논문을 재편집, 정리하였음,

15) 김상태·장헌덕, 남해신사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42권 2호, 2009

1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 고마나루 웅신단발굴조사 개략보고서, 2011.11

17) 한국문물연구원,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산 용당리 유물산포지III 발굴시굴조사 자료, 2010

2.3.2 건축구조와 공포형태

악·해·독 단묘건축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3량과 5량구조이다. 규모가 큰 중악단, 남해신사, 그리고 동해신묘가 5량이며, 남악사, 웅진단, 가야진사는 3량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에 의한 규모를 살펴보면, 웅진단의 경우 5량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 그리고 중악단의 경우, 팔작지붕에서 보이고 있는 충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연구에 따라 남해신사 또한 충량의 설치가 예상되며, 이는 관련자 인터뷰의 용장식 부분과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공포의장의 경우, 중악단의 다포계를 제외한 나머지 사묘에서는 익공계의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당건축에서 보이고 있는 익공형식을 차용하여 복원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익공의 수는 건물의 규모와 상관이 없게 구성되어 있는데, 남악사와 남해신사, 그리고 가야진사는 2익공으로, 동해신묘와 웅진단은 초익공으로 되어 있다. 익공형식 또한 위계에 따라 초익공과 2익공의 의장수법이 보이는 데 반하여, 각기 다른 익공구성을 보이는 것은 복원 계획 시 기초조사와 사당건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표 5〉 악·해·독 단묘건축의 구조와 공포의장

대상지	중악단	남악사	남해신사
구조			
공포의장			
대상지	동해신묘	웅진단	가야진사
구조			
공포의장			

2.3.3 지붕형태

사당건축의 지붕을 맞배지붕으로 구성함은 조선 후기 유교적 사상으로 인하여 발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간결함과 소박함은 유교의 덕목으로 건축에서도 그 사상적 의미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악단의 팔작지붕은 악·해·독 단묘건축의 건축적 해석을 유교적 규범으로만 한정하는 것을 재고할 여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009년의 남해신사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연구에서의 남해신사 지붕이 팔자지붕일 가능성 제시는 여타 연구대상 건축의 팔작지붕 개연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또한 남악사의 경우, 화엄사와 관련하여 중악단과 같은 유·불 공사(共祀)의 사례로 불교의례 중심의 봉사가 유력하기 때문에 중악단과 같은 규모와 건축형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18] 현재의 남악사가 1969년에 복원된 점을 판단하면, 기초조사 및 연구의 부재 속에 진행된 결과라 판단된다. 웅진단의 경우 또한, 발굴결과 조선초기의 평면형태가 정면3칸×측면3칸으로 그 규모 또한 중악단과 흡사하다. 중악단의 팔작지붕 형태의 개연성 또한 가능성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사당건축으로의 복원계획 시, 사우건축형식의 우선 적용보다는 기초조사 및 연구를 기초로 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표 6〉 악·해·독 단묘건축의 지붕형태

대상지	중악단	남악사	남해신사
지붕 형태			
대상지	동해신묘	웅진단	가야진사
지붕 형태			

2.3.4 내부제단 및 장식

내부 제단의 장식의 경우, 각각의 단묘건축 형식이 다양하였다. 중악단과 남해신사, 동해신묘, 그리고 가야신사는 그림을 통하여 대상을 묘사하였으며, 남악사는 신위를, 웅진단은 제단지 주변에서 발견 된 곰조각상을 신주로 하였다. 이는 악·해·독 사묘의 제단장식에 대한 연구의 부재와 일제강점기의 사당폐지에 따른 봉사폐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건축의 단청장식은 사찰건축형식을 따른 중악단을 제외한 모든 사묘가 가칠 또는 모로단청으로 하였으며, 세부 장

18) 2021년 발굴조사에 따른 분석은 다음 절에서 기술함.

식 또한 절제된 조각 등으로 엄중한 유교식 장식을 묘사하였다. 악·해·독 사묘의 봉사 대상이 산, 바다, 대천 등의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형태 또한 그 주제에 맞는 장식, 산신과 용왕 등을 묘사하는 것 보다는 유교식의 장식을 묘사한 것은 차후 사당건축의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따른 장식 연구에 대한 과제를 가져다준다.

〈표 7〉 악·해·독 단묘건축의 내부제단

대상지	중악단	남악사	남해신사
내부 제단			
대상지	동해신묘	웅진단	가야진사
내부 제단			

3. 동해신묘의 인문현황과 건축특성

3.1 동해신묘의 문헌현황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동해묘는 시도기념물 73호로 나라에서 동해신에게 풍농풍어(豊農豊魚)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동해신묘는 해신(海神)을 모신 묘사(廟祠)로 국가의 주관으로 치제하던 곳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동해신묘는 가장 중요시했던 곳이었다. 동해신묘의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高麗史』에"원종원년 승지양주사 별호양산 유동해신사(元宗元年 陞知襄州事 別號襄山, 有東海神祠)"[19]라는 기록으로 볼 때 고려시대인

19) 고려사 권58, 지(志) 권제12
翼嶺縣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守城郡領縣. 顯宗九年, 置縣令. 高宗八年, 以能禦丹兵, 陞襄州防禦使, 四十一年, 降爲縣令. 四十四年, 以降賊, 又降爲德寧監務. 元宗元年, 陞知襄州事. 別號襄山. 有東海神祠. 屬縣一.
익령현(翼嶺縣)은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으로, 신라 경덕왕 때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 수성군(守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현종 9년(1018)에 현령(縣令)을 두었다. 고종 8년(1221)에 거란군을 능히 방어하였기 때문에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시켰다가, 〈고종〉 41년(1254)에 현령(縣令)으로 강등시켰다. 〈고종〉 44년(1257)에 적에게 항복하여 또다시 덕령감무(德寧監務)로 강등시켰다. 원종 원년(1260)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승격시켰다. 별호(別號)는 양산(襄山)이다.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 속현(屬縣)이 1개이다.

1260년 이전부터 이미 존속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려 제6대 성종 10년(991)에서 고려 제8대 현종19년(1028년)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20)]
또한『高麗史』에 공민왕 19년 7월 동해묘의 이름을 새로 정해 반포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 "… 지금 옛 제도에 의하여 제도를 정하라고 명령하였으니, 무릇 오악·오진·사해·사독은 모두 전대에 봉하였던 명호를 제거하고 단지 산과 물의 본래 칭호로써 그 신을 부르도록 한다. … 중략 … 사해는 동해지신(東海之神), 남해지신(南海之神), 서해지신(西海之神), 북해지신(北海之神)이라고 일컫는다.…"[21)]

이 기록을 통하여 동해신으로서의 명호로 부르게 된 시기는 공민왕 19년인 1370년에서부터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사전(祀典)이 정비되면서 중사(中祀)로 설정되었고 이때부터 국가적인 제사처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동해신묘는 서해의 풍천, 남해의 나주와 함께 우리나라 삼해(三海)의 해신에게 국가 주관으로 치제하였던 역사유적으로 지정·보존가치가 크다.

조선 초기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강릉 대도호부 양양 도호부에 동해신묘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 "… 명산(名山)은 설악(雪嶽)이다. 【부(府) 서쪽에 있는데, 신라 때 소사(小祀)로 하였다. 】 동해 신사당(東海神祠堂) 【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지낸다. 】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 어귀에 이르기 7리, 남쪽으로 강릉(江陵) 임내 연곡(連谷)에 이르기 50리, 서쪽으로 인제(麟蹄)에 이르기 36리, 북쪽으로 간성(杆城)에 이르기 33리이다. …"[22)]조

---

20) 이기용,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 양양 향토문화연구논문집, 양양문화원, 대영프리컴, 2021

21) 고려사 권42, 세가 권제42, 공민왕(恭愍王) 19년 7월, 1370년 7월 16일(음) 임인(壬寅)
"壬寅 帝遣秘書監直長夏祥鳳來, 詔曰 "自有元失馭, 群雄鼎沸, 土宇分裂, 聲教不同, 朕奮起布衣, 以安民爲念, 訓將鍊兵, 平定華夷, 大統既正. 永惟爲治之道, 必本於禮. 考諸祀典, 知五嶽五鎭·四海·四瀆之封, 起自唐世, 崇明美號, 歷代有加. 在朕思之, 則有不然. 夫嶽鎭海瀆, 皆高山廣水, 自天地開闢, 以至于今, 英靈之氣, 萃而爲神. 必皆受命於上帝, 幽微莫測, 豈國家封號之所可加? 瀆禮不敬, 莫此爲甚. 至如忠臣烈士, 雖可加以封號, 亦惟當時爲宜. 夫禮所以明神人, 正名分, 不可以僭差. 今命依古定制, **凡嶽鎭海瀆, 並去其前代所封名號, 止以山水本號, 稱其神.** 郡縣城隍神號, 一體改封, 歷代忠臣烈士, 亦依當時初封, 以爲實號, 後世溢美之稱, 皆與革去. 其孔子善明先王之要道, 爲天下師, 以濟後世, 非有功於一方一時者可比, 所有封爵, 宜仍其舊. 庶幾神人之際, 名正言順, 於理爲當, 用稱朕以禮祀神之意. 所有定到神號, 開列于後.
一, 五嶽, 稱東嶽泰山之神·南嶽衡山之神·中嶽嵩山之神·西嶽華山之神·北嶽恒山之神.
一, 五鎭, 稱東鎭沂山之神·南鎭會稽山之神·中鎭霍山之神·西鎭吳山之神·北鎭醫無閭山之神.
一, 四海, 稱**東海之神**·南海之神·西海之神·北海之神.
一, 四瀆, 稱東瀆大淮之神·南瀆大江之神·西瀆大河之神·北瀆大濟之神.
一, 各處州府縣城隍, 稱某府城隍之神·某州城隍之神·某縣城隍之神.
一, 歷代忠臣烈士, 並依當時初封名爵, 稱之.
一, 天下神祠, 無功於民, 不應祀典者, 卽係淫祀, 有司毋得致祭. 於戲! 明則有禮樂, 幽則有鬼神, 其理旣同, 其分當正."

22)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강릉 대도호부 양양 도호부

또 다른 조선왕조실록의 주요한 기록은 세조2년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상소로, 수도가 고려의 개경에서 조선의 한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해묘의 위치를 양양에서 강릉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 "악진해독(嶽鎭海瀆)입니다. … 중략 … 또 동해·남해·서해의 신사(神祠)는 모두 개성(開城)을 기준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또한 방위(方位)가 어긋납니다. 빌건대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고정(考定)을 상세히 더하게 하고, 삼각산(三角山)을 중악(中岳)으로 삼고, 금강산을 동악(東岳)으로 삼고, 구월산(九月山)을 서악(西岳)으로 삼고, 지리산(智異山)을 남악(南岳)으로 삼고, 장백산(長白山)을 북악(北岳)으로 삼고, 백악산(白岳山)을 중진(中鎭)으로 삼고, 태백산(太白山)을 동진(東鎭)으로 삼고, 송악산(松嶽山)을 서진(西鎭)으로 삼고, 금성산(錦城山)을 남진(南鎭)으로 삼고, 묘향산(妙香山)을 북진(北鎭)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동해신(東海神)을 강릉(江陵)에, 서해(西海)는 인천(仁川)에, 남해(南海)는 순천(順天)에, 북해(北海)는 갑산(甲山)에 이제(移祭)하고, …"

동해신묘 이건에 관한 내용은 본 학술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으며, 추가적인 동해신묘의 기록 내용은 인문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동해신묘가 창건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이미 창건되어 조선 초기에 국가 제사 장소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해신묘는 북서쪽으로 대나무와 솔밭이 있고, 서쪽은 민가와 접해있다. 남쪽과 동쪽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높은 대지 위에 새로 지은 신당이 1동 있는데 일제시대에 철폐되었다가 1993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신당의 서북쪽으로 정조 24년(1800)에 관찰사 남공철이 글을 지은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가 있다. 보편적으로 중수기는 창건시기와 건물의 위치, 건물의 동수, 각 건물의 기능과 배치 등이 서술되어 건축학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다음은 강원도 관찰사 남공철 찬한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의 원문이다,

"襄陽: 都護府使一人, 本高句麗 翼峴縣, 【一云伊文縣。】 新羅改名翼嶺, 爲守城郡領縣。 高麗 高宗八年辛巳, 以能禦丹兵, 陞改襄州防禦使, 【南宋 寧宗 嘉定十四年。】 四十四年丁巳, 以降賊, 降, 爲德寧監務。 【南宋 理宗 寶祐六年。】 元宗元年庚申, 復知襄州事。 本朝太祖六年丁丑, 以外鄕, 陞爲府, 太宗十三年癸巳, 例改都護府, 十六年丙申, 改襄陽。 別號襄山。 屬縣一, 洞山縣, 本高句麗 穴山縣, 新羅改今名, 爲溟州領縣。 高麗 顯宗戊午, 移屬翼嶺縣任內, 本朝因之。 名山, 雪嶽 【在府西, 新羅時, 爲小祀。】 東海神祠堂。【在府東, 春秋降香祝致祭, 中祀。】 四境, 東距海口七里, 南距江陵任內連谷五十里, 西距麟蹄三十六里, 北距杆城三十三里。 戶八百五十七, 口一千二百七十七。 洞山縣戶一百二十五, 口二百十八。 軍丁, 侍衛軍七十三, 舡軍一百九十五。 土姓二, 金、李; 亡姓四, 孫、朴、河、鄭; 續姓三, 張、林、尹。 洞山縣姓四, 朴、金、崔、陳; 來姓一, 林; 亡姓一, 李。 厥土多堉, 俗業海錯, 崇習武藝, 墾田一千八百三十三結。 【水田五分之二强。】 土宜五穀, 桑、麻、莞、柿、梨、栗、猪、漆。 土貢, 蜂蜜、黃蠟、松子、胡桃、五倍子、芝草、石茸、狐皮、狸皮、獐皮、大口魚、文魚、沙魚、年魚、全鮑、紅蛤、水魚、常藿、席、正鐵。 藥材, 人蔘、五味子、當歸、茯苓、安息香、蓁艽、芎藭、白花蛇、熊膽、防風、白膠香、白芨、牧丹皮。 土産, 篠。 石鐵産府西十里鐵掘山。 鹽盆二十二。 洞山縣鹽盆十八。邑土城、 【周回一千八十八步。】 擁金山石城在府北。 【周回一千九百八十步, 兩則岩石間水湧流爲泉。】 驛四, 連倉、祥雲、降仙、麟丘。 【在洞山縣。】 要害, 自本府西去麟蹄境所等羅領三十六里。 烽火四處, 水山在府東, 【南準任內洞山 廣汀, 北準府德山。】 德山、 【北準杆城竹島】 陽也山在洞山縣南, 【南準連谷 注乙文、北準廣汀。】 廣汀在縣北。 【南準陽也山, 北準德山。】"

“‘ 海與王公同位望沈之祭報其德也 易說卦曰潤萬物者莫盛於水水之爲言演也 故其立字兩人交一以中出者爲水一者數之始兩人譬男女言蔭陽交物以一起也 周制四次驚蟄因郊而祭立夏因迎氣而祭白露因雩而祭大寒因蜡而祭歲凡四祭王兩珪有邸五寸牲用少牢幣視方色王及尸皆服毳冕樂奏蕤賓歌函鐘舞大夏用五獻器齊是朝踐之獻也 淸酒是饋食之獻也 後世又加王爵東海曰廣德王西海曰廣潤王南海曰廣利王北海曰廣澤王曰禮諸候得祀方內嶽瀆我國亦有東海神廟在襄陽府治東十里聖上正宗二十四年御史權唆言臣行郡縣見東海神廟齊舍墻垣多頹廢宜修治民家之八居近廟者一併撤去毋使鷄犬相聞肅敬於嶽瀆之祀而四方之以水旱疾苦祈禱者聚焉 甚非所以致崇極之道諸著爲式以禁敎日可命觀察使主其事臣公轍適按關東謹作禮部知▨擧行事說驛聞香祝自京師至以唆差獻官而祀之噫疾痛必呼人之情也 民之視海神如父母不護者祈禱焉 固宜然祀有其常祀彼遇夫遇婦執金帛而來者將以求媚于神而徼福禮滋甚漫則層瀆甚焉 朝廷之禁之乃尊神之至而導民於正也 一擧而兩得矣 遂述其事刻石碑解其感至於廟宇之隨時修補者有有司存銘曰有宮變變有墻翼翼邊豆▨嘉維珪及帛於粢酒掃肆筵說凡神具醉飽神旣安正御史自東歸奏于王岳瀆有祀曰沈曰望蚩蚩者氓凡有假求握粟擲錢久爲神羞禮滋益慢神顧不敵王命方伯其始自今勅其府使祗存常祀迺宣祝册乃命御史丕顯我王以禮事神導率土之正愛及衆民民皆稽首神宜酬惠酬之維何惠玆東裔▨有魚矣 多黍多稻旣富而庶黃髮壽考維萬億年海晏河淸維萬有▨偕我太平

崇禎紀元後庚申閏四月江原道觀察使 南公轍撰”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의 원문에는 아쉽게도 동해신묘의 건축현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정조24년인 1800년 4월에 주위의 민가 8채를 헐어 제사를 엄격히 지내게 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담장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 다른 비문으로 허균이 지은『성소부부고』중 중수동해용왕비문(重修東海龍王碑文)[23]이 있다. 이 비문 또한 건축의 중수보다는 이건의 내용이 중심이다. 강릉에 동해신묘를 세워 용왕이 양양으로 이건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용왕으로부터 해를 입고 난 후에 다시 양양의 동해신묘를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23) “萬曆甲辰歲七月。襄陽府洞山居漁人池益福。乘舶捉魚于海中。風引其舶。行甚駛。一晝夜東泊于一嶼。有靑衣人招詣王宮。陛戟仗衛甚嚴。王者被紫坐殿中。謂曰。吾享祀於江陵殆數千年。不幸爲府人所逐。移於玆土。非所樂也。我訴於帝。今始得請。欲假爾導意於列岳。還吾宇舊地。爾其言於司牧者。否則當以兵伐之。人必受吾害也。因以風送之。不一日。回抵東岸。漁人異之。不敢自陳於官。言諸鄕任人李碩霖俾達之。府使洪公汝成聞而心異之。取掌故攷之。嘉靖丙申歲。祠自江陵府正東村移于玆。不敢引神語以滋弊。乞還舊。牒于方伯。不見從。明年乙巳七月。關東大風雨。自安邊,通川。南至安東地數十郡。酷被水災。民畜死者以萬計。尤劇於江陵焉。洪公愈以爲異。招吏民議曰。神言不移祠。則當降沴以警之。币歲而 水災若是。其果徵歟。吾之力不可移。吾視其神宇頹圮未修盍相與新之。以致吾敬。修吾職而誠以享之。則神其吐諸。咸曰。然。遂捐廩餘。鳩工徒。命鄕任人董之。易其瓦。墁其壁。繚以垣。作神門。除其庭。不數月告完。公躬祭之。自是襄無風而歲屢熟也。府人神異之。乞文於余。欲鑱石而豎之以示後。余曰。我國設四海龍祠。相度地理之中以置宇。江陵爲東海之最中。而正東尤其邑之中。位置爽塏。故名爲正東。自新羅祭龍于是。恭僖王朝。府人沈彥慶,彥光兄弟秉魁枋。以龍祠有費於府。諷方伯啓聞。無故移之。方纂輿地。書曰。東海在襄陽。至今未復舊。今祠地庳汚。不合妥靈。宜其神之怒也。彥光兄弟之敗。其亦坐是。而乙巳風水之變。實可懼也。神之明告人。人不能信。吁其惑也夫。府伯之改修廟。甚合於禮。其可泯之乎。遂備紀而係以之頌曰。

海於天地。爲物甚鉅。孰王其中。以風以雨。矯矯龍神。天用莫如。降福降沴。靈應孔孚。疇就其庳。俾徙我宇。惜其小費。宜神之怒。神之所都。貝闕珠宮。俗之陬居。奚戀以恫。不然誠敬。神所享者。不敬者慢。不誠則惰。掃地酌水。誠敬則臨。玉寢瓊饗。慢則不欽。移以汚之。卽惰卽慢。豈以豐殺。而爲忻歎。告而不從。宜水之洪。溫溫邦侯。事神以恭。乃新其構。乃腆其饗。神顧以喜。風來悽愴。克敬克誠。奚擇江襄。願此永鎭。資歲穰穰。民無札傷。五兵不入。於萬斯年。祐我弊邑。”

다. 그러나 동해신묘를 이건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은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기에 이는 추후 더욱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양양 동해묘의 조선시대 건축 현황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영조 41년인 1765년 단묘(壇廟)에 동해묘에 대한 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在府東十里海上 正殿六間 神門三間, 奠祀廳二間, 東西齋 各二間, 百川門一間, 每歲首別祭 仲春仲秋常祭 香祝皆自京下來."

본문을 국역하면, "부 동쪽 10리 해상에 있다. 정전 6간, 신문 3간, 전사청 2간, 동서재 각 2간, 백천문 1간으로 매년 초에 별제를 지내고 2월 8월 상제를 지낸다. 향과 축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이다.

또 다른 자료로 『관동읍지(關東邑誌)』(1871)가 있다. 양양부 단묘에는 동해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在府東十里海上 正殿六間 神門三間 奠祀廳二間 東西齋 各二間 每歲首別祭 仲春仲秋常祭 香祝皆自京下來"

본문을 국역하여 보면, 여지도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백천문 1칸"의 기사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여지도서의 1765년과 관동읍지의 1871년 사이에 백천문이 기록에 누락이 되었거나,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 동해신묘의 중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

"동해신묘는 경조 2년(1722)에 양양부사 채팽윤(蔡彭胤)이 중수하고, 동해묘, 백천문 등을 현판했으며, 영조 28년(1752) 부사 이성억(李聖檍)이 중수하고, 그 후 정조24년(1800)년 어사 권준(權浚)의 상소와 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의 주장으로 중수하였다."[24] 이 글은 『양주지(襄州誌)』(1990, p.777)의 동해신묘에 대한 글이다.

추가적으로 철종원년(1850) 부사 홍운모(洪運謨), 광무 4년(1900) 부사 이구영(李龜榮)에 의하여 중수(重修)했다고 『양양읍지』에 기록 되어 있다."[25]는 내용도 있다.

목조건축이었던 동해신묘는 목조의 재료문제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중수가 필요하다. 상기의 기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50년 간격의 중수시기가 있어, 국가적 제의시설인 동해신묘의 체계적인 관리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라 하겠다.

24) 장정룡, 동해신묘의 문화사적 고찰, 동해안연구(Journal of East Coastal Research), Vol.7, No.1, 1996.11
25) 이기용,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

3.2 동해신묘의 지도현황

역사적 문화유산의 건축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와 더불어 지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조선후기 지도인 해동지도(1724~1776), 광여도(1737~1776), 지승(18세기 후반), 여지도(1789~1795), 비변사인방안지도(조선후기 18세기), 그리고 1872년 지방도의 그림을 참고한다. 또한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까지 조선 후기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으로 만든 도서인 여지도서 또한 글과 함께 그림으로 건축적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동해신묘가 묘사된 지도이다. 해동지도와 광여도, 지승, 여지도는 보통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고 건축물의 표현도 비슷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해동지도는 양양군에서 건물로 표현된 주요 건물은 읍성과 관아, 낙산사, 그리고 동해묘이다. 간단한 경사지붕을 한 한칸의 건축물로 표현하였는데, 객사와 같이 중요한 형태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같은 형태로 표현하였다.

〈표 8〉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신묘

해동지도	광여도	지승	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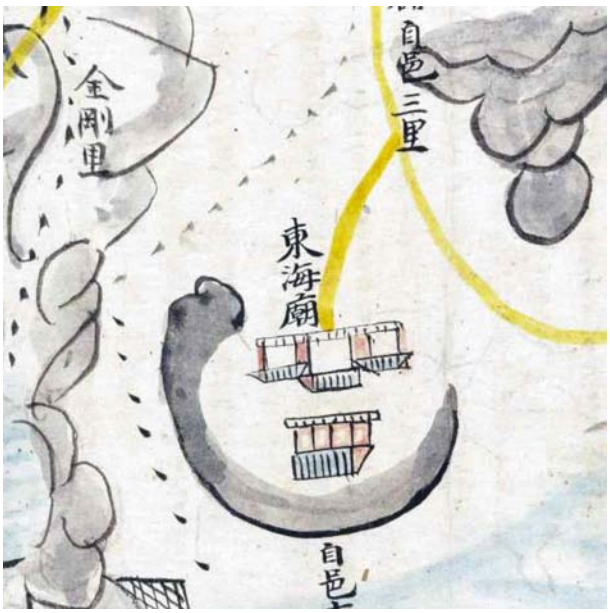
비변사인방안지도 영동지도 양양부	1872년 지방도 남원부 남악사 위치

광여도 또한 해동지도와 같이 읍성 및 관아, 낙산사, 그리고 동해묘를 지도에 건축물로 표현하였다. 해동지도와 다른 점은 기둥을 그려 칸수가 가능하게 한 점이다. 그러나 낙산사도 3칸으로 하고 관아의 건물도 3칸으로 그린 것을 보아 해동지도의 1칸 건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붕을 모두 팔작지붕으로 표현한 것 또한 광여도에서의 특징인데, 모든 건축물을 팔작지붕으로 표현하여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다른 지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동해신묘의 지붕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승은 해동지도와 광여도와 같은 모습으로 동해묘를 양양군의 주요 건물을 표현하였는데, 차이는 건축물을 광여도와 해동지도는 건축물의 기둥사이의 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점이다. 다만, 대부분의 건축을 3칸으로 묘사했다는 점은 칸수부여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여지도는 지승과 다르게 건축물 표현이 붉은 색 위에 다시 검은 색을 덧칠해 보다 명확하게 묘사되었다. 비변사인방안지도의 경우, 동해묘의 위치가 표현이 되지 않았으며, 관아나 낙사사의 표기도 매우 간략하게 하여 위치만을 표시하기 위해 건축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2년 지방도는 조선시대 모든 지도에 비해 건축물의 표현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기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1982년 지방지도에 표현된 건축물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양양군의 1872년 지방지도의 동해묘 표현은 문간채와 정전, 즉 신당이 명확히 그려져 있다. 문간채는 솟을삼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전인 신당은 명확하게 3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측면은 1칸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측면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지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신문이 단순히 문만으로 묘사한 것인지, 문간채를 모두 표현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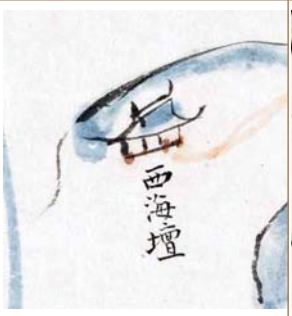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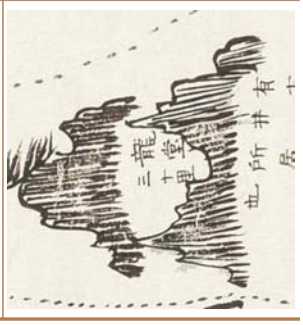


〈그림 3〉 1872년 지방지도 양양군의 동해묘 부분 확대

다음은 1872년 지방지도에 표현된 악 · 해 · 독 단묘건축의 모습을 비교한 표이다. 풍천 서해단, 나주 남해당, 계룡 중악단, 남원 남악사, 공주 웅진단, 양산 가야진사, 장단 덕진묘, 경원 북독 용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악 · 해 · 독 단묘건축의 건축표현은 1동의 건축물, 즉 대표성을 가진 신당을 그렸다. 다만, 남독 양산 가야진사와 북독 경원 용당의 경우는 글자로 표현하였다. 경원 용당의 경우, 함경도와 평안도지역의 지도가 건물 그림보다는 글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용당 또한 글자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산 가야진사의 경우 현재의 1칸 사당은 1965년에 현재 위치로 이건한 건물로 지도를 제작할 당시 건물의 유무는 알 수 없다.

악 · 해 · 독 단묘건축은 대부분의 1872년 지방지도 대부분 건축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볼 때, 각 지역의 중요건축으로 인식되었으며, 지도를 제작하는 화원에게 반드시 지도에 표기해야 하는 건축물로 지침이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표 9〉 1872년 지방지도에 표현된 악 · 해 · 독 단묘건축

풍천 서해단	나주 남해당	계룡 중악단	남원 남악사
			
공주 남독 웅진단	양산 남독 가야진사	장단 서독 덕진묘	경원 북독 용당
			

동해신묘가 표현된 지도 중 여러 연구에서 인용한 지도가 있다. 여지도서의 동해신묘 그림으로 묘사된 건축물을 살펴보면, 우선 3개의 건축물이 눈에 띈다.

지도에서 표현된 건축물의 숫자가 반드시 당시의 건축물 숫자와 같게 묘사되지는 않는다. 간략하게 표현해야 하는 지도의 특성 상, 중요한 대상과 반드시 묘사해야 할 건물만을 표현한다.

〈그림 4〉 여지도서의 동해신묘

여지도서의 3채 중, 3칸의 경사지붕을 된 주요 건물은 신당과 신문을 의미한다고 불 수 있다. 문헌에서 기술된 정전 6칸은 3×2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라 판단된다. 일반적인 유교식 사당 혹은 신당의 규모와 유사하다. 신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이 또한 유교건축의 제향공간의 정문 규모와 같다. 신이 드나드는 문과 신이 머무는 정전이 표현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외의 건물은 1칸인지, 2칸인지 모르도록 그려져 있다. 다만, 지붕의 규모가 오른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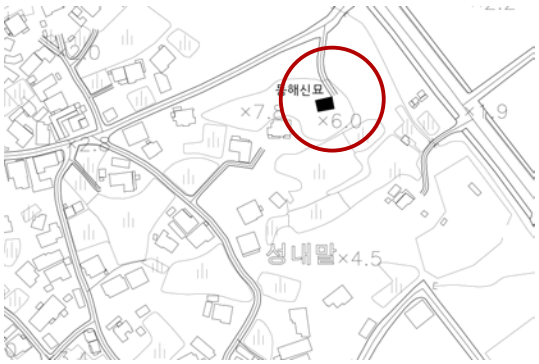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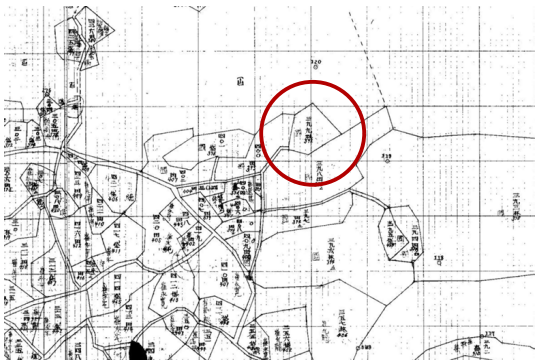
도 건물보다 적고, 건물 중앙 오른쪽에 기둥으로 판단되는 여백이 있어 2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상기 여지도서 기록에는 2칸 규모의 건축물은 전사청과 동 · 서재인데, 지도에서 표현할 정도의 중요 건물은 전사청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 · 서재는 악 · 해 · 독의 단묘건축인 계룡산 중악단과 지리산 남악사, 영암 남해신사 등에서는 문간채에 객사나, 유생청, 재 등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전사청 또한 문간채에 포함되어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동재와 서재가 각각의 건물로 존재하였다면, 건물의 배치를 보다 명확한 2칸 건물의 좌우 대칭 구성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1872년 지방도의 동해신묘의 문간채 표현은 문간채의 좌우 방이 동서재의 역할을 감당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지도서의 3채 구성은 정전과 신문, 그리고 전사청을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도에서 여러 채를 묘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발굴과 지적을 통한 비교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할 수 있다. 아쉽게도 다른 악 · 해 · 독 단묘건축의 1872년 지방지도의 건축표현은 단순히 1동 혹은 건물명을 기록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표9 참조)

3.3 동해신묘의 건축현황

3.3.1 건축개요

- 지정명칭 및 번호: 양양동해신묘지(襄陽東海神廟址) 제73호
- 분류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제사유적 / 제사터
- 수량/면적 : 1,316㎡
- 창건 및 중수 시기: 고려 원종 원년(1260) 이전 창건, 1722년 · 1752년 · 1800년 · 1850년 · 1900년 중수, 1908년 훼철
- 현황조성 : 1993년 정전(정면 3칸, 측면2칸-전후퇴 0.5칸) 복원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39외 1필

〈표 10〉 현재의 동해신묘 배치

2021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네이버지도+지적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1916년 조산리 지적원도
	

3.3.2 배치 및 규모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동해묘는 나라에서 동해신에게 풍농풍어(豊農豊魚)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천과 바다에 제사를 지내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였다.[26]

〈그림 5〉 동해신묘 정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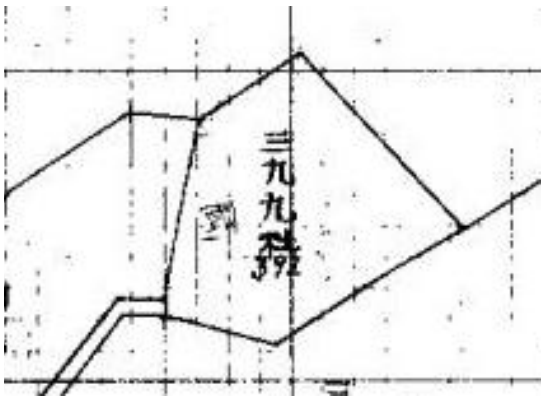
현재의 동해신묘의 사역은 1993년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5동을 복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복원하고자 한 시설내용과 규모는 정전 6칸 1동(13.2평), 동서재 각 2칸 2동(각 4.4평), 신문 3칸 1동(6.6평), 전사청 2칸 1동(13.2평), 담장 (토담 130미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부지 320평에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정전건물의 단청공사로 복원공사는 완료되었다.[27]

2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양양동해신묘지 해설
27) 장정룡, 동해신묘의 문화사적 고찰, 동해안연구(Journal of East Coastal Research), Vol.7, No.1, 1996.11, p.2

현재 정전의 입치는 기존 동해신묘의 위치 인근에 결정되어 복원되었다. 정전의 방향은 약간 동쪽으로 틀어진 남향으로 좌향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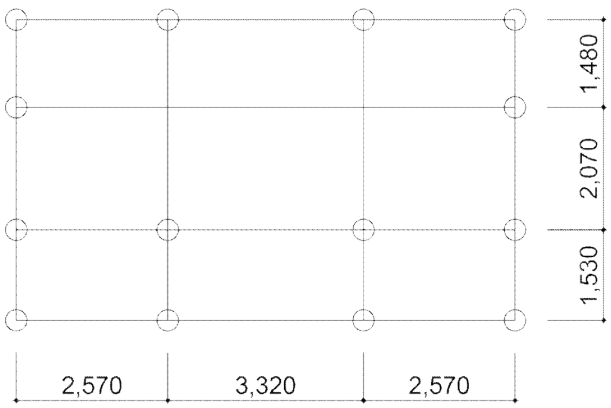
정전이 입지하고 있는 지번은 399사로 이는 1916년 일제강점기 측량된 지적원도 상 사당의 위치임을 명확히 한 근거이다.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서는 사당 혹은 사찰의 경우, 社로 표현한다. 지적원도의 399번지는 서남에서 대지의 입구가 있으며, 입구에서 길이 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1〉 현재의 동해신묘 정전 위치의 지적비교

동해신묘의 입지와 지적현황	1916년 지적원도의
	

정전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전퇴와 후퇴의 폭이 측면 어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정면 3칸, 측면 3칸의 비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해신묘 정전의 측면 규모인 전후퇴 5칸, 어칸 7칸의 사당사례도 있으며, 특히 발굴하여 확인된 남독 웅진단의 2차시기 건물지의 측면 폭과 유사하다. 다만, 웅진단의 2차시기는 임진왜란 이전 건물의 가능성이 있다. 정면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보편적인 전퇴 구성의 사당건축 비례를 참고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중사규모의 제단 또는 건축 폭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23척, 즉 7.2~7.4m 보다 큰 8.46m로 계획한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면을 어칸 9척(2.8m), 좌우 협칸 7척(2.2m)으로 계획하였다면 사료의 규모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그림 6〉 동해신묘 정전평면
실측 : 발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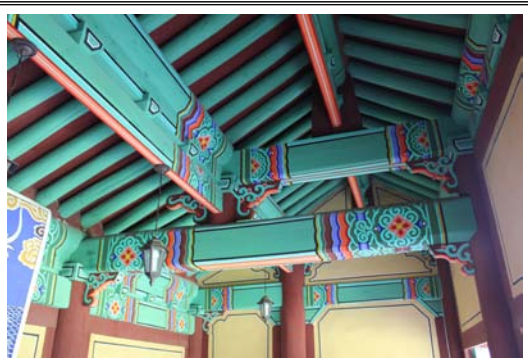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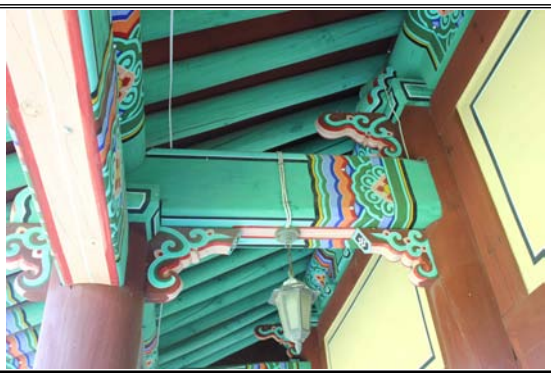
〈표 12〉 현재 동해신묘 정전의 정면과 측면

동해신묘 정전 정면	동해신묘 정전 좌측면

3.3.3 구조

동해신묘 정전의 구조는 전퇴의 1고주 5량구조로, 내진주는 사당건축에서 주로 적용되는 구조형식이다. 특히 전면 내진주를 고주로 하는 방식은 향교의 대성전이나, 서원의 사당에서 주로 사용되고, 평면 규모가 큰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대들보와 종보는 상대적으로 폭이 비슷하며, 도리의 장혀 높이가 제법 높아 수직성이 강조되고 있다. 퇴보와 대들보는 맞보형식으로 서로 수평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들보 내부를 받치는 기둥이 없어 내부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측면 보의 보아지를 직절하여 사용된 점도 특징이다. 맞배지붕 측면에 풍판을 달아 외부에서 보아지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장식적 문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하였다.

〈표 13〉 현재의 동해신묘 정전 구조

동해신묘 정전 내부 구조	동해신묘 정전 퇴칸 구조
	

3.3.3 의장

동해신묘 정전의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사우건축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유교식 사우건축 중 규모가 있는 향교 대성전과 서원 사당은 보편적으로 모로단청을 사용한다. 악 · 해 · 독 단묘건축 중 중악단의 금모로단청과 남악사의 가칠단청 외 모든 건축이 모로단청으로 장식하였다. 중악단은 사찰경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화려한 금모로단청 장식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남악사의 경우 조선 말기 유교식 사당건축의 검소함을 적용하여 가칠단청으로 장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악 · 해 · 독 단묘건축은 산신과 강과 바다신인 해룡을 배향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교식 사우건축 보다는 화려한 장식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해신묘의 모로단청 장식은 주제에 걸 맞는 장식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14〉 현재의 동해신묘 정전 의장

동해신묘 정전 공포의장	동해신묘 정전 단청
동해신묘 정전 창호	동해신묘 정전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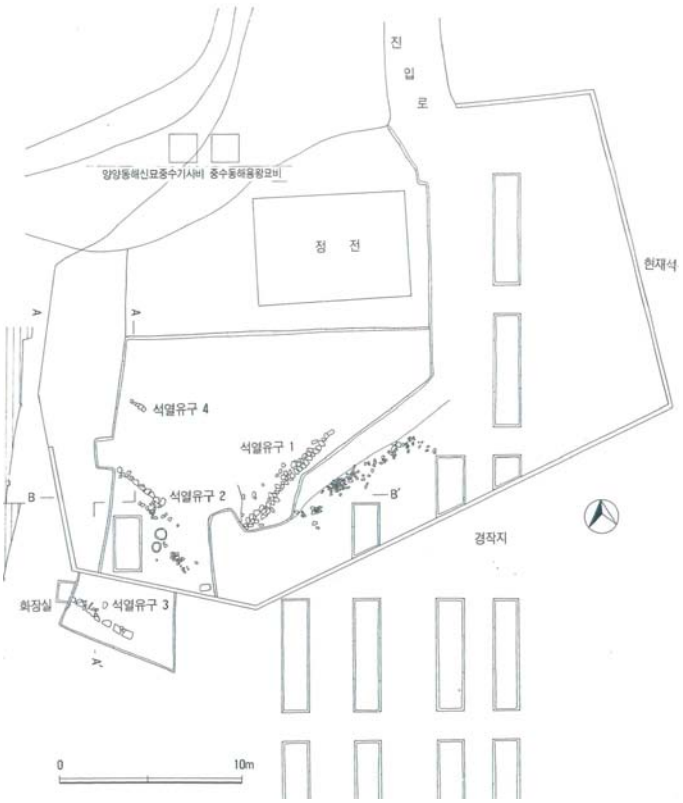
기둥 위 공포의장은 초익공으로 쇠서와 보아지의 화려한 당초문 장식이 돋보이며, 창호는 만살청판문으로 화려하지 않은 단아한 입면 장식을 보여주고 있다. 종도리를 받치는 대공은 판대공으로 내부 장식도 공포부 이외는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초석은 원형초석으로 방석모양의 운두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석을 크게 하여 입체적인 형태를 강조하였다. 정전 기단 앞 계단은 좌우 2개를 두었는데, 유교의 교육기관인 향교 대성전과 서원 사당에서 주로 보이는 방식이다.

악 · 해 · 독 단묘건축에서는 중악단은 3개의 계단을 두었고, 기타 신당은 1개 또는 기단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4 동해신묘의 발굴조사 현황[28)]

양양 동해신묘의 발굴조사는 1998년 11월 2일부터 12월 3일 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였다. 발굴의 목적은 동해신묘 유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후 정비복원 및 사적지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발굴결과를 살펴보면, 1993년 이미 정전이 복원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전위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8년 동해신묘가 훼철된 이후, 감시초소가 설치되면서 대부분의 유구가 파괴되었고, 1993년 정전복원 공사 시 구릉의 경사면을 평탄화하는 과정에서도 유구의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굴조사결과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몇몇 지점에서 일부 석렬 만 확인되었다. 석렬은 총 4개 지역에서 할석과 냇돌이 출토되었으며, 정전 북동쪽에서 약 5~7㎝ 두께의 소토와 일부 돌이 노출되었다.



〈그림 7〉 동해신묘 발굴 배치도

28) 양양 동해신묘 발굴조사보고서, 강릉대학교 박물관 · 양양군, 1999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3.4.1 석렬유구 1

석렬유구 1은 정전 기단석 중앙 기준점에서 남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서 남동-북서방향으로 약 8m정도로 노출되었다. 둥근 냇돌들이 바깥면으로 열을 맞추어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약간 씩 낮아진다. 석렬유구 주위에 조선시대 기와편들이 다량 노출되었고, 청자편, 백자편, 토기편이 약간 출토되었다. 석렬유구 1에서 남쪽으로 약 2m지점, 현 지표하 약 150㎝ 깊이의 암갈색 사질토층에서 작은 냇돌들이 동-서방향으로 길이 10m, 폭 1m크기로 남쪽으로 경사지게 노출되었다.

〈표 15〉 동해신묘 발굴현장 사진(1998년)

석렬유구 1 전경	석렬유구 2 전경

3.4.2 석렬유구 2

석렬유구 1 서편에 위치한 석렬유구 2는 현 지표하 90㎝ 깊이인 적색 점토층에서 40㎝×35㎝×25㎝ 크기의 할석들이 동-서방향으로 남서면으로 열을 맞추어 약 3.5m 정도 노출되었다. 석렬유구 2의 동쪽으로 밭으로 사용하여 교란이 심하고, 서편으로는 민가에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확장조사를 일부만 시행하였다. 석렬의 동쪽 끝 할석 남쪽으로 작은 둥근 냇돌과 할석들이 설렬유구 2의 같은 방향으로 약 2.7m 노출되었는데, 돌의 성격은 불분명하다. 이 돌들의 동남쪽으로 3m지점에 작은 할석들이 길이 1.8m, 폭 0.6m 크기의 장타원형으로 노출되었는데, 적심석으로 추정된다.

석렬의 동쪽 끝 할석 남쪽으로 1.7m 떨어진 지점에 85㎝×74㎝×40㎝ 크기의 타원형 구덩이와 남쪽으로 인접하여 77㎝×77㎝×60㎝ 크기의 원형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석렬유구 2 주위에서 조선시대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수막새편 1점이 출토되었다.

3.4.3 석렬유구 3

석렬유구 3은 담장지로 추정한다. 현재 석축의 서쪽 모서리부분과 민가 화장실 부분에서 현 지표하 240㎝ 깊이의 적색 점토층에서 할석이 일부 확인되었다.

현재 석렬유구 3은 동-서방향으로 60㎝×40㎝×20㎝ 크기의 할석들이 남서면으로 열을 맞추어 약 5m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민가 화장실 밑에도 돌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석렬유구 주위에 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편 2점, 수막새편 1점이 출토되었다.

〈표 16〉 동해신묘 발굴현장 사진(1998년)

석렬유구 3 전경	석렬유구 4 전경

3.4.4 석렬유구 4

석렬유구 4는 석렬유구 2에서 북쪽으로 5.2m에 위치한다. 현 지표하 약 50㎝ 깊이의 암갈색 모래층에서 노출되었는데, 20㎝×30㎝×15㎝ 크기의 할석은 남서면으로 영을 맞추어 동-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바론 인접해서 생토층이 확인된다. 석렬유구 4에서 분청사기 병편 1점과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4. 동해신묘의 정비방향

4.1 악 · 해 · 독 단묘건축의 발굴조사와 정비사례

4.1.1 발굴조사 이전에 신당이 복원된 악 · 해 · 독 단묘건축

가. 가야진사(伽倻津祠)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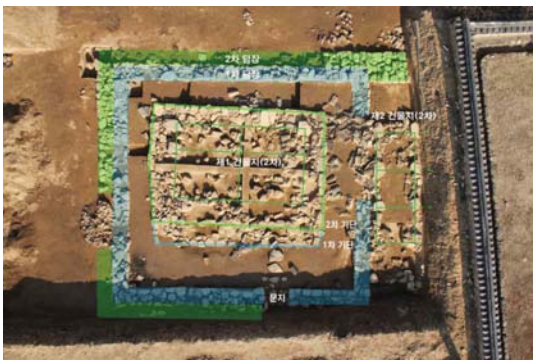
- 지정번호: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7호
- 창건시기: 조선 태종 6년(1406), 1644년(인조 22) 개축, 1708년(숙종 34) 중수
- 현황조성: 1965년 현 위치로 이전, 2010년 발굴조사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3번지

가야진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시대에 편찬된『三國史記』와 조선시대의『太宗實錄』,『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海東地圖』등에서 흔적을 살필 수 있다. 그 내용은 가야진이 공주 웅진과 함께 남독(南瀆) 중 하나이고, 중사(中祀)로서 나라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향축(香祝)과 칙사를 보내어 제사를 올린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야진은 최근까지 용당나루로 불리면서 맞은편에 위치한 용산과 물길로 왕래하였다. 현재의 가야진사는 용신을 모신 사당으로 건물은 조사지역 북쪽인 비석골에 있던 것을 이전한 것으로 전한다. 1965년 이전 당시 발견된 건물의 상량문에 1644년(인조 22)에 개조하였고, 1708년(숙종 34)에 중수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원위치와 초축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7세기 이전부터 이 일대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8〉 가야진사 사당

(2) 발굴조사 내용과 배치규모

현재 가야진사가 위치한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3번지 일원은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중 10공구와 11공구에 해당하며 준설에 따른 토양 절취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용당리 당곡 고분군, 용당리 당곡 유물산포지, 김해시 상동면 후포유물산포지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삼국시대 유적이며 조사지역의 남쪽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가야진용신제 때 침하돈(沈下豚)의식을 거행하는 용산(龍山)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내에는 현재 가야진(伽倻津)과 가야진사(伽倻津祠)가 위치한다. 이곳은 지표조사에서 조선시대 도자기편, 기와편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곳이며 양산시에서는 해마다 용신제를 지내는 곳이다.


〈그림 9〉 추정 가야진사 사당 발굴사진

조사지역내에는 원래의 가야진사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1, 제2건물지가 있다. 제1건물지는 기단과 초석·적심, 주변의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16세기의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평면형태가 확인된 제1건물지는 주변에서 수습되는 다량의 기와로 보아 정면 2칸 측면 1칸이고 2차에 걸쳐 사용한 건물지로 볼 수 있다. 제 2건물지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지붕은 맞배지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건물지는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건물의 위치와 사용

시기, 출토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야진' 또는 '가야진단' 과 관련된 시설 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제2건물지 내부에서 다량의 분청제기가 출토된 점은 조선시대 국가차원의 중요의례인 중사가 행해진 가야진단 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 이다.[29)]

나. 웅진단(熊津壇)

(1) 개요

- 지정번호: 명승
- 창건시기: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발굴 연혁)
- 현황조성: 2011년 발굴조사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730

재 공주 웅진동 고마나루에는 곰사당과 별개로 웅진단이 있다. 복원된 곰사당은 금강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방향의 남서쪽을 바라보는 축을 가지고 있다. 2011년 발굴결과에 따라 현재 곰사당 북쪽에 정면3칸×측면3칸 규모의 웅진단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0〉 복원된 웅진단 곰사당

(2) 발굴조사 내용

2011년 9월부터 실시한 웅진단의 발굴조사는 기존 단(壇)으로만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발굴 위치의 남쪽에 있는 웅신단(곰사당)의 경우 그 위치와 존재의 불확신성으로 인하여, 웅진단의 발굴은 기존의 정확한 웅진단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조사라 할 수 있다.

발굴지는 곰사당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00여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향을 하고 있는 기와건물지 1동과 담장이 발굴되었다. 건물의 소실원인은 화재이며, 부분적인 축소·확대 등의 흔적이 나타났으며, 여러 차례 개·보수의 모습도 보였다.

〈그림 11〉 웅진단 건물지 발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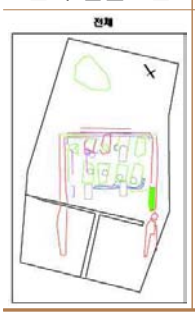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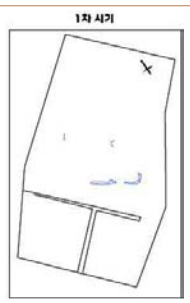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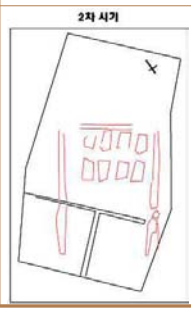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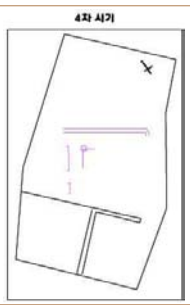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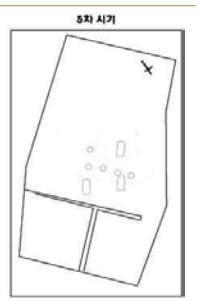
웅진단의 발굴(2011)을 통한 유구는 총 5시기의 결과

29)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산 용당리 유물산포지Ⅲ 발굴(시굴)조사 2차 자문회의 자료, (재)한국문물연구원, 2010. 12

를 보여주고 있다.

- 1차시기 : 가장 초기의 유구로 발견된 흔적이 적어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단석렬이 2시기의 장적심과 간섭이 있는 것을 보면 초기에 작은 규모의 사묘였음을 추정. 북쪽의 동쪽 2번째 장적심에 간섭이 되어있는 원형 적심은 목조건축이었음 보여준다.
- 2차시기 : 6기의 장적심(가로 150~170㎝×세로 240~316㎝)과 동, 서, 북의 담장지(너비 약 60~110㎝)가 나타났다. 남과 북의 장적심에 전퇴와 후퇴의 2열 초석이 놓이게 되는 정면 3칸×측면 3칸 규모의 사당임을 알 수 있다. 동쪽 담장지 하단에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다. 화재로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차시기 : 2차시기의 북쪽 장적심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원형적심을 놓아 중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3칸×측면 2칸의 2차시기보다 적은 규모의 사당임을 알 수 있다. 규모의 축소에 따라 담장도 2차시기보다 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일제시대에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 4차시기 : 3차시기보다 축소된 규모이다. 초석 적심이 1기 보이나, 3차시기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사당위치에 새로운 건조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 5차시기 : 훼손된 이후 묘지 등 발굴 이전의 상태이다.

〈표 17〉 웅진단의 각 시기별 발굴도면 분류(본 연구자 작성)

전체 발굴도면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4차시기	5차시기
					

(3) 웅진단의 규모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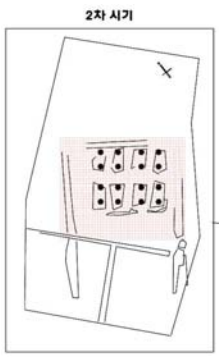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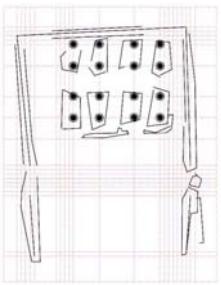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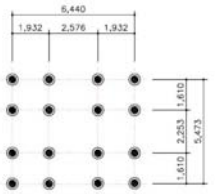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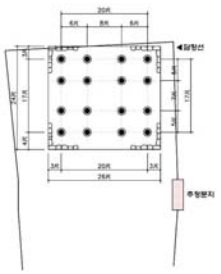
웅진단 발굴도면을 통하여 규모와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시기별 도면의 분류, 각 시기에 따른 영조척 선정, 영조척을 Module로 하여 만든 Grid를 이용한 초석의 위치 추정(CAD Data와 이미지를 이용한 비교), 초석 배열을 통한 건물규모 산정, 규모와 평면형태 및 기단부 분석을 통한 가구구성, 지붕의 형태 추정, 마지막으로 배치 공간 구성분석의 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구의 분포와 형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표출된 2차시기와 3차시기의 건축규모와 형태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1) 2차시기 웅진단 건축의 규모와 형태

2차시기의 규모와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초석의 배치를 위해 분류된 2차시기 발굴 CAD Data를 조정하였다. 장적심 1열과 2열의 행과 열을 맞추지 못하면 초석열이 자오선으로 놓지 못하기 때문에, Grid를 올리기 전 남북의 장적심 위치조정을 우선 시행하였다. 다음, 2차시기만을 추출한 Cad Data위에 1430년 이전의 용척인 32.21㎝의 Grid를 올렸다(표18 순서1). 초석의 위치를 잡기 위해 건축용도에 맞는 초석간격을 참고하여 배치하였는데, 가장 적절한 초석 위치를 찾기 위해, 발굴이미지와 CAD Data와의 비교분석도 동시에 시행하였다(순서2). 확인된 초석의 위치와 담장, 그리고 추정 문지에 대한 위치와 규모 또한 용척 Gri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순서3).

〈표 18〉 웅진단 2차시기 건축 규모 산정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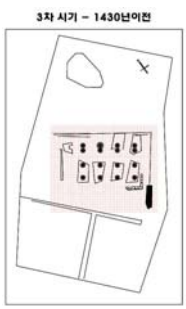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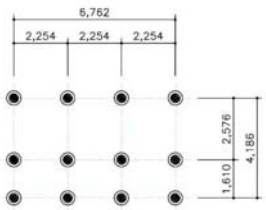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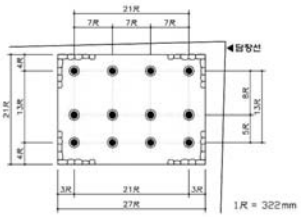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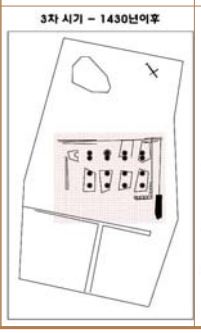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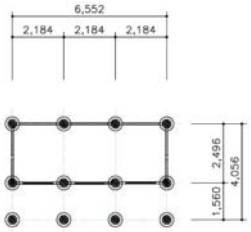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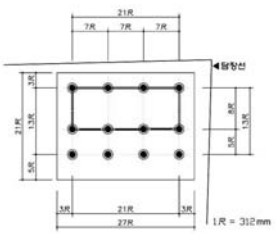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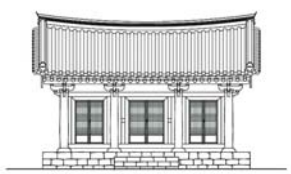
초석의 위치가 확인된 후, 초석의 간격, 즉 간사이 치수를 통하여 규모를 산정하였는데, 분석결과 규모는 정면 6.44m(20尺)×측면 5.473m(17尺)로 35.25㎡(10.68坪)로 나타났다(순서4). 기단은 정면 1.288m(4尺), 좌측면·우측면·배면은 0.966m(3尺)의 규모인데, 배면의 경우 북쪽 담장과 간섭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순서5). 이는 담장지의 성격과 기단 계획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건물의 규모를 볼 때, 건물의 지붕은 조선 초기 단묘건축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정면과 측면의 비가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에 구축하기 유리한 팔작지붕이 가장 유력한 지붕형태라 할 수 있다.

2) 3차시기 웅진단 건축의 규모와 형태

3차시기 초석열의 배치에 의한 평면규모의 산정방식은 2차시기의 Grid를 이용한 방법과 일치한다. 1340년 이전의 용척인 32.21㎝와 이후의 31.22㎝ 용척을 기준으로 두 용척의 Grid를 CAD Data위에 놓아, 장적심안의 전면 퇴칸 초석배열과 후면의 단위 원형적심 및 동측 2기의 장적심안의 초석배열과의 배치비교를 통하여 초석의 적정 배치를 구성하였다(순서1, 2, 5). 표19는 두 용척을 기준으로 한 규모산정의 과정을 통한 결과이다. 두 용척 모두 척도에 의한 규모

는 정면 21尺×측면 13尺이었다. 정면은 3칸으로 각 7尺이며, 측면은 전퇴가 5칸, 내진이 8척이었다(순서4, 7). 다만, 1340년 이전의 평면의 규모는 6.762m×4.186m로 면적은 28.31㎡(8.58坪)이다(순서3). 2차시기보다 2.1평이나 적은 규모이다. 사용 용척이 32.21㎝인 점을 보면, 화재이후 20%나 적은 규모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다른 건축과의 상관관계속에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임진왜란을 통한 관아관련 건축의 복구와 맞물려 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임진왜란 이후 관아건축의 복구는 규모의 축소와 함께, 구조의 간략화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단의 규모는 전·후면 4尺(1.288m), 측면 3尺(0.966m)의 규모로 산정하였다.

〈표 19〉 웅진단 3차시기 건축 규모 산정

	1	2	3	4
1430년 이전				
	5	6	7	8
1430년 이후				

1340년 이후의 평면규모는 6.552m×4.056m로, 면적은 26.57㎡(8.05坪)이다(순서6). 32.21㎝의 용척기준 산정보다 반평의 차이가 났다. 기단의 경우 전면 5尺(1.56m), 배면과 측면은 3尺(0.936m)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용척이 작아짐에 따라, 1340년 이전의 경우보다 장적심과 원형적심에 일치되는 초석의 배열 차이에 의해 생긴 결과이다.

다. 남악사(南岳祠)

(1) 개요

- 창건시기: 통일신라 추정
- 현황조성: 2021년 발굴조사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산 71-9번지

지리산 남악사는 화엄사 인근에 있으나 화엄사와 같은 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리산 원사봉을 바라보는 북서향을 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2〉 복원된 남악사 전경

(2) 발굴조사 내용과 배치 ·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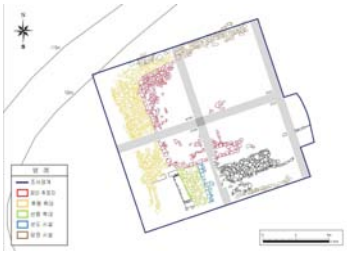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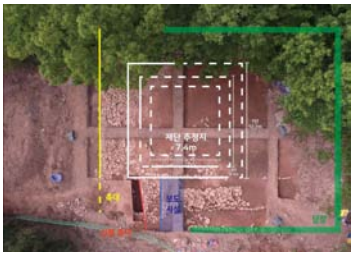
발굴조사결과 남악사지는 4기의 토층이 존재하였다. 제일 아래 지표(Ⅳ)는 구지표로 선행축대가 나타났으며, 그 위 지표Ⅲ은 갈색사질점토층으로 함몰석재가 출토되었다. 상위 지표Ⅱ 또한 갈색사질점토층으로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최상위 지표Ⅰ은 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기와가 소량 출토되었다. 남악사의 층위는 복토로 이루어진 황갈색사질점토층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보고서에서는 퇴적층의 수습된 고려시대 평기와의 출토양상으로 볼 때 남악사 이전의 건물지를 사찰로 추정하고 이 사찰의 폐기에 이은 남악사건축 건립을 추정하였다.

〈그림 13〉 남악사 발굴현장 전경

발굴조사 · 조사로 확인된 남악사의 배치는 남쪽에 가까운 남동향으로 제단과 보도, 축대, 담당 등이 확인되었다. 제단은 단과 유로 구분하며, 축대 상부에서 방형의 2단 유가 확인되었다. 최상부 제단은 경적으로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제단의 규모는 너비가 7.4m로 세종실록에 기록된 중사규모(32.21㎝)와 같다. 축대 위의 2단은 1단이 12.2m, 2단이 9.6m로 구축되어 있다. 제단 서편으로 보도시설이 남쪽으로 뻗어 있다. 제단 북편 임(壬) 방향에 예감시설의 바닥면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 또한 세종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다. 담장은 80㎝폭으로, 제단을 감싸며 동서 방향으로 연결되었으며 서로 평행을 이루었다.[30]

30) 구례군 · 나라문화연구원, 구례 남악사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21.5 참조

〈표 20〉 남악사 발굴현황 및 제단 추정

남악사 발굴 현황	남악사 발굴도	남악사 제단 추정도
		

용성지[31]에서 기술된 남악사 규모는 전우 3칸, 신문 3칸, 객사 5칸, 유생청 3칸, 지응청 3칸, 성생청 3칸, 대문 1칸, 마구 5칸으로 구성되어 총 26칸 8동 규모이다. 발굴결과 남악사는 묘(廟) 혹은 사(祠)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단묘건축이 아닌, 단(壇) 건축의 모습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제단 상부가 훼철되어 어떠한 시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과 용성지에서 지리산신사(智異山神祠)의 용어를 사용한 점은 건축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추정 제단지 남편의 추가 발굴을 통해 문간채 등 기타 건물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건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면, 7.4M의 제단지는 정면 2칸 내지 3칸 규모의 사당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남해신사도 복원도에 의하면 신당이 7.2M의 정면길이를 가지고 있고[32], 웅진단 또한 발굴결과 신당은 6.4M~6.7M의 정면길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야진사의 경우, 발굴결과 1차 건물지는 정면 2칸 규모이지만, 2차 건물지는 3칸 이상의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온전하게 남아있는 중악단의 경우 8.3M로 규모가 있는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문제는 용성지에서 말하고 있는 8동의 건축이 모두 존재하였을 것 인가하는 문제이다. 중악단의 현황과 남해신사의 발굴결과에서 보이고 있는 중문 즉 신문과 양방의 방, 대문과 양방의 방 배치는 남악사에도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다준다. 중악단과 남해신사에서 중문 옆 양편의 방(房)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주변 현감을 비롯한 관계자가 사용하였던 점은 영성지에 표현된 남악사의 건물 중 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사가 거하는 객사, 유생청은 중문 즉 신문과 연계하여 중문간채를 이루게 하여 계획할 수 있는 근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중악단과 남해신사에서 대문 양편의 방이 제사과련 물품과 관련된 방과 창고가 있는 것을 참고하여, 제사에 필요한 물품과 관련이 있는 지응청과 성생청, 마구와 대문을 연계하여 대문간채를 이루어 배치하여 계획한다면 기존의 단묘건축과 개연성 있는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남악사 남편 부속건물지의 발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유구교란에 의한 건물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을 때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31) 용성지(龍城誌) : 방두천(房斗天)이 편찬한 연대 미상의 전라도 남원군(지금의 남원시) 읍지
32) 남해신사의 복원계획 시 신당 평면규모산정은 기존 남해신사 신당 규모와 배치를 기준(자문회의 결과)으로 하였으며, 중악단을 참고하여 계획하였다. 실제 발굴 규모는 7M×9.4M로 현재 복원된 신당은 발굴결과와 다른 규모로 계획하였다.

4.1.2 발굴조사 후 신당이 복원된 악 · 해 · 독 단묘건축

가. 남해신사(南海神祠)[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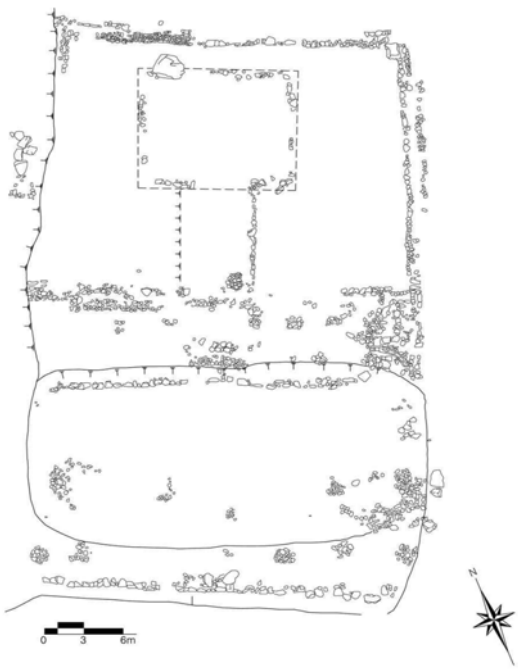
(1) 개요

- 지정번호: 전라남도 기념물 제97호
- 창건시기: 고려 현종 19년(1028, 최초기록), 조선시대 중건
- 현황조성: 1998년 발굴조사, 2001년 복원
-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1005번지

남해신사는 고려 현종 때 부터 일제침략기(1910) 이전까지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위해 국가에서 주도하여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우리나라 3대 해신사 중 하나이다. 남해신사가 위치한 지역은 당시 나주고을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1895년(고종 2)에 행정제도 개편으로 영암군에 편입되었다. 동해의 강원도 양양에 동해묘와 서해의 황해도 풍천에 서해신사, 그리고 전라도 나주에 남해신사 등 우리나라를 에워싼 3바다에 해신당을 두고 제사를 지냈다.

〈그림 14〉 현재 남해신사의 삼문과 신당의 전경

남해신사지는 1998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 결과 신당, 내삼문, 외삼문등 건물지와 담장 등 주변시설물이 확인되었다. 영암군에서는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2001년 신당과 내삼문 일부를 복원하였으며 2003년부터 영암군 주관의 해신제를 지내고 있다.



〈그림 15〉 남해신사 발굴도
(목포대학교 박물관)

(2) 발굴조사 내용

남해신사는 전형적인 유교건축 배치를 기초하고 있다. 이는 제례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향교, 서원, 단묘건축에서 그 배치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최상의 위치에 신당이 위치하고 신당아래는 보도가 있어 중문간채(내삼문)와 연결

33) 남해신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한국전통문화학교·영암군, 2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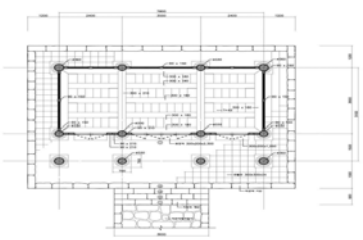
되고 있다. 삼문의 양옆에는 익실(혹은 익사)이 있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 공간 혹은 관리 공간으로 보이며, 그 아래로는 대문간채(외삼문)로 추정되는 발굴지가 있다. 상기의 도면은 발굴당시의 배치현황을 알 수 있는 발굴도로 신당과 중문간채, 대문간채의 영역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의 발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초석이 망실된 상태에서 초석 및 석렬의 기초가 조금 나타나 있었을 뿐 정확한 건축유구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영암군은 2001년에 발굴도를 기초로 한 복원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현재 신당과 내삼문만이 복원되었고, 다른 건축물과 시설물은 복원되지 않은 상황이다. 역사문헌에 의한 배치규모는 중사(中祀)규모로 양양의 동해묘와 중악단의 규모와 매우 비슷하다. 복원된 신당과 중문을 제외한 중문간채, 대문간채, 담장의 복원계획과 우물시설의 복원계획은 민족종교시설인 남해신사의 완성된 복원배치를 이루게 한다.

(3) 2003년 복원 신당

2003년에 복원된 남해신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이루진 사당건축이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으로 향교의 대성전, 서원의 사당과 같은 제사건축물이다. 남해신당은 일반적으로 제사건축에 많이 쓰이는 맞배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마곡 즉 조로(앙곡)가 있는 모습이다. 지붕의 측면을 풍판으로 막아 합각처리를 하여 측면 가구를 노출시키지 않았다.
공포구조는 1출목 2익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주심포형식의 발전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당건축의 공포형식을 주심포 혹은 출목익공을 사용함은 남해신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해신당의 익공은 그 쇠서의 내밀기가 약하고, 매우 간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부구조는 대들보와 종보로 이루어진 5량집으로 도리가 5개로 이루어진 건축이다. 종도리는 종보위의 판대공으로 받치고 있고, 내부의 의장은 조각의 경우 매우 적었으며, 단아한 모로단청으로 내부를 장식하였다.

〈표 21〉 2003년 복원 남해신사의 신당현황

신당의 전경	2001년 계획 신당복원도(은하건축)	전퇴부분의 1고주 2익공의 목구조모습
		

신당의 내부구조의 특성은 구조에 맞지 않은 충량의 존재인데, 이는 복원되기 이전의 신당의 모습을 묘사한 옛 어른들의 증언에 따라 복원 후에 추가로 설치되었다.

평면적으로는 제사건축에서 보이는 전퇴의 복도공간이 반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포부를 받치고 있는 평주로 이루어져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내부는 전면의 평주보다 높은 고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면은 전면과 같은 평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남해신당은 1고주 2익공계의 전형적인 제사건축의 목구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한국전통문화학교 추정복원안

2005년 영암군의 의뢰에 의해 계획된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정비계획안을 보면, 기존의 2003년 복원안과 다른 추정복원안을 계획하였다. 복원계획의 기본방침은 발굴도에서 나타난 현황과 영조척의 추출, 그리고 주민 인터뷰 등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3가지의 추정복원안이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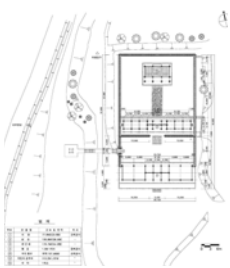
① 1차 추정복원안(중문간채, 대문간채, 고직사, 담장, 조경 등)

- 기존 복원된 신당을 이용하여 배치계획한다.
- 중문간채(내삼문)는 평지붕으로 하여 좌우에 익사를 계획한다.
- 대문간채(외삼문)는 삼문을 솟을대문으로 하여 좌우에 익사를 계획한다.
- 남해신사 관리사인 고직사를 중문간채와 나란하게 배치 계획한다.

② 2차 추정복원안 (중문간채, 대문간채, 담장, 조경, 우물계획)

- 기존 복원된 신당을 이용하여 배치계획한다.
- 중문간채와 대문간채는 1차계획안과 같다.
- 남해신사 관리사인 고직사는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에 이관하므로 계획에서 제외한다.
- 우물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복원계획한다.

〈표 22〉 남해신사 1차 · 2차 추정복원 계획안

1차 추정복원안		2차 추정복원안 조감도	
배치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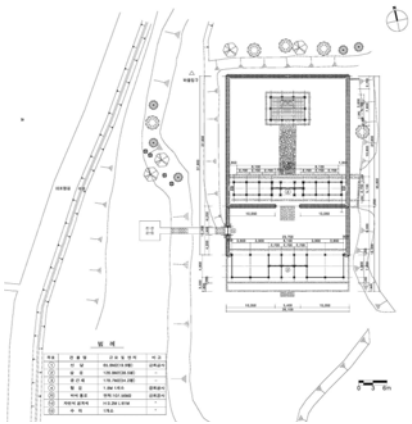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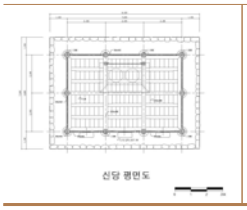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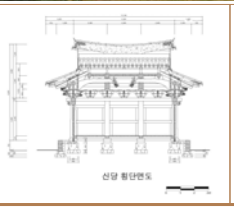
③ 3차 추정복원안 (신당, 중문간채, 대문간채, 담장, 조경, 우물계획)

- 신당 재검토에 따른 지붕구조와 구조형식을 팔작지붕에 다포구조형식으로 계획한다.
- 신당은 정면 3칸(7.2m), 측면 2칸(4.8m)의 규모
- 기둥의 형태는 남해신사의 중심건물인 신당의 격을 맞추어 둥근기둥(圓柱)으로 하여

격식과 美를 갖춘다.

- 조선시대 대표적 구조형식인 다포형식으로 도리가 5개인 5량집의 규모이다. 공포는 내·외 1출목으로 작은 규모의 공포의장의 모습이고, 출목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엄숙한 묘당(사묘)건축의 모습을 연출한다.
- 내부의장은 운궁과 파련대공으로 웅장하고 풍부한 내부공간을 만들고, 충량의 장식을 용두로 하여 용왕과의 관계를 묘사한다.
-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중악단의 지붕구조와 같게 계획한다.
- 신당의 격식을 높이고자 지붕 처마마루에 잡상을 배열하고, 창방과 평방을 연결하는 안초공을 정면 밖에는 용두(龍頭)를, 내부에는 용미(龍尾)를 장식하여 용왕신(海神)이 거주하는 공간을 묘사하였다.

〈표 23〉 남해신사 3차 추정복원 계획안

3차 추정복원안 배치도	3차 추정복원안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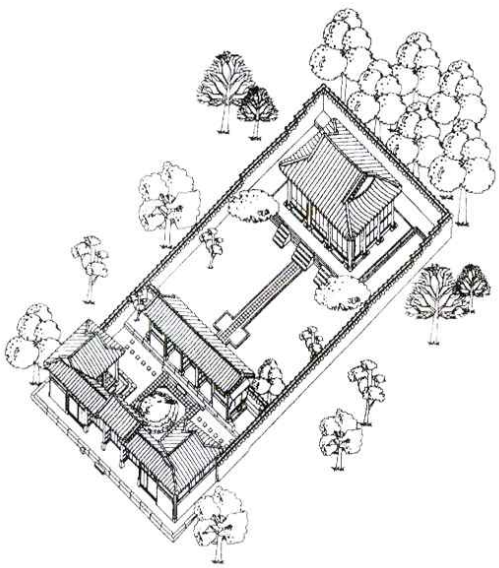
4.1.3 신당이 유지된 악 · 해 · 독 단묘건축

가. 중악단(中嶽壇)

- 지정번호: 보물 1293호
- 창건시기: 1394년(조선 태조3)
- 현황조성: 1876년(고종 16년)
- 위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

〈그림 16〉 중악단 전경

〈그림 17〉 중악단 대문간채 전경



〈그림 18〉 중악단 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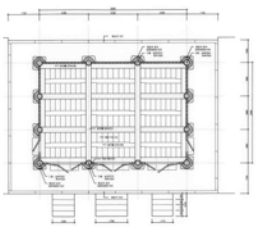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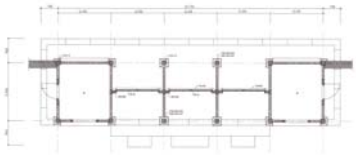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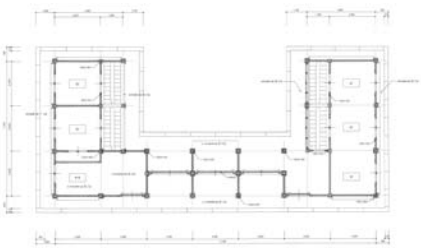
중악단은 1394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고 조선 고종 16년에 월주(月珠)화상이 중수하였으며 명성황후가 상악단-묘향산, 중악단-계룡산, 하악단-지리산으로 개칭, 봄, 가을로 향(香), 축(祝), 폐(弊)로 국가에서 제(祭)를 올렸다. 중심축선을 벗어나지 않는 좌우대칭의 배치수법은 전형적인 단묘(壇廟)건축이다. 옛 부터 이러한 배치기법은 단묘 건축이나 권위를 유지해야하는 건축에 철저히 적용되어 왔다. 중국의 천단(天壇), 지단(地壇)의 각종 시설물도 이러한 배치기법을 따르고 있고, 서울의 사직단(社稷壇), 종묘정전 등에서 엄격한 중심축선 대칭적 배치를 볼 수 있다. 중악단에서도 이와 같은 단묘 건축의 배치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악단의 배치는 중심축선을 따라 대문간채, 중문간채, 중악단 본전이 나란히 배치되고 주위를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크게 2개의 마당으로 형성된다. 하나는 대문과 중문 사이의 앞마당(前庭)이고, 또 하나는 중문을 들어서면 본전(중악단) 앞에 만들어진 중정(中庭-중심마당)이다. 전정(前庭)의 크기는 약 10m×10m정도이다. 대문간 좌우에는 실을 2칸씩 덧붙여 정면 7칸으로 만들고 양 끝에서 후면으로 2칸씩 'ㄱ'자로 꺽어진 실을 연결했다. 전정과 본전 사이에는 정면 5칸의 중문채가 횡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이 중문채는 가운데 3칸을 문으로 만들고, 좌우 1칸씩은 방을 꾸몄다. 대문간 채와는 달리 평면이 '一'자형이다. 중문채와 본전 사이에는 가운데로 길게 한단 높인 일종의 '신도(神道)'가 있다. 이 길의 폭은 1.55m로 양쪽에 장대석을 놓고 가운데에는 바닥(塼)을 깔아 두었다. 주변 담은 제일 하단에 자연석을 깔고 위로 갈수록 점차 작은 돌을 삼회물로 쌓아 올라가다가 상부에서 와편으로 문양을 넣어 마무리하였다. 신원사 중악단의 전체 영역을 구성한 형식은 유교의 사당형식이고, 대문채와 중문채를 구성한 수법은 대갓집의 주택형식, 그리고 본전 건물은 불교법당 형식이다. 본전의 지붕은 궁궐건물같이 장식이 되어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다.[34]

중악단의 건물은 총 3동이 존재한다. 신당과 신문 기능의 중문, 그리고 대문과 부속실로 이루어진 대문간채이다. 각 건물의 규모는 신당의 경우, 정면 3칸×측면 3칸, 중문은 정면 5칸×측

34) 공주시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공주 고마나루 웅진단 학술세미나-웅진단과 祀廟건축, 2011.12 참조

면 1칸, 대문간채는 정면 7칸×측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당 9칸, 중문 5칸, 대문간채 13칸(퇴칸 0.5칸×4=총 2칸 포함)으로 총 27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계룡 중악단 평면도

신당 평면도	중문(신문) 평면도	대문간채 평면도
		

4.2 동해신묘 정전의 문제인식과 발굴조사결과

4.2.1 동해신묘 정전의 문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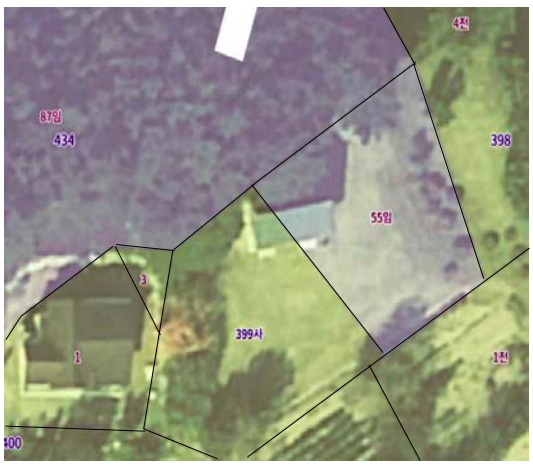
동해신묘 정전은 1993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39외 1필지에 복원되었다. 앞 3.3 동해신묘의 건축현황에 정전에 대한 건축현황에서 정전의 위치와 형태, 규모가 설명되어 있다. 복원된 정전건축의 첫 번째 문제인식은 복원위치이다.

지도와 지번이 합쳐진 사진을 살펴보면, 정전의 위치가 조산리 399사와 434-55임에 걸쳐 세워져 있다. 정전의 면적은 399번지보다 오히려 434-55번지에 더 넓게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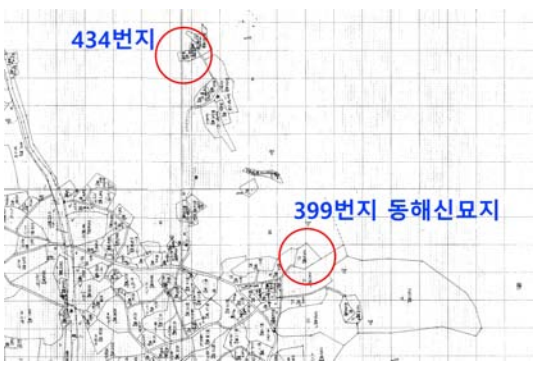
정전 복원 시 399번지와 434-55임이 합쳐진 필지가 동해신묘의 필지일 것이라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16년 지적원도를 검토하여 보면, 399번지 동편의 434-55번지는 찾을 수 없다. 434번지는 399번지 북편의 해안가에 위치한 밭(田)이었다.

지적이 합필이 되고 분필이 되면서 399번지 옆산이 434번지의 55임으로 분필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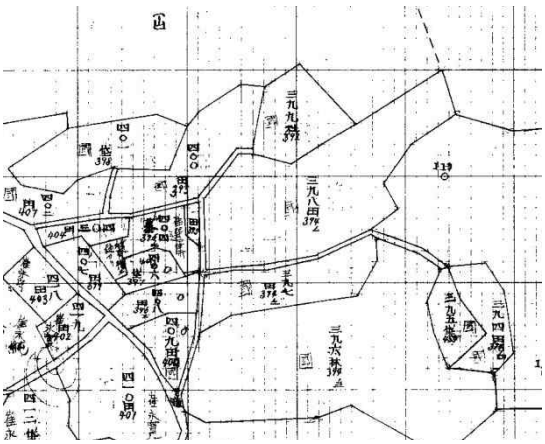


〈그림 19〉 동해신묘 항공사진과 지적상황



〈그림 20〉 1916년 399번지와 434번지

〈표 25〉 현재의 동해신묘 정전 위치의 지적비교

동해신묘의 지적도 현황	1916년 지적원도의 399번지
	

그러나 복원계획에 있어, 근거없는 추정은 차후 복구할 수 없는 오류를 만든다. 1916년 지적원도의 상황은 동해신묘가 훼철된 지 8년 후에 제작된 지도이다. 동해신묘의 훼철당시 현황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지적원도에서 표현된 지적상황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을 해야 한다. 따라서 1993년 복원된 정전의 계획은 정전의 위치변경 결과를 가져온 것과 함께, 공사 중 기존 유구의 훼손 또한 가져왔기에 긍정적인 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유교사당 건립에 있어 필요한 건립대지와 기존에 존속되었거나 복원된 악 · 해 · 독 사당의 현황[35]을 통해 동해신묘의 건립필요성이 대두되어 복원을 진행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복원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우선 발굴조사에 대한 사업실시 내용을 제시한다. 본 사업은 발굴 이전에 복원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은 당시 발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다만, 지적원도의 399번지 이외의 지역에 복원을 하였다면, 이후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동해신묘의 현황이 밝혀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4.2.2 동해신묘 발굴결과와 현재 정전의 위치

1998년 초겨울에 실시한 발굴결과는 정확한 건물의 위치는 발견되지 않은 4곳의 석렬 유구가 출토되었다.

<그림 21>은 지적이 보이는 항공지도에 발굴유구도면을 겹쳐 석렬 유구의 명확한 위치를 알고자 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석렬은 동남향을 하고 있으며, 위치 또한 399번지의 하단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가야진사(1708년 중수, 인근대지에 1965년 이건), 중악단(1876년 창건), 남악사(1969년 화엄사에 복원), 곰사당(1982년 인근대지에 복원), 남해신사(2003년 기존 대지에 복원)

〈그림 21〉 항공지도와 발굴유구

석렬유구 1은 군 초소의 정지작업과 공사과정에서 밀려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유구의 길이와 방향 그리고 석재의 종류는 유적의 성격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석렬유구 1의 상부에 위치한 냇돌 크기가 기단석을 이루는 유구의 크기보다는 작지만, 충분히 기단 또는 건물유적과 관련이 있는 규모이고, 길이 또한 8m로 정전 혹은 문간채를 이루는 규모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부의 작은 냇돌로 이루어진 유구가 10m의 길이로 나타나 기단과 관련된 석재군일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석렬유구 2의 경우는 석렬유구 1과 수직의 방향으로 석렬을 이루고 있으며, 3.5m의 길이로 노출되었다. 3.5m는 정전 기단 일부, 혹은 1칸 규모의 문간채의 측면 폭으로 가능한 길이이다. 다만, 북서방향으로 석렬이 더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굴조사에서 담장지라고 추정하고 있는 석렬유구 3의 위치는 399번지 지적에서 서남편의 꺽어진 위치와 같다. 1916년 지적원도에서 남서편의 진입도로가 있는 것(표 11참조)을 보면, 입구까지 연결된 담장으로 판단된다.

석렬유구 4는 5기의 석재유구가 일렬로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편열이 일직선을 보이고 있는 점은 석렬유구 2와 석렬유구 3과 같이 건물 혹은 담장의 끝부분을 말해주는 유구라 할 수 있다. 석렬유구 4의 위치로 보아 건물지 혹은 보도시설[36]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 발굴결과에 따른 유구의 분포를 살펴볼 때, 정전의 위치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유구가 발견된 399번지 남쪽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유구가 문간채일 경우 현재 정전의 서편과 서남편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건물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석렬유구 1과 2, 그리고 4를 기준으로 한 정전의 위치를 추정한 비교분석 표이다. 석렬유구 1과 석렬유구 2가 동시에 정전의 기단위치라고 한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정전은 399번이 하단에 위치하며, 문간채와 같은 부속채의 입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의 도면은 석렬유구 2가 정전의 기단 서남편 위치라고 추정하였을 경우의 모습이다. 399번지 하단에 문간채의 입지확보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석렬유구 4의 위치가 정전 기단의 일부라고 추정한다면, 399번지 북편 중앙에 정전이 위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인 배치계획 시 적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석렬유구 2는 부속채의 기단부분일 가능성이 생긴다. 기단면 면석방향이 서남의 방향으로 건물 왼편의 기단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부속채의 배치가 쉽지 않다. 규모가 작은 1칸 정도의 부속채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기단석

36) 중악단과 남해신사지, 가야진사, 그리고 남악사지에 건물(지)과 문간채를 연결하는 보도시설이 있다.

렬 1의 기능을 문간채로 보았을 경우 적합한 배치라 할 수 있다.

〈표 26〉 발굴결과 동해신묘의 정전의 향

석렬유구 1과 석렬유구 2가 정전일 경우	석렬유구 1과 석렬유구 2가 정전일 경우	석렬유구 4가 정전일 경우

4.2.3 발굴결과와 악 · 해 · 독 단묘건축 건물(지) 비교분석

발굴결과에 따른 정전위치는 앞 절에서 다룬바와 같이 석렬유구 2와 석렬유구 4의 경우가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399번지와 관련된 주변의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1차 발굴만이 조사된 상황에서는 발굴조사 보고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를 정하고 기타 부속건축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된 여지도서의 건물의 기능과 칸수를 살펴보면,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 백천문 1칸으로 총 16칸이다. 중사규모의 국가제의 시설로는 규모가 크지 않다. 중악단은 27칸, 남악사는 26칸, 남해신사는 22~26칸으로 최소 20여칸이 넘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중악단의 현 모습과 남해신사의 발굴결과는 악 · 해 · 독 단묘건축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단지에 신당과 여러 기능이 조합된 문간채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발굴조사 시 훼손에 의해 더 넓은 지역이 조사되지 못한 남악사와 웅진단, 그리고 가야진사 또한 문간채 존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가능한 배치구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당과 문간채의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사례인 중악단과 남해신사의 신당과 문간채(중문간채, 대문간채) 도면을 항공사진과 지적도, 그리고 발굴배치도를 혼합한 도면(동해신묘 현황지도)과 겹쳐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399번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 배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악단 본전과 남해신사 신당 평면의 규모를 살펴보면, 중악단 본전은 규모가 기단 포함 8.45m×11.78m이고, 남해신사 신당의 규모는 기단포함 7.8m×10.2m이다. 현재 동해신묘 정전의 규모가 8.46m×5.08m로 이는 기단을 제외한 규모이다, 기단이 1.2m정도 폭으로 하여도 정면 10m가 넘는 규모이다. 반면에 폭은 7.48m로 동해신묘 정전의 측면 폭은 다른 악 · 해 · 독 단묘건축 보다 좁다.

〈표 27〉 동해신묘 현황지도와 중악단 · 남해신사 건축비교

중악단 본전	남해신사 신당

<표 27>는 중악단 본전과 남해신사 신당 도면을 동해신묘 현황지도에 겹친 모습이다. 중악단 본전의 경우 왼쪽 상단 도면을 살펴보면, 기단 북서 끝단이 동해신묘 석렬유구 2의 끝과 만나고, 기단석렬 1의 위치와 남측면 기단 끝단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악단 본전의 규모가 제법 커서 399번지 중앙에 두 곳의 기단석렬을 모두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왼쪽 하단의 중악단 본전 기단이 석렬유구 4에 겹치는 도면의 경우, 기단석렬 1에 문간채를 구성할 수 있는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남해신사의 신당의 경우,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동해신묘 석렬유구 1과 석렬유구 2를 모두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렬유구 2(상단 도면)의 위치와 석렬유구 4의 위치를 각각 기단의 일부(하단 도면)로 보아 배치할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기단석렬 1에 문간채를 설치할 수 있는 배치가 가능하다.

중악단과 남해신사의 문간채를 동해신묘 현황도면과 겹쳐 비교하면, 우선 남해신사의 대문간채는 그 규모가 커서 동해신묘의 현황지도에 겹치게 되면 대지 경계를 크게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조합은 중악단 본전과 중악단 중문간채 · 대문간채, 남해신사 중문간채를 비교하고, 남해신사 신당과 중악단 중문간채 · 대문간채, 남해신사 중문간채를 비교하였다.

<표 28>을 보면, 중악단 본전 기단을 기단석렬 2에 맞추어 배치(표 상단 도면)하면, 중악단 중문간채와 대문간채, 남해신사 중문간채 모두 399번지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지경계선에 기단이 닿는 경우는 문 또는 방 크기를 조절하여 건축물의 전체 폭을 줄이는 설계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표 28〉 동해신묘 현황지도와 중악단 본전과 부속건축비교

중악단 본전+ 중악단 중문간채	중악단 본전+ 중악단 대문간채	중악단 본전+ 남해신사 중문간채

그러나 중악단 본전 기단을 기단석렬 4에 맞추어 배치(표 하단 도면)하면, 중악단 중문간채와 남해신사 중문간채는 중악단 본전 중앙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해야 하는 문제를 수렴하지 못하고 대지를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단석렬 4에 본전을 배치 할 경우는 중악단 대문간채 만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석렬유구 2에 측면 1칸 규모의 부속채를 배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표 29>는 동해신묘 현황지도에 약 7m 정도의 가로 폭을 가진 남해신사 신당을 겹친 분석 자료이다.

표 상단의 도면은 남해신사의 신당 기단이 석렬유구 2에 위치한 배치도로 중악단 중문간채와 대문간채, 그리고 남해신사의 중문간채 모두 배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악단의 중문간채와 남해신사의 중문간채 기단 서남모서리는 대지경계선과 맞닿거나 약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설계를 통해 간사이를 줄이면 가능한 문제이므로 분석 대상에 넣었다.

〈표 29〉 동해신묘 현황지도와 남해신사 신당과 부속건축비교

남해신사 신당+ 중악단 중문간채	남해신사 본전+ 중악단 대문간채	남해신사 본전+ 남해신사 중문간채

남해신사 신당 기단을 석렬유구 4에 위치하여 배치(표 하단 도면)하면, 중악단 중문간채의 경우 동쪽 모서리가 대지에 벗어나게 된다. 이는 설계를 통해 문과 방 크기를 조절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중악단 대문간채의 경우는 399번지 대지에는 충분히 수렴하나, 기단 폭이 석렬유구 1보다 안쪽으로 배치된다. 이 또한 문과 방 크기를 조절하는 설계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남해신사 중문간채와의 분석이다. 중문간채 동편 1칸이 대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칸수계획에서 좌 · 우 1칸씩을 줄여 설계하거나, 동편 2칸, 서편 3칸의 비대칭의 중문간채 설계로도 배치가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남해신사 신당을 석렬유구 4에 배치하면, 석렬유구 2에 측면 1칸 규모의 부속채를 배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중악단 본전과 남해신사 신당의 중악단 중문간채 조합은 중악단 중문간채가 ㄷ자모양의 배치로 인하여 두 건축물의 기단과 기단사이가 매우 좁게 되는데, 이는 지붕설계와 규모조절을 통해 충분히 건축계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여지도서에 나오는 16칸의 건축은 중악단 중문간채와 같은 'ㄷ' 형태로 계획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삼문 좌우에 전사청 등의 창고를 두고, ㄷ자에서 북쪽으로 꺾어진 동 · 서 각 2개의 방은 동재와 서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1칸의 백천문은 399번지 서남편의 길 입구에 일각문을 세우면 된다.

중악단 본전 · 남해신사 신당과 중악단 대문간채 · 남해신사 중문간채 조합은 대체로 가능하다. 그러나 남해신사 중문간채에서, 삼문 좌우의 동 · 서3칸 구성은 여지도서의 동 · 서재와 전사창2칸의 칸수인 6칸을 수용할 수 있으나, 대지를 벗어난 규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문과 좌우에는 2칸 이하의 규모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칸수는 별동[37]을 지어 그 기능을

수용할 수 있게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발굴 및 현황에 명확히 나타난 악·해·독 단묘건축에서는 별동의 건축보다는 중문간과 대문간을 이용하여 모든 기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문간채를 이용한 공간계획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38]

4.3 동해신묘 정비방향 제언

동해신묘는 현재 1동의 정전건축물이 있으며, 주변에 국가제의시설로서의 부속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악단이나 남해신사의 경우, 옛 부터 내려오는 그 자리에 단묘건축 시설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복원계획을 통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옛 건축의 자리에 짓지 못하였더라도 웅진단, 가야진사, 그리고 남악사와 같이 인근, 혹은 다른 지역에 복원된 건축으로 지역의 국가제의시설로서 강조를 한다.

그러나 동해신묘의 장소는 옛 시설의 위치와 매우 근접하면서도 건축은 복원을 통해 새롭게 조성하였다. 1993년에 복원하였으니, 29년이 흘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전을 복원 한 후, 정전을 제외 한 주위에 발굴조사를 통하여 석렬유구만 조사되어 건축방향만 밝혀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진정한 정전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첫 번째는 정전의 위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발굴조사의 중요성

정전의 위치는 399번지와 434-55번지 중간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399번지와 그 주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진정한 정전의 위치를 찾은 후 다시 그 자리에 정전을 발굴조사 결과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물론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기본계획을 통하여 복원시점 결정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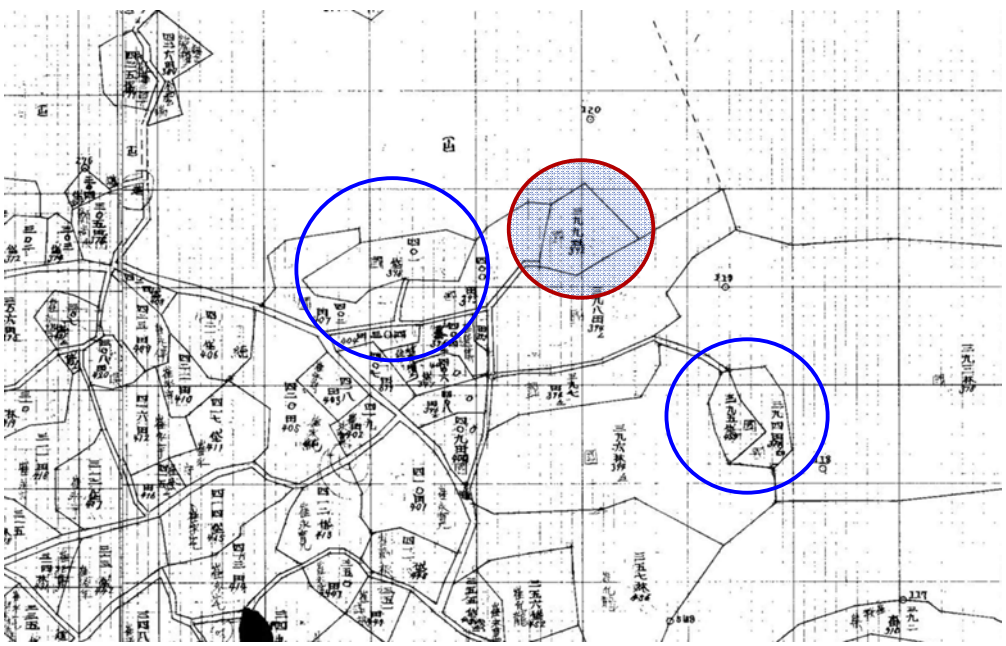
37) 악해독 단묘건축에 별동을 지어 운영하도록 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3일 계묘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 議政府議啓曰:
嶽、海、瀆、山川, 或壇、或廟, 非特古制, 國都所祭山、川、風、雲、雷、雨及先蠶、先農, 竝皆有壇而無廟, 則外方嶽、海、瀆、山川, 國行無祠廟處, 不必立廟, 或壇、或廟, 竝令仍舊。 藏主室及神廚庫房營構則人家隔遠, 海曲深山, 雖定看守人, 守護甚難。 國行則神廚庫房各二間, 待豐年營造。 所在官祭所, 其未搆藏主室及廚庫者, 擇官舍內淨處, 別搆一室, 藏神板祭器, 臨祭令齋沐人輸于祭所, 壇廟看守人則近處住居人一戶復戶委定。…"

38) 남악사의 경우, 용성지에 의하면,
"지리산지신(智異山之神)'이며, 매 봄과 가을, 정조(正朝, 설날)에 치제하였다. 헌관(獻官)은 당상관(堂上官)이 맡았으며 대축(大祝)은 수령, 집사(執事)는 생진교생(生進校生)이 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관에서 준비하였다. 건축에 대한 대목이 있다. 예전의 전우(殿宇)가 3칸이어서 제관의 방이 없어 주위의 촌가(村家)를 사용하여 불편하였기 때문에 정사년(1677년 추정)에 객사(客舍) 5칸, 유생청(儒生廳) 3칸, 지응청(支應廳) 3칸, 마구(馬廏) 5칸, 대문(大門) 1칸을 지었고, 남원부사 정동설(鄭東卨, 1678년 남원부 부임)은 루(樓)가 있는 신문 3칸, 루(樓)가 있는 성생청(省牲廳) 3칸을 건립하였다."라고 하여 용성지에 기술된 남악사의 단묘건축의 규모는 총 8동 26칸으로 중사규모의 격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기에 별동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신문이 있는 중문간과 대문간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어, 건물의 동수가 총 8동 보다는 더 적을 수 있다.

그 시점에 지어진 단묘건축 혹은 유교 관련 건축의 연구를 통하여 복원 계획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정전의 해제와 이건, 그리고 발굴조사, 기본계획, 그리고 이전 실시계획을 통하여 진정성의 회복을 가져와야 한다.

▪ 두 번째는 완전한 동해신묘의 복원을 위해 부속건축의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발굴조사는 비단 399번지만이 아닌 주변의 관련 국유지를 포함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앞의 각주 37을 보면, 중심사역에만 단묘건축이 위치하지 않고 주변의 민가를 이용한 내용도 있다. 따라서 1916년 지적원도에서 표현된 국가소유의 대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399번지 주위를 살펴보면, 399번지 동남편에 동해바다에서 동해신묘와 인근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 입구와 같은 대지가 있다. 395번지이다. 그리고 399번지 서편에 401번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서쪽에서 양양부와 남쪽의 강릉부에서 오려면 거쳐야 하는 지번으로, 지방관들이 치제해야 하는 중사규모의 단묘건축인 동해신묘의 성격과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 1916년 지적원도의 조산리 399번지와 그 일대

▪ 마지막으로, 주변의 문화유산 및 관광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계획이 필요하다.

동해신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영암 남해신사와 계룡산 중악단, 지리산 남악사, 공주 웅진단, 양산의 가야진사 등은 인근 문화유산과 관광시설과 연계된 계획을 통하여 다수의 관광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암의 남해신사는 처음 신당을 복원했을 때는 신당건축 1기만 언덕에 위치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지속된 영암군의 문화유산 관련 계획을 통하여 영암 마한문화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남해신사를 배치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남해신사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단묘건축을 교육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계룡산

중악단은 계룡산 신원사의 일원에 있어 계룡산과 신원사를 찾는 신자와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사찰이 관리하는 단묘건축과 불교건축의 유사성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지리산 남악사는 화엄사를 방문하는 신자와 관광객이 화엄사에 접근하는 동선 상에 남악사가 자리 잡고 있어 남악사의 존재와 건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주의 웅진단과 양산의 가야진은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웅진단은 인근에 무령왕릉과 공주 한옥마을, 그리고 공주박물관이 있어 하나의 백제역사문화권으로 포함되어 공주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양산의 가야진사 또한 가야진사 둘레 길과 가야진 용신제를 기준으로 하여 용신설화 테마 광장, 용의 언덕, 어린이 놀이터, 골프장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레저시설로 발전하여 인근 주민과 관광객이 다수 이용하고 있다.

현재 동해묘는 악·해·독 단묘건축 중 가장 중요한 시설로 인지되었고, 관련설화 및 동해 명칭과도 연관이 있어 이를 활용한 문화유산 테마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근 진전사지는 한국 선종의 태생지로 불교와의 연계, 즉 민간신앙과 불교, 그리고 유교에 이르는 사상적 연계를 한 테마 또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낙산사와 낙산해수욕장의 레저시설의 연계를 통한 가족의 방문을 위한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

5. 결론

동해묘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산천 악·해·독 단묘건축 중 가장 중요하게 치제되었으며, 1908년 일제 통감부에 의해 강제로 훼철 당했지만, 1993년 정전 복원을 통해 국가제의시설로서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 복원 후의 발굴조사는 문화유산으로서 동해신묘의 진정성과 완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발굴조사된 내용과 모습으로는 온전한 단묘건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사역과 주변에 대한 추가적인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해 진정한 동해신묘의 배치와 건축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굴조사 후 정비기본계획이 성립되어 문화유산 활용과 인근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의미있는 관광 콘텐츠와 볼거리를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추가 발굴조사 후 보다 면밀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이 있는 정비계획을 통해 온전한 동해신묘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주제발표 4

동해신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

이 학 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동해신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

- 인간과 귀신의 교감으로 양양을 용오름 도시로 만들기 -

이 학 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1. 서론
2. 시공세계글쓰기와 반(反)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동해묘의 활용방법
 1) 시공세계글쓰기의 활용
 2) 반(反)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인간성 회복, 인문주의에 기초한 5차 산업혁명
3. 동해신사로 본 문화의 전승과 창작, 그리고 변화
 1) 문화의 전통유지를 위한 계승 - 전통계승론
 2) 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재해석 - 전통활용론
 3) 창작으로 전통문화 만들기 - 전통창작론
4. 결론

1. 서론

이 글은 양양의 동해신사(또는 동해신묘, 동해묘)가 전승돼 온 현상을 바탕으로, 그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확장을 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시공세계와 반(反) 4차 산업혁명의 구도 차원에서 전통계승론, 전통활용론, 전통창작론이란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본다. 전통계승론은 옛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방법이고, 전통활용론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전통창작론은 창작으로 새로운 전통콘텐츠로 만들어 양양문화를 계승하는 방법이다. 이런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은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에 양양에서도 동해신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 취지는 동해신사가 갖고 있는 동해용왕에 대한 인식에 두었다. 이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인간과 귀신에 대한 교감(交感)과 관련이 된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갖고 살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삶의 공간을 차지한 것이 귀신과의 교감이었다. 무엇을 하든 귀신과 잘 사귀어야만 인간의 생활이 편안하고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병을 옮기는 악귀(惡鬼)는 가두거나 쫓아내고, 신(神)은 공경해서 풍요와 안녕을 돕도록 유도했다. 원한이 맺힌 귀신은 원한을 풀어주어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방법은 이미 옛날부터 행해졌다고 생각한다.[1] 요즘처럼 기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귀신을 통한 교류 또는 교감의 방식으로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인간과 귀신의 교감을 바탕으로 동해묘의 활용을 통해 인간성 회복이란 측면에서 이 논문을 작성할 것이다. 이는 과거와 미래의 자원을 현재적 가치로 치환하는 시공세계 글쓰기를 접목시키면 더욱 확고해 진다.[2]

문화(文化)는 인간활동의 총체적 현상이다. 그것도 오랜 전통과 글[文]이라는 최고의 인간 사고표징(思考表徵)을 통해 만들어낸 삶의 표상이다. 이 때문에 문화의 범주는 구획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문화를 얘기할 때는 문화 앞에다가 표징의 수식을 넣어서 지칭을 한다. 곧 음식문화, 주거문화, 풍류문화, 신앙문화 등으로 지칭을 해서 표현한다. 그래야만 구체성이 드러나서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동해신사 모습(2022)

여기서 문화가 인간 활동의 총체적 현상이라고 해서 문화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동해신사도 우리의 문화적 속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동해신사는 신앙문화(信仰文化)의 결정체이다.

1) 이학주, 「『금오신화』의 4차 산업혁명 성향과 글쓰기 교육 활용」,『어문논집』77, 중앙어문학회, 2019, 125~148쪽.
2) 이학주, 「인제 마의태자설화의 문화적 의미와 관광문화콘텐츠 방안: 시공세계글쓰기와 고전의 현대적 활용」,『동방학』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207~237쪽.

동해신사의 신앙주체는 해신(海神)인 용문화(龍文化)이다. 이 때문에 동해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용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용문화의 교리나 근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해신사를 중심으로 행해져 온 해신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인식론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왜 용문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해신사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 요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차원이다. 그 원인은 아주 많다. 그 가운데 동해신사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해야만 한다. 특히 양양의 동해신사는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아주 가늘게 그 전통만 이어올 따름이다. 동해신사의 기록도 여러 문헌에 전하고 있지만 누구든 활성화 차원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 위치가 강릉이었는데, 양양으로 옮겼다. 중사(中祀)로 나라에서 제수를 보내왔다. 양양현감이 동해신사에서 제향을 올렸다. 이런 정도의 기록이다. 이런 기록을 모아서 학자들은 역사를 논하고, 신앙을 논했다.

그 때문에 그동안 동해신사에 대해서 논한 자료와 논의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있는 자료를 다시 배치하는 수준이었다. 가끔 새로운 자료를 역사서에서 찾아내지만, 그 또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더 보탤 나름이다. 물론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 계속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야 한다.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

이에 양양에서는 동해신사에 대해서 1997년 학술강연회를 갖고, 정영호가 「양양동해신묘의 복원과 용신도」를 발표하고, 장정룡이 「양양동해신묘와 양양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발표한 적이 있다.[3] 이 발표는 동해신사의 복원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학술강연이었

다. 이에 앞서 장정룡은 「동해신묘의 문화적고찰」[4]을 했다. 이 논문에서는 관련 설화를 모아 기록했다. 그리고 이기용이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를 제27회 향토문화자료 공모전에서 발표했다.[5] 이 발표문도 역사적 자료나 이미 알려진 자료를 찾아서 고증하는 방식이었다. 정영호는 「동해묘에 관한 소고」[6]를 발표했다. 양언석은 「동해신사고찰: 명칭을 중심으로」[7]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양양군지』[8], 『성소부부고』[9] 등의 자료에 동해신사에 관한 자료와 고증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를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시공세계글쓰기와 반(反)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동해묘의 활용방법

동해신사의 제의는 나라에서 제수(祭需)을 내려 제사하는 중사(中祀)였다. 동서남북 해신사(海神祠) 가운데 하나로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곳 양양에 동해신사가 있었던 것은 고려의 서울 개성에서 볼 때 정동(正東)에 위치했기 때문이다.[10] 그래서 서해신사는 정서(正西)인 황해도 풍천(豊川)에 세워졌고, 남해신사는 정남(正南)인 전라도 나주(羅州)에 세워졌다. 지금은 그 지역이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마한문화공원 내로 변했다. 북쪽은 바다가 없어서 두만강신사(豆滿江神祠), 북서편은 압록강신사(鴨綠江神祠)를 모셨다.[11]

이들 신사는 그동안 연구한 논의를 보면 신라 말 또는 고려 초부터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의 남해신사 기록으로 보아 1028년(현종19) 이전에 동해신사를 모셨다고 추정하고 있다.[12] 『양양군지』에서는 991년(성종10)에서 1102년(숙종7) 사이에 건립되었다고 보았다. 중간에 몇 번의 중수와 훼철과 복원이 있었다.[13]

이들 신은 "고려시대 해신(海神)은 국가수호, 국태민안, 풍농 풍어뿐만 아니라 바다와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졌던 것으로 보인다."[14]고 했듯이 그 역할이 넓었다. 이로 보면 동해신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

3) 『양양동해신묘에 대한 학술강연회 발표요지집』, 양양문화원, 1997.
4) 장정룡, 「동해신묘의 문화적 고찰」,『동해안연구』7, 강릉대학교동해안지역연구소, 1996, 1~18쪽.
5) 이기용,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제27회 향토문화자료 공모전』, 전국문화원연합회, 2012.
6) 정영호, 「동해묘에 관한 소고」,『청람사학』1, 청람사학회, 1997, 1~12쪽.
7) 양언석, 「동해신사고찰: 명칭을 중심으로」,『강원민속학』33,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0, 189~216쪽.
8)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1560~9쪽.
9) 허균, 『국역성소부부고』Ⅱ, (주)민문고, 1989, 320~3쪽.
10)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3권, 세조2년 3월 28일 정유 3번째 기사. " 동해·남해·서해의 신사(神祠)는 모두 개성(開城)을 기준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또한 방위(方位)가 어긋납니다."
11) 양언석, 앞의 논문, 194쪽.
12) 이기용, 앞의 논문, 9쪽.
13)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1561~2쪽.
14) 이기용, 앞의 논문, 6쪽.

또한 이곳에는 관련 설화가 있다. 장정룡에 의하면 <수로부인 해가설화>, <김자락공 용궁설화>, <허균의 동해용왕묘 설화>, <등명사 폐찰 설화>, <동해송 금란>, <구전 동해신묘이야기>이다. 그리고 허균과 남공철의 비문도 있다.[15] 이들 설화는 동해신사를 현대적 콘텐츠로 활용하는데 절대적인 자료이다.

이 자료는 동해신사를 배경으로 그동안 기록된 여러 자료를 압축하여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세계글쓰기와 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공세계글쓰기의 활용

동해신사는 고려시대부터 있어 왔던 오랜 전통을 지닌 제의이다. 그것도 나라에서 제수를 보내서 나라의 수호(守護)와 태평(太平)과 풍농(豐農)과 풍어(豐漁)와 기우(祈雨)를 행하는 제의이다. 상당히 중요한 제의이다. 그런데 이 제의는 그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양상도 궁금하다. 이 때문에 동해신사에서 과거에 행했거나 미래에 행할 제의 양상과 형태 등을 온전히 현재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간여행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시간여행을 해서 그 당시의 제의와 그에 얽힌 사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시공세계(時空世界)글쓰기가 있다.

양양동해신묘지 이정안내문

시공세계글쓰기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이야기를 글감으로 끌어와 글을 쓰는 방법이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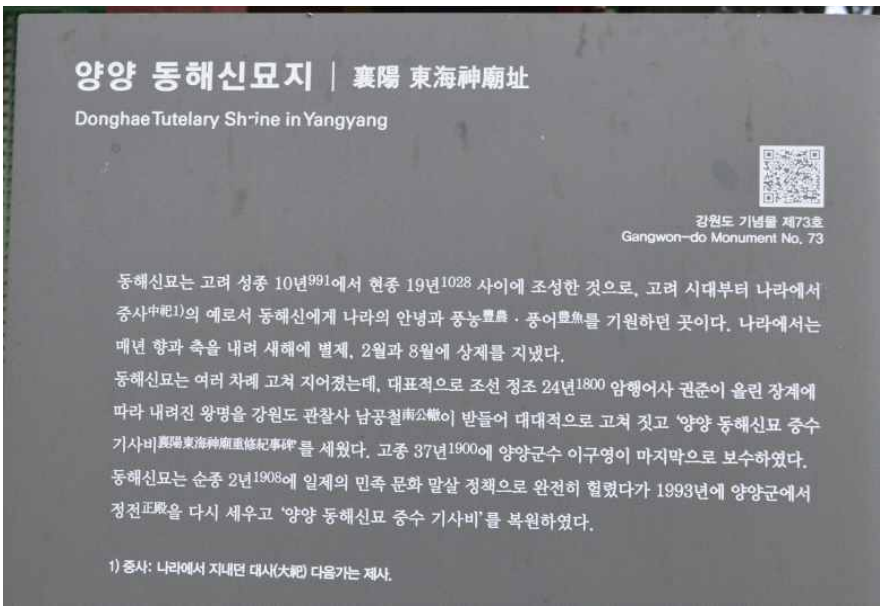
15) 장정룡(1996), 앞의 논문, 1~18쪽.

16) 이학주(2017), 앞의 논문, 207~237쪽 참고. 본고에서 논의하는 시공세계글쓰기는 모두 이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일일이 주석을 따로 달지 않는다.

주제와 관련된 글감을 현재의 사실에만 국한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로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끌어오는 방식이다. 이는 세공세계라는 용어에서 차용한 방법이다. 시공세계(時空世界)는 3차원의 시공에 4차원의 시간을 가져와 형성된 시공이다. 이 때문에 시공세계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계인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물론 이 이론은 1895년 웰스의 4차원 이론을 도입한 소설 <타임머신>에서 비롯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공하여 작품으로 만들고, 미래의 상상을 가공하여 작품으로 만든다. 이런 가공의 세계가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그 때문에 시공세계글쓰기를 통하면 동해신사의 동해용을 현재 우리 앞에 살려낼 수 있다. 동해신사의 용이 하늘로 오름하는 용오름 광경을 해오름 양양(襄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오름이 용오름으로 함께 하는 순간이 펼쳐질 수 있다. 동해의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 그곳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조화를 부리는 장면을 연출해 낼 수 있다.

21세기의 지구촌 문화코드는 시공을 초월한 시공세계의 실현에 있다. 가상의 세계가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기계인간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 가상의 세계를 현재에 가져와서 현재적 가치를 창출해 내자는 것이다. 요즘 가상현실(假想現實, Virtual Reality,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 증강현실(增强現實, Augmented Reality,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복합현실(複合現實,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혼합한 기술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것처럼 구현한 기술이다.) 등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모두 시공세계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양양 동해신묘지 | 襄陽 東海神廟址
Donghae Tutelary Shrine in Yangyang
강원도 기념물 제73호
Gangwon-do Monument No. 73
동해신묘는 고려 성종 10년991에서 현종 19년1028 사이에 조성한 것으로, 고려 시대부터 나라에서 중사中祀1)의 예로서 동해신에게 나라의 안녕과 풍농豊農 · 풍어豊魚를 기원하던 곳이다. 나라에서는 매년 향과 축을 내려 새해에 별제, 2월과 8월에 상제를 지냈다.
동해신묘는 여러 차례 고쳐 지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조선 정조 24년1800 암행어사 권준이 올린 장계에 따라 내려진 왕명을 강원도 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이 받들어 대대적으로 고쳐 짓고 '양양 동해신묘 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를 세웠다. 고종 37년1900에 양양군수 이구영이 마지막으로 보수하였다.
동해신묘는 순종 2년1908에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완전히 헐렸다가 1993년에 양양군에서 정전正殿을 다시 세우고 '양양 동해신묘 중수 기사비'를 복원하였다.
1) 중사: 나라에서 지내던 대사(大祀) 다음가는 제사.

양양동해신묘지 안내문

문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소스(One Source)가 있다면 여러 매체(Multi Use)를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자원을 현재의 가치로 치환하여 양양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동해신사의 동해용 또는 용왕은 밤낮 양양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설화와 신앙은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2016년에 일본에서 출시하여 선풍을 이끌어냈던 포켓몬고를 떠올릴 수 있다. 포켓몬은 일본의 다양한 귀신(鬼神)이다. 그 귀신을 전 세계에 걸어 다니게 만들었다. 이는 21세기의 시공에 옛날 일본 귀신을 시간여행을 통해서 살아 있게 한 것이다. 단 게임이라는 매체로 두 세계를 연결한다는 '질서(秩序)'가 작용한 것이다. 시공세계글쓰기는 환상(幻想)과 실재(實在)가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분명하게 '연결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기소설처럼 '꿈'이어도 좋다. <쥬라기공원>처럼 모기의 피로 공룡의 유전자를 찾아 공룡을 부활시켜도 좋다. 다만 그 질서가 타임머신처럼 인과관계(因果關係)나 합리성(合理性)을 띤 다면 더욱 좋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적 가치를 만들어 낼 때는 마케팅(Marketing) 차원에서 해야 한다.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다. 여기서 경영활동을 창작활동(創作活動)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동해신사의 원소스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째는 동해신사 관련 사실과 설화의 특성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동해신사의 주인공 동해신(용이나 용왕)을 양양의 공간으로 데려와야 한다.

2) 반(反)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인간성 회복, 인문주의에 기초한 5차 산업혁명

동해신사를 비롯한 남해와 서해와 북해(江)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용신[또는 해신]이 있다. 그들 신들은 그 지역을 외부의 침략과 역병을 옮기는 병마(病魔)로부터 수호를 하고, 국가의 태평성대를 꾀하며, 농사의 풍년과 어업의 만선을 꾀하고 있다. 비가 안 와서 만물이 타 들어가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기우제의 대상 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전체를 통치하는 옥황상제가 하늘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래서 남공철의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에는 "후세에 또 왕의 작위를 더하여 동해를 말하되 광덕왕, 서해는 광윤왕, 남해는 광리왕, 북해는 광택왕이니 제후로 예우하여…."[17]라고 했다. 이는 상제(上帝)가 동서남북의 용왕을 제후로 인정하고, 그 지역을 다스려 인간에게 이롭게 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고, 행복과 불행, 부와 가난 등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렇게나 인간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허균이 쓴 <중수 동해용왕묘비>에 나오는 어부 지익복(池益福)의 경험담에 드러나듯 조건이 있다.[18] 그들 용신[해신]이 편하게 머물 수

17) 장정룡(1996), 앞의 논문, 10쪽.

있는 공간을 인간이 제공해 줘야 하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그들을 달래는 제의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 부정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정은 용신의 존재와 위엄을 지켜주는 인간들의 최소한 노력이다. 그렇게 하면 이들 신은 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인간들을 어떤 경우에도 이롭게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동해신사의 용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 위로를 받고 의지하고 싶어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고 행복과 불행을 정하는 이런 용신과 귀것을 일러 우리는 귀신(鬼神)이라 말한다. 귀신은 인간이 있어야만 그들의 존재가 부각된다. 그래서 인간과 귀신은 언제나 교감(交感)을 갖는다. 서로 돕고 또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여 해악을 줄 수도 있다.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 원문과 번역문 내용

이처럼 동해신사를 비롯한 동서남북의 해신사 설립과 제사 등은 모두 인간의 삶과 직결된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삶은 귀신과 교감을 잘 할 때 편안하고 행복해 질 수 있다. 이때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 세계'이고 귀신이 살고 있는 세계는 '저 세계'인 별세계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그것이 추구하는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산업혁명(産業革命)은 인간 삶의 혁신을 가져온 산업의 급격한 변화이다. 이를 통상 1차에서 4차까지 나누어서 말한다. 1차는 1784년의 증기기관의 기계제작, 2차는 1870년 전기 발명으로 대량생산, 3차는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의 자동화 시스템, 4차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된 사물을 제어하는 가상 물류시스템 구축에 두고 있

18) 『국역 성소부부고』, 앞의 책, 320~323쪽.

다. 그러니 1차에서 4차까지는 모두 기계로 만들어진 산업구조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의 일을 하는 인공지능을 다룬 산업이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이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패턴인식을 하는 등의 인지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공학이다. 이 지능을 활용해서 하는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다.[19]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지능[빅데이터], 초연결, 초자동화[초융합], 현재적 가치창출로 이어진다.[20]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금오신화』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 다음 인용문과 같다.

> 『금오신화』의 내용구성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지어 크게 4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골자는 빅데이터(Big Data)에 따른 초지능(超知能, Super Intelligence)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내세워 초연결(超連結, Hyper Connectivity)과 자동화(自動化, Automatize)를 통해 산업을 주도해 나가 인간에게 필요한 현재적 가치창출을 이뤄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응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모바일(Mobile), 빅데이터(Big Data), 나노기술(Nano Technology), 바이오기술(Bio Technology),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등이 총동원된다.[21]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총동원되어서 산업혁명을 이뤄나가는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골자는 4가지 요소이고, 그를 형성하는 바탕은 융복합형 창의력에 있다. 곧 인문학적 상상력이 과학으로 현현되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다.[22]

결국 1차에서 4차 산업의 골자는 모두 기계(機械)의 발전과 함께 해 왔다. 그런데 그런 기계의 발명과 발전 및 융합 등의 기술은 모두 인문학적인 상상력에서 비롯했다. 이들 기술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질문명이다. 그러나 기계의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산업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感性)과 감정(感情)을 기계장치가 대신할 수 있다는 순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심각한 관계를 가져온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산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결국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다. 결코 기계를 위한 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反) 4차 산업혁명을 논해야 한다. 여기서 반 4차 산업혁명은 기계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인간적인 정서(情緖)를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담은 정서가 바탕이 되어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 김석중,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교육의 역할』세미나자료,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2018, 3~28쪽.
20) 이학주(2019), 앞의 논문, 131쪽.
2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하였다. 한동숭, 앞의 논문, 11~2쪽.; 강치원,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의 역할』,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2018, p.31.
22) 이학주(2019), 앞의 논문, 131~2쪽.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1차에서 4차까지 모두 기계를 중심으로 했는데, 5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서를 중심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기계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하다 보니 인간의 정서가 말랐다. 그래서 지구촌이 모두 승패와 1등 중심과 개인중심과 자국중심의 전쟁구도로 내닫고 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자국중심의 사고가 팽배해서 패권주의(霸權主義)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왜, 꼭 자국이 으뜸이어야 할까? 인간의 정서가 중심으로 된 인본주의(人本主義) 곧 인문주의(人文主義)의 산업이 이뤄져야 한다. 세계는 하나이다. 세계는 한 나라이다. 세계는 한 가정이다. 세계는 형제자매이다. 이런 생각으로 산업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의 5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중심이 아닌 인간의 정서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정서를 담은 5차 산업혁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다문화론(多文化論), 다신론(多神論), 다종교론(多宗教論)의 입장에서 선(善)이 주체가 된 인간과 귀신의 교감, 인간과 인간의 교감이 중심이 된 산업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니 모든 산업의 바탕에 '선(善) 중심의 인간과 귀신'이라는 중심축을 활용하면 된다.

인간과 귀신의 교감을 축으로 형성된 사회에서는 절대 폭력이 있을 수 없다. 그것도 홍익인간, 인내천,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한글정신 등이 바탕에 깔린 인간과 귀신의 교감이 필요하다. 절대자, 권력자, 우두머리를 배제한 보통 인간의 여린 정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주창한 '사랑[자비(慈悲), 인애(仁愛)]'가 세상을 가꿀 수 있다. 사랑이 지배적이어서도 안 된다.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면 사랑 또한 권력이 된다. 사랑이 우두머리, 절대자, 권력자로 둔갑하면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5차 산업혁명은 실패한다. 가령, 살인을 하고나서 '난 너를 사랑해서 죽였다'는 논리와 같아진다. 사랑은 세상을 형성하는 보편원리여야 한다. 인간과 귀신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될 때 사랑은 지구촌을 이끄는 보편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은 기계가 중심인 산업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착한 본성에서만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 얼마 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오징어게임>은 인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영화가 아니다.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아이들의 놀이가 무서운 기계적 죽음 게임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창작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善)을 추구하는 인본주의가 사라진 게임은 인간의 생각을 파괴하는 괴물일 따름이다. 우리는 절대 <오징어게임>을 칭찬할 수 없다.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이기는 것이 놀이이고 게임이라지만 그 끝이 죽음으로 너무 나간 사례이다. 놀이는 놀이로 그쳐야 한다. 상대를 놀이에서 쓰러 뜨려도 놀이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임은 선한 게임이 아니라 악마의 게임이다. 악마의 게임은 사실 이 세상에 필요 없다.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얼마든지 평화로울 수 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5차 산업혁명은 절대 선을 바탕으

로 하는 인본주의에서 시작해야 한다. <오징어게임>이 결말에서 그 게임에 참여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는 반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3. 동해묘로 본 문화의 전승과 창작, 그리고 변화

이제 동해신사는 선(善)을 주체로 21세기의 시대를 따라 변화해야 한다. 21세기의 전통문화는 계승(繼承)과 활용(活用)과 창작(創作)으로 이뤄진다. 컴퓨터라는 기억매체는 인공지능으로 생각하고 창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옛날 귀신이 산업의 매체였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산업의 매체이다. 바다를 항해할 때 예전에는 용왕신께 무사고를 빌었으나 이제는 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로 일기(日氣)를 파악해서 항해한다. 귀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실체가 컴퓨터 기억장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실체로 대체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절대자 자체를 신봉하기 보다는 절대자가 말한 말씀을 신봉한다. 그 절대자가 귀신이라는 신격(神格)에서 컴퓨터라는 물격(物格)으로 바뀐 원인이다. 그렇다면 양양의 동해신사도 신격에서 물격으로 바꾸어 그 실체를 논해야 한다. 이때 신격과 물격은 모두 인격(人格)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道具)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 향상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원인이다. 신앙이 인간 삶의 향상을 위해 존재 했듯이, 인간의 삶 향상을 위해서 산업은 거듭 발전해 왔다. 그것이 점차 향상되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시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그 파장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到來) 하면서 지구촌은 자국중심, 자기중심으로 변했고, 패권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서로 힘자랑을 하고 급기야는 전쟁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 실례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힘자랑 다툼이 그렇다. 그리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알파고(Alphago), 알파고 제로(Alphago Zero)는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이다. 인간의 정서보다는 기계의 본질을 갖고 있다. 무서운 무기일 따름이다. 얼마 후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분명 올 것이다. 정말 삭막한 사회를 만들고, 인간의 정서가 사라진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사랑 중심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복합 창의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귀신의 교감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여행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동해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하는 활용콘텐츠와 스토리텔링도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져야 함을 역설하는 이유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대문화의 전승양상에 따라 전통계승론(傳統繼承論), 전통활용론(傳統活用論), 전통창작론(傳統創作論)의 입장에서 동해묘의 활용문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밝히는

주체는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귀신이 서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교감(交感),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보편원리로 만들어내고자 한다. 세상은 인간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절대로 기계중심이 아니다. 동해신사가 절대 선(善)을 만드는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

1) 문화의 전통유지를 위한 계승 - 전통계승론

동해신사의 전통은 물(水) 신앙에서 비롯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고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물을 관장하는 용신에게 제향을 드린다. 제사는 신과 인간의 교감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의례이다. 그리고 그 행사를 주관하고 참관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교감도 이뤄진다. 마치, 강릉단오제의 제의와 난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강릉단오제가 지금까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시공세계글쓰기의 원리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귀신의 교감을 이루는 바탕 때문이다. 그 교감이 곧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전승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계중심의 산업혁명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왜 반(反) 4차 산업혁명을 해야 하고, 5차 산업혁명은 선을 축으로 한 인본주의로 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낸다.

전통은 옛 풍속을 이어갈 때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전통의 변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전통의 계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때문에 전통은 시대적 유행(流行)을 타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발생한 판소리와 탈춤이 지금도 연행되는 현실과 같다. 이것의 좋고 나쁨은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떨 때는 둘 다 옳고 어떨 때는 둘 다 그르다. 다만 풍속이고 문화라는 차원에서 교감이 이뤄질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유일신을 부르짖으며 강릉단오제 현장에서 행패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릉단오제는 어떻게 보면 민속신앙이지만 이는 또 세시풍속이다. 그렇듯 동해신사의 제의도 국가가 개입되는 민속신앙이면서 풍속의 일종이다.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개인의 신앙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해신사의 제의를 왜 계승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제의 속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의식이 계승되어 오기 때문이다. 사람과 귀신의 교감이다. 자연의 횡포를 인간은 이길 수 없다. 가뭄과 폭우와 폭풍과 해일과 갑작스런 풍랑 등은 모두 동해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횡포이다. 그런 횡포는 인간의 힘과 영역을 넘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한다. 그런 자연의 횡포를 옛 사람들은 귀신의 조화로 보았다.

그런데 귀신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다. 물론 귀와 신의 시공은 다르다. 신도 맡은 바 역할이 있고, 역량이 다르다. 신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처럼 조직과 계층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가정신은 가택(家宅)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산신은 산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마을신은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이들 신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옥황상제 같은 절대적인 신이 있다. 신

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패를 부릴 때 그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그 계층으로 만들었다. 이 중에 동해신사는 꽤 높은 단계의 신이다. 동해라는 바다와 그 주변의 지역을 총괄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동해신사의 용왕신이 갖고 있는 위치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생각을 바탕으로 전통을 계승해서 그 문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동해신사의 전통은 무엇일까. 동해신사의 역할을 규정한 기록을 보자. 동해신사의 사우(祠宇)가 지녔던 규모와 제의에 대해 『여지도서』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 동해묘(東海廟) 관아의 동쪽 10리, 바닷가에 있다. 정전(正殿)이 6칸, 신문이 3칸, 전사청이 2칸, 동재와 서재가 각각 2칸, 백천문(百川門)이 1칸이다. 매래 초에 별제(別祭), 음력 2월과 8월에 상제(常祭)를 지낸다. 향(香)과 축문(祝文)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23](『여지도서』)

> 명산(名山)은 설악(雪嶽)이다. 【부(府) 서쪽에 있는데, 신라 때 소사(小祀)로 하였다. 】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 【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지낸다. 】[24](『세종실록』153권)

> 중사(中祀)는 모두 3일 동안을 산재(散齋)하고, 2일 동안을 치재(致齋)한다. 【1일은 본사에서 하고,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25](『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128권)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동해신사의 건물 규모와 제의날짜와 제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최소한 지방의 향교와 같은 규모를 갖추었다. 이는 국가와 양양도호부에서 동해신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제의의 규모는 설악산은 소사(小祀)인데 비해 동해신사당은 중사(中祀)로 지냈다. 대사와중사와 소사는 규정이 매번 바뀐 전례를 『조선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다. 곧, 『태종실록』7권 태종 4년 2월 20일 기사에는 도교 숭봉에 대해서 "중사(中祀)의 예(例)에 의하여 5일 동안 재계(齋戒)하게 하소서."라 했으며, 『태종실록』24권 태종12년 9월 28일 기사에는 "그 기간은 제사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데, 대사(大祀)에는 4일 동안, 중사(中祀)에는 3일 동안, 소사(小祀)에는 2일 동안 산재하였음"이라 하였고, 『태종실록』24권 태종12년 10월 7일 기사에는 "대사(大祀)에는 3일 동안, 중사(中祀)에는 2일 동안, 소사(小祀)에는 1일 동안 치재하였음"이라 하였다. 이밖에도 그 규정에 대한 사례는 아주 많다. 이 가운데 『태종실록』28권 태종14년 8월 21일 기사에는 " 악(嶽)·해(海)·독(瀆)은 중사(中祀)로 삼고, 여러 산천(山川)은 소사(小祀)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동해신사는 해(海)에 대당하니 중사의 예로 제사했음을 알 수 있다.

---

23)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강원도2, 흐름, 2009, 49쪽.
24)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153권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양양도호부조.
25)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재계 중사를 지낼 때의 재계.

다만 그 규정이 일정치 않았는데, 중사는 향(香)과 축문(祝文)을 나라에서 보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제사이다.

그런데 『정조실록』에는 동해신사[여기서는 동해신묘로 표시됨]를 제사하는 예법이 법전에 실려 있는데 그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더럽혀 졌다는 기사가 보인다.

> 양양(襄陽)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 복을 빌어 영락없는 음사(淫祠)로 변했으며, 게다가 전 홍천 현감(洪川縣監) 최창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닭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 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짓는 연기가 바로 곁에서 피어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져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잡히는 고기도 매우 양이 적은데, 해변 사람들이 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중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소서."
>
>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
>
>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장청대로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 보고하면 그대 권준을 헌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빌게 하겠다.[26](『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54권)

인용문처럼 동해신사를 잘 돌보지 않고, 제사도 게을리 하고, 주변에 사람 사는 집이 있으며, 음사로 변해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때문에 풍파에 사람이 빠져 죽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권준을 헌관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게 하라고 했다. 음사(淫祠)는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제사하는 사당이다. 그러니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해신사가 음사로 빠져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그러면 중사인 동해신사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남공철의 <동해신묘중수기사비>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 옛날 주나라 법제에는 네 차례로 경칩에 제사하고 입하에 기운을 맞이하여 제사하고 백로에 기우제로 인하여 제사하고 대한에 납향으로 인하여 제사지내니 한 해에 네 번이라. 왕이

26)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54권, 정조24년 4월 7일 기축 번ㅉ때 기사. 1800년.

> 두 홀로 홑바탕 다섯 치를 두고 짐승은 작은 소나 양을 쓰고 폐백은 오방색을 보이고, 왕과 주관하는 사람은 다 연하고 부드러운 세 깃털을 꽂은 면류관을 쓰며, 풍류는 유빈을 연주하고 노래는 함종으로, 춤은 대하로 추고 다섯 번 그릇을 가지런히 함은 이 조정에서 하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고 맑은 술은 이 음식을 드림이라.[27](<동해신묘중수기사비>)

물론 이 제사 방법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나 강원도 관찰사 남공철이 봤을 때는 이에 합당한 제사법에 따라 행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런 제사를 준비기간과 함께 약 3일~5일간 행했으니 요즘 보면 축제(祝祭)와 같은 큰 제사였다. 그리고 용왕의 이름은 "왕의 작위를 더하여 동해를 말하되 광덕왕, 서해는 광윤왕, 남해는 광리왕, 북해는 광택왕이니 제후로 예우하여 제사를 산과 내 안에서 제사했다고 하며(동해신묘중수기사비)"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패는 광덕왕(廣德王)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광덕왕 등의 용왕 이름은 김시습의 <용궁부연록> 등에도 나오는데, 이 중 광덕왕은 동해용왕의 명칭으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후로 예우했다 했으니, 축제를 연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양양군지』에 따르면 지금은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 현재의 제의(祭儀)는 매년 1월 1일에 새해맞이 할 때와 해변개장 때에 양양군수가 헌관이 되어 동해신묘에서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28](『양양군지』)

그러나 이처럼 해맞이 행사와 해수욕장 개장제로 변해서 그 전통을 잇고 있으니 다행스럽다. 이는 시대에 따라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승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이 제사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든가 하면 옛 제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1월 22일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동해신묘중수기사비는 강원도 기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보전 되고 있다.

2) 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재해석 - 전통활용론

동해신사의 전통문화는 얼마든지 현대적 상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통의 계승은 시대인식을 잘 하고 그 시대의 문화콘텐츠로 변화를 줘야 지속이 될 수 있다. 마치 <오징어게임>이라는 영화와 같은 논리이다. 전통적인 오징어게임이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접목될 수 있었을까. 이 영화는 한국의 전통게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든 최고의 선전매체이다. 전통놀이라 하여 마을 입구나 공터에 오징어를 그려놓고 서로 밀치면서 노는 것

27) 장정룡(1996), 앞의 논문, 10쪽, 재인용.
28) 『양양군지』(2010), 앞의 책, 1563쪽.

만이 전통계승이 아니다. 이를 현대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새롭게 가공하여 흥미를 주고 교훈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전통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화 <오징어게임>처럼 그 지향점이 경쟁 원리로만 주어지고 그 결말이 무섭게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악행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더 많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만드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왜냐면 인간의 본성은 동물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승자의 근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최고의 가르침인 종교(宗教, 마루 종, 가르칠 교)의 근본정신이 사랑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선을 추구하지 악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살면서 환경에 맞춰 물건을 만들고 더 넓고 깊은 사유를 하여 더 편하게 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창의성이 노소(老少)에 따라 지향점은 같되 방법이 다르게 전개된다. 젊은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개척을 하려 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현실을 중요시한다. 그들이 그려내는 작품세계도 그렇게 그려진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이때 노인들이 그려내는 어린 시절의 초상과 젊은이들이 그려내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은 사실 지향점이 모두 같다.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현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있는 사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회귀로 새로움을 만든다든가 과거이탈로 새로움을 만든다는 차이밖에 없다. 그들은 모두 어떤 사실을 딛고 그 사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몸짓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콘텐츠이고, 문화이다. 이곳에 이야기를 잘 입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움직이게 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현실의 이상향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해신사에서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이야기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활용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해신사는 제사의식에만 머물면 안 된다. 제사의식에만 머물면 발전이 없다.

가령, 강릉단오제가 서낭제와 산신제라는 제사의식에만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릉단오제가 세계유산이 되고 여태까지 매년 100만 이상의 관광자가 찾아오고, 강릉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은 제사를 기초로 그에 딸린 갖가지 이야기와 문화행사 및 콘텐츠 발굴에 있다. 강릉단오제는 전통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모범답안이다. 첫째는 강릉단오제는 신주미 등을 모아 강릉사람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둘째는 누구나 범일국사처럼 국사가 되고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곧,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범일국사이야기를 볼 수 있다. 석천, 처녀임신, 학바위, 국사, 굴산사 등의 제재는 신이성을 띠고 있다. 김유신이야기, 정 씨처녀와 서낭신의 결혼이야기 등이 있다. 셋째는 세시풍속 단오제와 관련을 맺었다. 넷째는 관노가

면극 등의 콘텐츠가 풍부하다. 다섯째는 산신과 서낭신으로 누구나 위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의 차원이 깃들어 있다. 여섯째는 물건을 사고팔며 먹거리가 풍부한 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일곱째는 시장을 비롯한 관료와 무당이 함께 하는 제의와 공연이 열리는 것이다. 이밖에도 강릉단오제를 보면 평생의 한이 풀린다는 등의 격언을 만들어서 유행하게 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춘천의 공지천 설화에서도 볼 수 있다. 공지천 이야기는 공주의 곰나루 설화와 같은 유형이다. '곰짓내', '곰지내'에서 비롯했다. 곧 '곰(神)이 지어준 내'가 훗날 전혀 다른 공지천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서 이 퇴계와 얽힌 설화가 나오고 도통수련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춘천마임축제가 나오고, 이외수의 <황금비늘>이 나오고, 각종 조각상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주의 곰나루이야기는 같은 유형의 이야기인데도 공지천이야기처럼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공주의 곰나루는 신화(神話)로만 전승이 되어 제사의식에 충실한 반면, 춘천의 곰짓내 이야기는 신이성(神異性)으로 변화하여 많은 이야기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곧 환상과 실재가 함께한 것이다.[29]

강릉단오제와 춘천 공지천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생성될 수 있었던 원인은 신화에만 머물지 않고, 제사의식에만 치중하지 않고, 환상과 실재가 함께하는 신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로 생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신의 교감을 간직하고 있으며, 절대 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모든 이야기와 콘텐츠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공동체를 위한 선행으로 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동해신사의 경우도 신앙적인 제사의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신앙적인 면을 유지하되 인간과 신의 교감을 통한 신이성을 간직하여 환상(幻想)과 실재(實在)가 함께 할 수 있는 면으로 나가야 한다. 신앙은 기복(祈福)을 담고 있다. 아주 중요한 콘텐츠 생성 요소이다. '복을 구할 수 있다'는 의식은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주제어이다. 누구나 원망충족(願望充足)을 하고자 하며,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미신(迷信)에 대한 개념은 버려야 한다. 미신은 세상에 없다. 다른 종교를 얕보거나 터부(Taboo, 접근 꺼림)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미신이다. 특정 종교인이 미신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밖 이야기인 환상적인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동해신사의 이야기는 벌써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현재 동해신사 관련 이야기는 허균의 <중수 동해용왕묘비(重修東海龍王廟碑)>, 그리고 <구전 동해신묘 이야기>라 하여 최종낙(崔鍾洛) 양양군수의 죽음 이야기와 관우제사 이야기 등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동해송금란>도 있다. 이 이야기는 동해신사를 활용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9) 이학주, 「지명의 생성변화와 문화콘텐츠 확산 관련 연구: 춘천시 '공지천; 지명의 스토리텔링사례를 통해서」,『인문과학연구』7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257~273쪽.

<중수 동해용왕묘비(重修東海龍王廟碑)>

만력 갑신년(선조34, 1604) 7월 양양부(襄陽府) 동산(洞山)에 사는 어부 지익복(池益福)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바람이 그 배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 이렇게 일주야(一晝夜)를 달려 동쪽으로 한 섬에 닿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인도하여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왕궁에 나아가니 궁뜰에는 창을 든 병사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왕이라는 자가 보라색 옷을 입고 궁전에 앉아서 말하기를

"내가 강릉(江陵)에서 제사를 받아먹은 지 수천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부 사람에게 쫓기어 이곳에 옮겨와 보니 좋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상제께 호소한 끝에 이제 비로소 허락을 받았으므로 너의 힘을 빌어 관원에게 뜻을 전하고 옛땅 내집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는 목민관(牧民官)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몰아치게 할 것이니, 백성들이 나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는 바람을 몰아 돌려보내 주었는데 하루가 못 되어 동해 가에 돌아왔다. 어부는 매우 이상히 여겼으나, 감히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향임(鄕任) 이석림(李碩霖)에게 말하여 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부사(府使) 홍여성(洪汝成)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고(典故)를 들어 상고해 보니, 가정(嘉靖, 명 세종 연호) 병신년(중종31, 1536)에 사당이 강릉부 정동촌(正東村)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음을 알았다. 그러나 감히 귀신의 말을 인용하지 못하고 폐해가 많다는 이유로 옛 문서를 돌려주기를 방백(方伯)에게 청하였으나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해 을사년(선조39, 1605) 7월 관동(關東) 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안변(安邊), 통천(通川)에서부터 남쪽으로 안동(安東)까지 수십 군이 혹독한 수해를 입어 백성과 가축의 죽은 수효는 수만에 이르렀는데, 강릉이 특히나 심하였다. 부사 홍공(洪公)은 더욱 이상히 생각하여 지방 관리와 백성을 불러 의논하기를

"귀신이 사당을 옮기지 않으면 해를 내린다고 우리에게 경고한 지 1년 만에 수해가 이 지경이니, 이는 과연 그 징험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으나, 그 사당을 보니 퇴락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고 있다. 어찌 우리가 서로 이를 새롭게 단장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하고, 정성으로 받든다면, 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그렇다' 하고 드디어 녹봉을 떼내어 공장이와 인부를 모아 향임에게 이를 감독케 하여 기와를 갈고, 벽을 바르고, 담장을 둘러쌓고, 신문(神門)을 만들고, 마당을 고르는 일을 두어 달 만에 완성 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이 몸소 제사를 지내니 이때부터 양양이 바람이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강릉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여 비석을 세워 후대사람들에게 보이고저 내게 글을 청하기에 나는

"우리나라는 사해 용왕을 위해 사당을 세우되 지리의 중앙되는 곳을 가려 설치하셨는데 강릉은 동해의 한 가운데이고, 정동이며, 더욱이 고을 한 가운데가 상개(爽塏: 앞이 탁 트여 밝은 땅)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동이라 이름하고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용왕께 제사 지냈다. 그런데 공희왕(恭僖王, 중종) 때에 강릉부 사람으로 장원 급제한 심언경(沈彦慶), 심언광(沈彦光) 형제가 용왕의 사당에 비용이 든다 하여 방백에게 말하여 상께 글을 올리고, 까닭 없이 옮겨버렸다. 요즘 편찬된 여지서(輿地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해 용왕의 사당은 양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당 자리는 낮고 더러워 귀신의 영을 평안히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하니, 귀신의 노여움도 당연하다 하겠다. 언광 형제의 몰락도 이것 때문일 것이며, 을사년 바람과 비의 변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신이 사람에게 밝게 고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이다. 부사의 사당 개수(改修)는 예에 들어맞는 처사니, 어찌 그를 덮어 둘 것인가."

하고 갖추어 기록하고 이에 송(頌)을 드린다.

海於天地	바다는 천지간에
爲物甚鉅	가장 큰 것이온데
執王其中	그 누가 왕이 되어
以風以雨	바람 불고 비 오게 하는가
矯矯龍神	강하고 강한 용왕신이라
天龍莫如	하늘의 용은 이것 같음이 없네
降福降禍	복 내리고 화 내리네
靈應孔孚	신령스런 응보 매우 진실코야
疇就其庳	그 누가 그곳 낮은 데에
俾徙我宇	내 집 옮기게 하였는가
惜其小費	적은 비용 아끼니
宜神之怒	신의 노여움 마땅하네
神之所都	귀신의 계신 곳을
貝闕珠宮	조개집 구술 궁궐인데
俗之陬居	세상의 오두막집
奚戀以恫	뭐라 연연하여 섭섭해 하겠는가
不然誠敬	아니로다 정성은
神所享者	신의 흠향하시는 것이니
不敬者慢	불경한자 방자하고
不誠則惰	불성하면 게으른 법

掃地酌水	땅을 쓸고 물 떠놓아도
誠敬則臨	정성껏 공경하면 강림하지만
玉寢瓊饗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차려 놓아도
慢則不欽	방자하면 흠향하지 않는다네
移以汚之	옮겨 놓고 더럽힘은
卽惰卽慢	게으르고 방자한일
豈以豊殺	어찌 재수의 많고 적음에
而爲炘歎	기뻐하고 탄식할까
告而不從	알려져도 안 따르니
宜水之洪	홍수 피해 마땅하네
溫溫邦侯	온화한 원님이
事神以恭	공경으로 신 받들어
乃新其構	새로 사당 단장하고
乃腆其饗	제수 차려 제 올리니
神顧以喜	신이 돌아보고 기뻐하여
風來悽愴	바람 같이 와 흠향하네
克敬克誠	공경을 다하여 정성껏 받든다면
奚擇江襄	어찌하여 강릉(江陵) 양양(襄陽) 가리겠는가
願此永鎭	원컨대 이곳에 길이 진정하시어
資歲穰穰	해마다 풍년들게 도와주시고
民無札傷	백성들 상하지 않으며
五兵不入	전란이 미치지 못하게 하여
於萬斯年	길이길이 만년토록
祐我槩邑	우리 고을 도와 주소서[30](『성소부부고』)

<동해송 금란(東海松 禁亂)>

고종 무술(1898)春에 양주에 거주하는 申景裕란 자가 農部훈령을 受命하였다고 하면서 본군 군수 趙觀顯을 附同하여 동해신묘 임목을 벌목코자 하였다. 그때 조산리민들은 동해신묘림은 신비지역으로 보호하며 禁養하여 온 것이 오백년이나 되었으므로 강경히 벌목을 반대하는 터라 官世間에는 일대 충돌이 발생되어 崔永彬, 崔永徽 등 708명은 투옥을 당하고 선동자를 엄벌하여 營門에까지 압송하려 했다. 그래서 전 주민은 협심궐기하여 농부에다 訴狀을 시급히 제기하였는데 관도 민의를 거역할 수 없어 불미한 사태에 처한 신경유는 도망해 버리고 사태는 평온

30) 『성소부부고』, 앞의 책, 320~3쪽.

해졌다.[31](『향토지』)

<구전 동해신묘 이야기>

동해묘라 있는데 옛날에 그 거기다 관운장을 모셨어요. 관운장을 모셔가지고 설레무네 춘추로 제사를 지내서, 바다가 평안하도록 결국은 제사지내죠. 동해비라는 것이 조그만게 부서졌습니다. 동해비라는 것이 양양 조산리에 있습니다. 동해묘도 없어지고 동해비라는 것도 뭐, 조그만 비석인데 사각형 비석인데 한 반이 부서졌습니다. 그 비문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왜정 우리 아니 한말에 양양군수라는 최종락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 인제 최종락이는 이제 개명한 분이거든요. 그 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철폐시키고 머리를 깎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 서원 철폐할 적에 전부 서원을 다 없앴습니다. 아마 양양 동명서원도 그맘때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래 동해묘를 자기가 헐러갔어요. 헐러 가는데 최종락이라는 군수가 사람을 시켜설라무네 그걸 헐어냈다 합니다. 헐어냈는데, 그 후로서 이 양반이 집이 강릉이야, 강릉 상노동이예요. 그 출신지 상노동가설래무네 그냥 급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동해묘라는 데를 그렇게 신성하게 한 묘라는 이거예요. 근데 그 묘라는 게 집입니다. 최종락이라는 이가 때려 부수고 가설레무네 그래서 빨리 죽었다 그러지요.[32](김종국, 남 77세, 양양읍 군향리, 1981.9.21. 구비문학대계2-5)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순종 2년(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철(毁撤)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철(毁撤:헐어서 치워버림)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 6칸 1동이 건립 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났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33]

현재 전하고 있는 동해신사 관련 이야기인데, 물론 찾아보면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들 이야기는 동해신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셋 다 신비성(神祕性)과 신이성(神異性)이 있어서 앞서 거론된 강릉단오제와 춘천 공지천 이야기와 상통하고 있다. 그 중에 인간과 신과의 교감이 주요 모티프로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資歲穰穰 해마다 풍년들게 도와주시고/ 民無札傷 백성들 상하지 않으며/ 五兵不入 전란이 미치지 못하게 하여/ 於萬斯年 길이길이 만년토록/ 祐我弊邑 우리 고을 도와 주소서"라는 <중수

31) 장정룡(1996), 앞의 논문, 15쪽 재인용. 원본은『향토지』, 양양군 교육청, 1968.에 있다고 한다.
32) 위의 논문, 같은 곳, 재인용.
33) 이기용, 앞의 논문, 12쪽.

동해용왕비문>의 끝부분 같이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곧 기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산업혁명의 문제를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필자가 주창하는 5차 산업혁명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환상과 실재가 함께 하여 시공세계글쓰기를 하기에도 좋은 자료이다. 특히, 바다와 신과 인간 그리고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에 좋다. 게다가 권준을 헌관으로 임명했던 사실을 더한 다면 인물설정도 상당히 수월하다.

곧 지영복의 용궁여행, 향임 이석림, 사또, 벌목자 신경유와 군수 조관현, 벌목을 반대하다 잡혀간 최영빈과 최영휘, 소장을 올린 주민들, 동해묘를 부수고 죽은 최종락 군수, 동해용왕 등이 있어서 인물설정을 하기에도 좋다. 게다가 동해신사를 중수하고 비문을 지은 남공철과 허균도 있고, 상소를 읽고 대책을 내린 임금도 있다. 이런 인물에 선악의 대결을 넣어서 선룡과 악룡의 대결이 들어가면 더 좋은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다.

단,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면 곤란하다. 보다 단순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캐릭터도 가령 '깨비'처럼 단순해야지 되지, 복잡하면 안 된다. 신이성과 신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공세계글쓰기와 귀신의 세계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방법을 동원하면 보다 쉽게 현재적 가치창출을 이룰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과 신의 교감은 복잡하고 어려우면 접근할 수 없다. 인간과 신의 교감, 그리고 사람의 정서는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때 가능하다.

3) 창작으로 전통문화 만들기 - 전통창작론

전통문화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원래부터 전통문화는 없었다. 사람이 살면서 전통문화는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의 가치관도 인생관도 세계관도 생사관도 모두 살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필자는 전통창작론이란 입장에서 양양의 동해신사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동해신사는 새로운 전통이 생긴다.

동해신사는 고려시대에 개성을 중심으로 정동진에 해당하는 양양에다가 동해용왕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올린 데서 비롯했다. 그때 정남에는 남해신사가 정서에는 서해신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가에서 백성들을 달래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해서 중사(中祀)의 예로 대했다. 이렇게 모든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에 시간과 역사성[사건]이 더해지면 전통문화가 된다. 이런 전통창작론을 부정하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모든 전통문화는 있을 수 없다. 양양에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오래 지속되면 양양 전통음식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해신사의 전통을 누가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중요하다. 그렇게 문화는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문화는 한국 사람이 만든 문화이다. 서양의 음악 서양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국 사람이 한국 토양에 맞게 음악과 신앙을 만들면 한국의 음악이고 한국의 신앙이 된다. 인도의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불교가 된 사례와 같다. 유학이 한국에서는 중국유학이 아니라 한국유학으로 살아남는다. 그런 것이 나중에는 한국의 전통 미풍양속이 되어 계승이 된다. 동해신사를 배경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이 된다. 이런 것은 언제나 유행을 타기 때문에 지속의 여부 문제이지 사라지고 보전되는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공감해서 반응이 좋으면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공감하지 않아 반응이 좋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일 따름이다. 그래서 양양에서 동해신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 그것이 동해신사의 전통문화가 되는 것이다.

양양에서 만든 동해신사이야기에 동해신사 관련 사실이 아주 조금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야기는 얼마든지 원형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인드맵도 이야기자원에서 원형(原型)-발상(發想)-연상(聯想)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의 이야기마케팅[Story Marketing]에 따라 달라진다.[34]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원숭이 엉덩이>노래를 생각해 보자. '원숭이엉덩이는 빨개-빨간 것은 사과-사과는 달아- 단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 백두산은 높아 …' 등으로 내용이 이어진다. 이 노래에서 원숭이 엉덩이와 백두산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변해도 동해신사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동해신사와 관련된 문화라면 그것은 동해신사의 전통문화가 된다.

허목(許穆, 1595~1682)이 지은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는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원천자료이다. 분명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이야기의 내용도 좋다. 글씨도 달필이다. 제의도 행한다. 그런데 지켜보면 척주동해비는 같은 삼척에 있는 해신당보다도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무엇 때문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퇴조비(退潮碑)라는 원형보전에 치중해서이다. 그동안 척주동해비 관련 사항을 보면 척주동해비의 비문을 써서 세우고 나서 해일을 막았다는 사실에 너무 치중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야 했다. 대부분 척주동해비문의 글을 새긴 도자기, 병풍, 액자, 족자 등의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척주동해비를 부적(符籍)의 기능으로만 사용했다. 그것도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판매하였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이다.

그런데 삼척 갈남의 해신당(海神堂)은 척주동해비와는 다른 입장에서 접근이 되었다. 남녀의 사랑이 담긴 당신화에 슬픈 사연을 담은 해일의 피해를 넣었고, 원한을 푸는 장치로 남녀의 원초적인 성기(性器)를 첨부하였다. 쉽게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성기이지만 해학과 풍자의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성기이다. 감춰야 할 대상을 드러냈으니 부끄러움이 아니라, 웃음이 된 것이다. 웃음이 됐으니 누구나 어디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로 변신한 것이다. 급기야 남성의 성기는 해학의 상품이 되어 익살로 유머로 변신하여 남근 장승 깎기 행사

34) 이학주,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인문과학』57,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209~237쪽.

로 이어졌고, 성기 박물관이 되었다. 신앙이 상품으로 변한 사례이다. 그 때문에 원초적 상징과 해학은 폭넓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반응이 좋았다. 매년 20만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명소로 탄생한 사례이다. 해신당의 사례는 전통이 쉬운 콘텐츠로 창작되어 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해신당과 해신당신화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확장시켰다.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웃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이 둘의 사례에서 보듯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했다. 무엇 때문일까? 생각의 차이이다. 너무 원형에만 집착해서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반응하지 않게 된다. 관광의 성공요인인 특별하면서도 보편성을 띠어 열광하게 만들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 어렵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쉽게 공감하고 반응하여 재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동해신사의 전통은 재미와 쉬움으로 창작되어야 한다.

첫째, 동해신사의 경우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신사의 접근을 쉽게 해야 한다. 문이 꽉 잠긴 동해신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지방기념물이고 죽은 박물관이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처럼 공룡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익룡을 타고 하늘을 날고 공룡과 놀이를 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만들 듯이 동해신사도 바뀌어야 한다. 엄숙한 신앙의 대상으로 남은 동해신사는 영원히 지금의 모습으로 접근을 불허하고 반응하지 않는 소나무 숲 속의 건물일 뿐이다. 최소한 동해신사의 내부를 누구나 쉽게 가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방이 막힌 동해신사는 누가 가도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다. 주변엔 화장실도 갖춰지지 않았다. 동해중수기사비문은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조차 없다. 게다가 나무진이 떨어져 글씨를 가리고 지저분하기까지 하다. 자동차 한 대 댈 수 없는 공간이다.

둘째, 동해신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한다. 언제까지 동해신사의 전통을 어려운 단어 중사(中祀)로 남게 할 것인가. 왜 중사의 제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퍼포먼스로 만들어지지 못하는가. 왜 동해신사의 용과 용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익살스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소설, 뮤지컬, 대중가요, 연극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가. 왜 쉽게 이해시키고 알리고자 낙산 앞바다에서 용이 등장하여 꿈틀거리면서 춤추지 못하고, 용오름을 연출하지 못하는가. 양양은 해오름의 고장이다. 용오름과 해오름이 함께 하면 정말 환상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려면 보다 쉽게 동해신사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동해신사의 용과 용신을 쉽게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용은 크고 웅장하다는 기존 관념을 버려야 한다. 등용문에서 용이 되는 실체는 뱀이 아니라 잉어와 같은 물고기이다. 『후한서』<이응전(李膺傳)>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 황하(黃河) 상류의 하진(河津)을 일명 용문이라 하는데, 흐름이 매우 빠른 폭포가 있어 고기들이 오를 수가 없다. 강과 바다의 큰 고기들이 용문 아래로 수없이 모여드나 오르지 못한다. 만일 오르면 용이 된다.(一名龍門, 水險不通, 魚鼈之屬莫能上. 江海大魚, 薄集龍門下數千, 不得上. 上則爲龍.)[35]

뱀을 가져놀기에는 문제가 많다. 징그럽고 무섭다. 그래서 쉽게 장난감으로 만들거나 놀이기구로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러나 용이 되는 물고기는 누구나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다. 물고기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전혀 부담이 안 된다. 어른들도 그렇다. 낙산사 풍경처럼 고즈넉한 산사의 울림과도 연계할 수 있다.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는 등용문 상징의 물고기는 낙산의 바다와 낙산사와 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해신사는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전통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남원의 춘향콘텐츠, 장성의 홍길동콘텐츠, 춘천의 공지천콘텐츠 등처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반응하게 할 수 있다.

3. 결론

이 글은 동해신사를 어떻게 전통계승과 전통활용과 전통창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서 썼다. 그 방법은 시공세계글쓰기와 반 4차 산업혁명의 구도에 두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절대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간과 귀신의 교감(交感)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시간여행을 해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계로만 산업혁명을 이룬 사실에 반기를 들어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선(善) 중심의 인간과 귀신'이라는 중심축을 활용하면 된다. 인본주의가 중심이 돼야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시공세계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적 가치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

이에 동해신사는 기계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으로 새로움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사랑 중심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복합 창의력'이 필요한 때이다. 동해신사가 절대 선(善)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서 전통계승론(傳統繼承論), 전통활용론(傳統活用論), 전통창작론(傳統創作論)의 입장에서 동해묘의 활용문제를 밝혀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통계승론으로 문화의 전통유지를 위한 계승이다. 동해신사는 물(水) 신앙을 중심으로 인간과 신의 교감을 이룬다. 전통은 옛 풍속을 이어갈 때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옛 제도를

35) 고사성어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6XXXXX00378.

문헌에서 보아 익혀서 전통을 계승해야 함을 말했다. 이때 광덕왕을 신위로 모시고 며칠에 걸려 제의를 행했듯이 축제의 형태로 행해야 한다.

둘째, 전통활용론으로 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서 활용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전통의 계승은 시대인식을 잘 하고 그 시대의 문화콘텐츠로 변화를 줘야 지속이 될 수 있다. 동해신사는 제의의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원망충복을 할 수 있는 기복신앙에 신비성과 신이성을 바탕으로 강릉단오제나 춘천 공지천처럼 환상과 실재가 함께 하여 현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과 신의 교감은 복잡하고 어려우면 접근할 수 없다. 인간과 신의 교감, 그리고 사람의 정서는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때 가능하다.

셋째, 전통창작론으로 전통문화를 창작해 한다. 사람이 살면서 전통문화는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의 가치관도 인생관도 세계관도 생사관도 모두 살면서 만들어진다. 동해신사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이때 원형에 너무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사람들의 공감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야기마케팅 입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동해신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치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처럼 해야 한다. 둘은 동해신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용어를 없애야 한다. 익살스런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만들어서 해오름과 용오름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은 용과 용신을 쉽게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야 한다. 용은 크고 웅장하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용은 뱀이 아닌 물고기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뱀은 징그럽고 무섭지만 물고기는 친근하다.

이처럼 동해신사는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전통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남원의 춘향콘텐츠, 장성의 홍길동콘텐츠, 춘천의 공지천콘텐츠 등처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반응하게 할 수 있다.

주제어: 동해신사, 시공세계글쓰기, 5차 산업혁명, 신과 인간의 교감, 인본주의

참 고 문 헌

강치원,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의 역할』,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2018.

고사성어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6XXXXX00378.

김석중,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교육의 역할』세미나자료,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2018.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강원도2, 흐름, 2009.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양언석, 「동해신사고찰: 명칭을 중심으로」,『강원민속학』33,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0.
이기용,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제27회 향토문화자료 공모전』, 전국문화원연합회, 2012.
이학주,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인문과학』57,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이학주, 「인제 마의태자설화의 문화적 의미와 관광문화콘텐츠 방안: 시공세계글쓰기와 고전의 현대적 활용」,『동방학』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이학주, 「『금오신화』의 4차 산업혁명 성향과 글쓰기 교육 활용」,『어문논집』77, 중앙어문학회, 2019.
이학주, 「지명의 생성변화와 문화콘텐츠 확산 관련 연구: 춘천시 '공지천; 지명의 스토리텔링사례를 통해서」,『인문과학연구』7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장정룡, 「동해신묘의 문화적 고찰」,『동해안연구』7, 강릉대학교동해안지역연구소, 1996.
정영호, 「동해묘에 관한 소고」,『청람사학』1, 청람사학회, 1997.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판.
『향토지』, 양양군 교육청, 1968.
허균, 『국역성소부부고』Ⅱ, (주)민문고, 1989.

부 록

남공철(南公轍)의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江原道觀察使南公轍 撰

海與王公同位望沈之祭報其德也 易說卦曰潤萬物者莫盛於水水之爲言演也 故其立字兩人交一以中出者爲水一者數之始兩人譬男女言蔭陽交物以一起也 周制四坎驚蟄因郊而祭立夏因迎氣而祭白露因雩而祭大寒因蜡而祭歲凡四祭玉兩珪有邸五寸牲用少牢幣視方色王及尸皆服毳冕樂奏蕤賓歌函鐘舞大夏用五獻盎齊是朝踐之獻也 淸酒是饋食之獻也 後世又加王爵東海曰廣德王西海曰廣潤王南海曰廣利王北海曰廣澤王禮諸候得祀方內嶽瀆我國亦有東海神廟在襄陽府治東十里 聖上二十四年御史權晙言臣行郡縣見東海神廟齋舍牆垣多頹廢宜修治民家之入居近廟者一並撤去毋使雞犬相聞孰嚴於嶽瀆之祀而四方之以水旱疾苦祈禱者聚焉 甚非所以致崇極之道請著爲式以禁 敎曰可 命觀察使主其事臣公轍遹按關東謹依禮部知委擧行事訖驛 聞香祝自京師至以晙差獻官而祀之噫疾痛必呼人之情也民之視海神如父母不獲者祈禱焉固宜然祀有其常祀彼愚夫愚婦之執金帛而來者將以求媚于神而徼福禮滋益漫則屑孰甚焉 朝廷之禁之乃尊神之至而導民於正也一擧而兩得矣 遂述其事刻石俾解其惑至於廟宇之隨時修補者有有司存 銘曰 有宮奕奕有牆翼翼籩豆靜嘉維珪及帛於粢灑掃肆筵說几神具醉

飽神旣安止御史自東歸奏于王嶽瀆有祀曰沈曰望蚩蚩者氓凡有攸求握粟擲錢久爲神羞禮滋益慢神顧不歆 王命方伯其始自今敕其府吏秩存常祀迺宣祝册迺御史丕顯我 王以禮事神導率之正爰及衆民民皆稽首神宜酬惠酬之維何惠玆東裔衆有魚矣 多黍多稻旣富而庶黃髮壽考維萬億年海晏河淸維萬有衆偕我太平

崇禎紀元後庚申閏四月 日立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지음

바다를 왕으로 더불어 위를 같이하여 망침제사를 지냄은 그 덕을 보답하는 것이다. 주역의 설괘에 말하되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물이라 함은 넓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 집을 세움은 두 사람이 하나로 사귀어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물이 되니 하나라 함은 밝힘의 시작이요. 두 사람은 남녀를 비유하니 음과 양이 사물과 교류하면 하나로 일어남이라.

옛날 주나라 법제에는 네 차례로 경칩에 제사하고 입하에 기운을 맞이하여 제사하고 백로에 기우제로 인하여 제사하고 대한에 납향으로 인하여 제사지내니 한 해에 네 번이라. 왕이 두 홀로 홑바탕 다섯 치를 두고 짐승은 작은 소나 양을 쓰고 폐백은 오방색을 보이고, 왕과 주관하는 사람은 다 연하고 부드러운 세 깃털을 꽂은 면류관을 쓰며, 풍류는 유빈을 연주하고 노래는 함종으로, 춤은 대하로 추고 다섯 번 그릇을 가지런히 함은 이 조정에서 하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고 맑은 술은 이 음식을 드림이라.

동해신묘지 이정표와 주변 소나무 숲

후세에 또 왕의 작위를 더하여 동해를 말하되 광덕왕, 서해는 광윤왕, 남해는 광리왕, 북해는 광택왕이니 제후로 예우하여 제사를 산과 내 안에서 제사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또한 동해신

묘가 있으니, “신이 군과 현에 다니며 동해신묘를 보니 재사의 담장이 많이 퇴폐하고 사당 가까이 민가가 들어와 사는 것을 마땅히 한결같이 다스려서 아울러 철거하여 닭과 개소리가 서로 들리지 않게 하고, 산천의 제사에 엄숙하고 공경하여야 사방의 홍수와 가뭄과 병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할 것입니다. 심히 숭상함을 극진히 하는 가르침으로 형식을 삼으려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하니 하교하여 말씀 하시되 “옳다”고 하시고, 관찰사를 명하여 그 일을 맡게 하였노라. 신 공철이 관동지방에 가서 보니 삼가 예부에서 위임하여 행사를 거행한다는 말을 역사에서 들으니 향과 축이 서울로부터 이르러 준[권준(權晙)]으로 하여금 헌관으로 차출하여 제사했다고 하니 슬픕니다. 병들어 아픔에 반드시 부름은 사람의 정이라, 백성이 해신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여 기도하여 마땅히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섬길 수 있으면 저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어미, 돈과 비단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장차 신에게 은혜를 구하고 복을 맞이하는데 예가 많아 심히 넘친 충이 있어 잡음이 심합니다. 조정에서 이것을 금함은 신을 지극히 높힘이고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함이니 하나를 들어 두 가지를 얻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일을 기록하여 돌비석에 새겨서 그 감회를 풀고 사당을 보수하는 것에 유사를 두었습니다. 이에 글을 새겨서 이르노라.(여기까지는 장정룡, 「동해신묘의 문화사적 고찰」의 글에서 취하였다. 이하는 『양군지』(2010)에서 취하였다.)

사당은 크고 아름답고 담장은 곱게 꾸며졌네.
제기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규홀은 비단 같은 옥이로다.
먼지 씻어내어 환하게 되었으니 드디어 자리에 안석을 설치했네.
신께선 흐뭇하게 드시고 신께선 이미 편안하시네.
어사는 동해를 순시하고 임금께 돌아와 아뢰었네.
산과 강에서 제사하니 소망대로 조용하네.

어리석은 백성들 넉넉하게 구하네.
버린 돈과 곡식을 거두고 오랜 세월 신에게 드리네.
예가 지나치게 불어 넘치면 신은 돌보고 흠향하지 않네.
국왕이 방백에게 명하여 지금부터 일을 시작했네.
칙서를 부사에게 내리니 크게 상사를 이어가네.
이에 축첩을 알리고 이에 어사에 명했네.

국왕이 크게 밝히니 예로서 신을 섬기네.
이끌고 거느림이 바르니 이로써 백성에게 미치네.
백성 모두 큰 절 올리니 신은 응당 은혜 베푸네.

무엇으로 보답 하오리까 우리들 백성의 은혜로다.
물고기 무리지고 곡식이 넉넉하네.
넉넉하고 풍성하니 늙은이들 장수하네.
오로지 억만년 이어서 바다와 물이 청안하네.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태평하리.

정조24년(1800년) 윤 4월 일 세움
(2010년 4월 12일 又泉 李鍾寓 삼가 번역하다.)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1568쪽.

토 론 문

- **임승범 (문화재청 연구관)**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전승 양상]
- **이규대 (강릉원주대 명예교수)**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東海神廟)의 명칭 고찰]
- **최명환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이사)**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
- **이영식 (아시아 강원민속학회 이사)**
  [동해신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
- **전유길 (양양군청 문화체육과장)**
-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고문)**

『동해신묘제의 역사와 전승 양상』에 대한 토론문

임 승 범 (문화재청 연구관)

이 글은 고려시대 이래로 강원도 양양군에 존재했던 동해신묘(동해신사)에 대한 역사 및 그와 관련된 신앙 전통과 기록을 정리하고 동해신묘의 전승 양상을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동해신묘는 1908년에 훼철된 이래로 1993년에 복원되어 현재 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동해신묘에 대해서 역사민속학의 관점에서 마을신앙과 무속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토대로 발표자의 논문을 살펴보던 중에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은 대목들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몇가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김도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동해신묘의 연구자들은 용왕과 海神을 동일시하는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에 대하여 큰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자께서도 꼼꼼하게 동해의 해신이 용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민간신앙과 무속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러한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균이 작성한 「重修東海龍王碑文」이라 쓰여진 비문 제목과 내용, 울릉도 수토관들이 항해 중에 龍食을 바다에 흩뿌리며 기도하였다는 기록 일부를 빼면, 그 외의 기록에서는 동해신묘에 모셔진 해신이 용왕과 동일시 된 기록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맡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으나 해신을 용왕으로 곧바로 치환해도 좋을만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표자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민간신앙이나 무속에서 용왕은 下堂에서 주로 모셔지며 바다에서 죽은 자를 관장하고 어업의 무사와 안녕을 주관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념하고 있는 용왕과, 고려시대 이래로 중앙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역사상의 동해신묘의 신격과는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료에도 언급되듯이, 관료들이 백성들의 동해신사에서 행하는 신앙행위를 음사로 몰아서 비난하는 대목들을 보면 신분이나 입장에 따라서 동해신묘의 신격을 각기 해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신중하게 접근하다보면 1993년에 복원된 동해신묘 내부의 당신도와 위패를 재점검

하는 중요한 학술적 논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현재 모셔진 동해용왕 당신도는 어떠한 근거로 일월, 황룡, 청룡이 그림에 삽입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째, 동해신묘의 현재 제의의 모습에 대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복원된 동해신묘제는 양양문화원과 양양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유림이 중심이 되어 양양군수가 초헌관을 맡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의 절차와 진행은 홀기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유교식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제상 차림은 유교식을 중심으로 하되 무속식의 혼합 형태로 보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발표자께서 동해신묘 제의에 대한 제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셋째, 양양이 강릉이나 속초, 나아가 삼척 등 동해안의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성격과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양양의 민속신앙이 있으면 여쭙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양양군에 동해신묘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근대까지 존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 신앙 문화의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동해안의 어촌 신앙의 정서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기대합니다.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東海神廟)의 명칭 고찰 - 토론문

이 규 대 (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

양언석 교수는 양양지방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팀의 연구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학 즉 양양학의 정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논고 역시 교수님의 양양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지는 양양의 정체성과 동해신묘로 구분될 수 있지만, 두 가지 화두는 지역학 즉 양양학의 범주에서 필수적이면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수님의 평소의 강론을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논문으로 주목된다고 봅니다.

먼저 “양양의 정체성”에서는 양양지방의 역사와 문화의 시대별 담론을 시대별로 개관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체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중적인 탐색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학 즉 양양학의 발전적 연구를 위한 지침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교수님 또한 지역학의 정립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과 동해신묘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용신신앙은 고대사회 이래로 보편적이었음을 언급하고, 그 중에서 양양지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낙산사 관음굴, 의상법사의 보주와 여의주, 용제, 용가리 등등 이색적이면서 다채로운 설화 · 신화 · 연희 등등을 제시하면서 양양이야말로 동해용왕의 상주처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양지방이 동해신묘의 치제처로서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신묘의 명칭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해신묘 (東海神廟)를 동해신사(東海神祠)로 개정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준거로는 고려사와 실록 기사에 근거를 두고 당초 동해신사였으나, 점차 성리학에 영향으로 신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황해도 풍천의 서해신사 · 전라도 나주의 남해신사가 모두 신사(神祠)로 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동일한 위격의 신사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찬술한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문”을 비롯하여 어사 권준의 장계를 주목합니다. 여기서는 동해신묘로 표기되는바, 이 자료들은 이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찬술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다른 자료들보다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어의 개정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공감이 전제된다고 보면, 사례 수집을 넘어서는 보다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며 아울러 경종 때 채팽윤, 영조 때 이성억의 문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신묘의 시련과 복원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서는 동해신묘의 중수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대기 자료는 물론 금석문·문집·상소문 등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신묘의 존치상황이 파악되면서 사전(祀典)에 등재된 국가제의이면서도 신묘답게 관리되지 못한 사실과 그에 따른 중수과정을 규명하셨습니다. 또한 동해신묘가 훼철되는 사실도 명기하였고 다시 1993년 복원사업이 진척된 사실과 2000년 강원도문화재로 지정 사실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동해신묘를 연구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점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해신묘에 주신(主神)의 명호(名號)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초 국가에서는 용왕과 같은 작호는 사용을 금지시켰고, 이후 이 규정이 해제된 사실은 없습니다. 예컨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고 할 뿐 '동해용왕지신(東海龍王之神)처럼 용왕이라는 작호를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 사항은 조선조에서 치제가 공인된 제의 전반에 걸쳐 적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동해신묘 제의는 중사(中祀)의 위격을 가진 국가제의입니다.

한편 국가제의처로서 동해신묘와 용왕이라는 작호의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부부고』 부록으로 적기된 중수동해용왕묘비(重修東海龍王廟碑)에 파악되는 동해용왕묘와 동해신묘는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양양주민들을 비롯해 서민 일반에 있어서 용왕은 너무도 친밀한 용어임에 틀림이 없고, 이에 근거해 용왕신앙은 민속의 큰 영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해신묘 이상의 큰 영역에 민속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늘 과제로 안고 왔기에 문제로 제기해 봅니다.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에 대한 토론문

최 명 환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이사)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은 조선시대 '3대 해신사'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동해신묘'의 위상과 위치 등의 배경, 1993년에 복원된 동해신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정비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는 의미 있는 논문이다. 특히 동해신묘 정비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뜻 깊다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토론자는 건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계룡산의 '중악단'과 치악산의 '동악단'에서의 산신제를 참여 관찰하고, 복원된 영암의 '남해신사'를 살펴본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에서는 1993년 복원된 동해신묘와 관련해 복원 위치 문제, 유구 훼손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현재 동해신묘는 한 동의 정전 건축물이 있으며, 부속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전 건축물의 위치 또한 면밀한 발굴을 통해서 복원된 것이 아니기에 위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것은 동해신묘의 좌향과 관련한 부분이다. 물론 발굴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는 동해신묘가 "약간 동쪽으로 틀어진 남향으로 좌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동해신묘 좌향은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에서 "정전의 해체와 이건, 발굴조사, 기본계획, 이전 실시 계획 수립"을 통해 동해신묘 진정성 회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타당하다고는 보여진다. 그러나 양양군과 양양군민들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복원한 동해신묘 정전의 해체와 발굴 및 이전을 위한 대지 구입, 부속 건축물의 복원 등은 양양군과 양양군민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양양군 및 양양문화원 등 사업을 진행할 주체 기관 및 단체에서 양양군민들의 '복원 의지'를 갖도록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 등을 통해서 복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셋째,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 에서는 동해신묘의 위치, 건축의 외관 형태 등을 중심으로 그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내부 제단 및 장식'에 대한 제안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발표문 중에 동해신묘를 비롯해서 중악단, 남악사, 남해신사, 웅진단, 가야진사 등의 내부 제단 및 장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해신묘, 중악단, 남해신사, 가야신사는 그림을 통해 대상을 묘사하였으며, 남악사는 신위를, 웅진단은 곰조각상을 신주로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제단장식에 대한 연구 부재와 일제강점기 사당 폐지에 따른 봉사 폐지로 인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과 동해신묘의 내부 제단 및 장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넷째, 「동해신묘의 건축성격과 정비방향」에서 '주변 문화유산 및 관광시설의 연계를 통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동해신묘의 발굴과 복원만으로 주변 문화유산 및 관광시설과 연계하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특히 동해신묘의 경우, 훼손된 건축물의 재복원 및 일차적인 기능의 소실(?) 등으로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해신묘 관련 설화 및 동해 명칭 활용', '진전사지와 연계', '민간신앙과 불교, 유교와의 사상적 연계', '낙산사와 낙산해수욕장의 레저시설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동해신묘와 현대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발표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지 듣고 싶다.

“동해신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작”에 대한 토론문

이 영 식 (아시아강원미속학회 이사)

전통문화를 그대로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활용하여 창작에 이르러야 한다는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토론자의 역할을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양양의 동해신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문화콘텐츠로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2장에서 ‘시공세계글쓰기’ 및 ‘반(反)4차 산업혁명’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동해신사 관련 기록을 토대로 새로운 시공으로 창출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의 반인간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듯합니다. 시공세계글쓰기는 환상과 실재를 연결하는 상상력의 방법론으로서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레텔링을 토대로 하여 ① “동해신사의 동해용을 현재 우리 앞에 살려” 내어 “동해신사의 용이 하늘로 오름하는 용오름 광경을 해오름 양양(襄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②“복합현실(가상현실+증강현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문에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듯합니다. <포켓몬고>, <쥬라기공원>를 예로 드셨고, 동해신사 관련 사실과 설화의 특성을 분명하게 할 것, 동해신사의 주인공 동해신(용이나 용왕)을 양양의 공간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제시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하시는 ‘반4차 산업혁명’의 의미는 “인공지능을 인간적인 정서(情緖)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방법으로 ‘5차 산업혁명’을 제시하셨고, 그 방법은 “다문화론, 다신론, 다종교론의 입장에서 선(善)이 주체가 된 인간과 귀신의 교감, 인간과 인간의 교감이 중심이 된 산업을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善) 중심의 인간과 귀신’이라는 중심축을 활용하면 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과 귀신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될 때 사랑은 지구촌을 이끄는 보편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로 드신 <<오징어게임>>이 자본주의의 정글 원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인간

의 착한 본성에서만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 <오징어게임>이 결말에서 그 게임에 참여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는 반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 도래 시점을 앞당겨 2030년대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1]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선악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도래하는 특이점 이후의 AI를 성선설·성악설을 기준으로 일도양단(一刀兩斷)할 수 있을까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2]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신과 물질의 구분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빅테이터 기술은 말씀하신 대로 신격(神格)을 물격(物格)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정서보다는 기계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기계와 정서의 구분 또한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위험성을 극복하자면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사랑 중심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복합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귀신의 교감이 필요함’이라는 주장에는 ‘신격을 대치한 물격’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만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해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①‘전통계승론’은 옛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방법은 동해묘 관련 축제(祝祭)라고 하셨습니다. 해맞이 행사와 해수욕장 개장제로 변해서 그 전통을 잇고 있으니 다행스럽다고 하셨고, 문화재로 등록 및 옛 제도를 복원을 방법론으로 제시하셨습니다. ②‘전통활용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사의식에만 머물지 말고, 강릉단오제와 춘천 공지천의 경우처럼 스토리텔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인간과 신의 교감은 복잡하고 어려우면 접근할 수 없다. 인간과 신의 교감, 그리고 사람의 정서는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계승론’의 경우 발표자께서 예로 든 정조 때 글을 보면 아마도 일반인은 얼씬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축제는 어울림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무속인이 끼어야 축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단오제에서 무속인이 없다면 어떨게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전통활용론’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

1) 레이 커즈와일은 미국 출생의 미래학자, 발명가, 경영자, 작가인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기술과 GNR기술(유전공학(Genetics), 나노기술(Nanotechnology), 로봇공학(Robotics)의 발달로 세상은 특이점의 시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특이점’이란, 기술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영향이 넓어져 인간이 전의 생활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변화하는 기점을 뜻한. 인간에게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도래한다고 주장한다.(https://journey-to-find-happiness.tistory.com/2)

2) 스마트폰, PC를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10)

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문이 해소되어야 ③'전통창작론'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양양에서 동해신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 그것이 동해신사의 전통문화가 되는 것"이 전통창작론의 핵심인 듯합니다. 사례로 척추동해비의 실패와 해신당의 성공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참조하여 "동해신사의 전통은 재미와 쉬움, 접근성, 친근성을" 성공의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용의 활동을 실내에서 영상으로 보여주지 말고, 동해신사와 숲 그리고 바다에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밤에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신사뿐만 아니라 동해신사가 자리하고 있는 동해신묘지 주변을 활용해서 10~20분의 짧은 영화 한 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공간이 넓어져야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나아가서 용의 활동도 IOT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표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합니다.